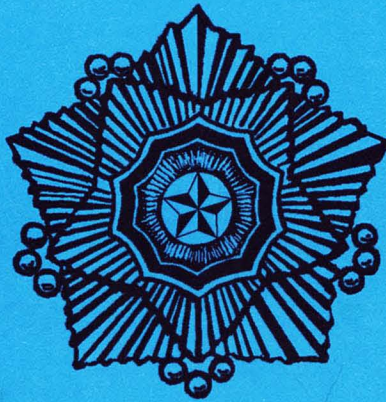


# 조선문학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특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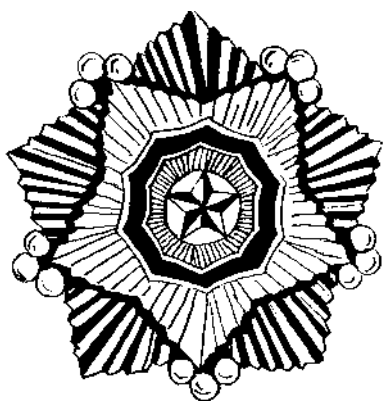


4

주체101(2012)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4호

(루계 제774호)

특간호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업적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

김 정 일

## 차례

-----|어버이수령님탄생|-----태양의 미소 못 잊습니다-----|100돛경축특집|-----

수령님의 100년(시) ..... 홍 민 식(4)

금수산태양궁전(시) ..... 홍 성 두(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5)

영원불멸의 찬가(시 묶음) ..... 리찬, 리광제, 정서촌, 김상오, 김석주, 김철, 오영재 (6)

승리자의 4월(정론) ..... 홍 철 진(11)

주체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론설)..... (13)

수령님의 수첩(시) ..... 김 경 석(17)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 ..... 허 문 길(18)

**주체문학의 대강** ..... (30)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수기 묶음)..... (31)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력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론설)..... 리 현 순(35)

조선의 해돋이(시) ..... 김 재 원(33)

영원한 조선의 길(시) ..... 김 용 엽(33)

오! 그날의 판문점(시) ..... 김 형 준(39)

땅과 영생(시) ..... 전 승 일(34)

한모습으로(시) ..... 김 정 삼(4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쟁강령으로 틀어쥐고 빛  
나게 실현해나가자!

— 공동구호에서 —

==|어버이수령님탄생|==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100돛경축특집|==

## ◇ 평 론 ◇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미래관에 대한

감동깊은 화폭 ..... 김 봉 민(42)

세기의 언덕 넘어 영원히 올려피질

수령흙모의 송가 ..... 김 정 평(46)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의 생애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 ..... 김 해 월(62)

단편 소설 아흐레갈이 ..... 강 철(50)

우리 삶의 주로 ..... 김 경 일(68)

○ 단숨에 ..... 김 철 이(40)

○ 집자리에 대한 생각 ..... 박 경 철(48)

○ 총대는 이어진다 ..... 서 현 일(66)

## 시

경축의 열병광장이여 ..... 황 명 성(61)

샤오사하의 작은 집이여 ..... 최 준 경(65)

봄날의 추억 ..... 전 수 철(45)

태양이 빛나는 거리 ..... 박 정 애(49)

나의 조준경속에 ..... 조 광 철(67)

사랑의 절정 ..... 리 명 근(79)

체대군인탄부에게 외 1편 ..... 변 흥 영(79)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은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하는 조선의 국력을 떨치는 중대한 계기이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을 과시하는 혁명적대축전이다.

— 공동사설에서 —

## 수령님의 100년

홍민식

만경대의 이 봄날  
고향집마당가에 들어서니  
여기선 세월이 흐름을 멈춘듯  
옛 그대로구나  
울담과 초가이영  
가난이 습배인 가장집물 농쟁기들...

생각도 깊어라  
이 소박한 고향집에서 시작된  
항일전쟁... 조국해방... 건당 건군...  
혁명의 수억만리를 헤쳐오신  
오, 영광찬란한 수령님의 100년사!

계절따라 꽃이 피고 열매맺는  
세월에 실려온 그런 100년이 아니다  
조국을 위하시교 인민을 위하신  
수령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었다  
수령님의 한해는 열두달 365일이 아니었다

싸움을 하시여도 일행천리전술로  
건설을 하시여도 천리마속도로  
세월을 주름잡아 세기를 이끄신  
정녕 수령님은 언제나  
래일에 사시고 미래를 앞당겨오신분

항일전의 나날 밀영의 밤  
대원들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우등불결에서 래일의 전투를 작전하시교  
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시며  
긴긴밤을 지새우시고

인민들 단잠든 깊은 밤에도  
수령님의 집무실 불빛은 꺼질줄 몰랐고  
이슬젖은 새벽에도  
농장벌 포전길을 걸으시고  
바다가 포구의 배머리에 계시고...

길었던가 짧았던가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눕히고  
가장 락후한 식민지나라를  
가장 강대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일떠세우신  
아, 수령님의 100년은

물어보자 력사여  
흘러온 세월 그 어느 시대  
화목하고 행복한 인민이 주인된 세상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시여  
온 누리에 떨친 그런 수령 있었더냐

세기를 이어 바라고바라던  
인류의 리상 인류의 념원을 꽃피우신  
어버이수령님의 100년세월은 정녕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신  
투쟁의 100년  
창조의 100년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 100년!

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환희로운 이 봄날  
끝없는 행복과 영광 궁지에 넘치여  
이 땅에 또다시 흘러갈 무궁세월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은 희망과 신심으로 부풀고  
우리의 심장 맹세로 불타거니

수령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앞길 밝혀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번영을 펼쳐며 세계를 앞서가는  
수령님의 세월 장군님의 세월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영원히 흐르리라  
100년... 또 100년!...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뽀뽀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로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만국로동계급의 전투적명절인 5월 1일 우리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기를 앞세우고 안도현 성에 입성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

《무력시위를 끝낸 대오가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치광수와 김일룡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몸져누워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오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고요히 웃고있었다.》

《미구에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음성도 퍼그나 젖어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조국광복을 기원하며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애국지사들의 로고에 대하여 생각하였을것이다.》

《1932년의 붉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서 무르익어갔다.》

## 금 수 산 태 양 궁 전

홍 성 두

심장이 뛴다 이 가슴 설레인다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이 땅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류의 크나큰 집이 솟아있다  
우리 이 집을 금수산태양궁전이라 부른다  
주체의 최고성지라 부른다

만물에 빛과 열을 주는  
저 하늘의 태양도 머리 숙이리  
조선이 낳은 세기의 위인  
만민의 태양 걸출한 혁명의 수령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영생의 모습으로 여기 계시도다

인민은 어떤분을 태양으로 받드는가  
어떤 위인이 태양으로 영생하는가  
승엄함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시대와 혁명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힌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빛발이  
억만가닥 해빛으로 이 가슴에 스며든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없는  
자주화된 세계의 앞날을 위해  
그처럼 뛴던 절세위인들의 심장의 고동이

그 열화의 숨결이 후덥게 온몸을 휩싼다

태양의 광휘와도 같은  
위대한 사상의 빛발로  
태양의 뜨거움과도 같은  
불같은 열정으로 조선을 빛내시며  
지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이끌어오신  
그 위대하고도 거룩한 불멸의 태양상이  
주체의 최고성지에 빛난다 온 누리를 밝힌다

그렇도다 정녕 그렇도다  
지구가 열백번 깨어지고  
하늘이 설사 무너진대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태양으로 영생하시여  
이 조선은 무궁토록 강성번영하리라

인민은 어떤분을 태양으로 받드는가  
희세의 위인은 어떻게 태양으로 영생하는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정화  
금수산태양궁전 그 성스러운 부름으로  
시대와 역사앞에 대답을 주셨도다  
불멸의 진리로 아로새겨주셨도다!

# 영원 불멸의 찬가

## 김일성장군 찬가

리 찬

—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함흥호텔에서 읊은 즉흥시 —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적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만으로  
도 족하신듯  
장군은 인민을 위한 한때도 심히 귀중히 여기고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  
한다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  
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된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장군의 파사로운 초양은 이미 령세한 눈발우에  
드리우고  
이제야 중천에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치솟군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1946.

## 만 경 대

리 광 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의 기슭에서 울린다  
가장 부드러운 바람결이  
그대의 산허리를 감돌고있다

뜨거운 마음을 안은 경건한 자욱자욱들이  
그대의 언덕에서 꽃으로 피고  
밤이면 다정한 별들이  
그대의 초가지붕으로 고요히 내린다

가장 깨끗한 심정들이  
그대의 사립문을 쓰다듬으며 목메이고있다  
가장 시련에 찬 민족들이  
그대의 목소리 들으며 동트는 새날을 맞는다

순종에 찢기고 열풍에 타던 가슴들이  
그대의 품에서 다시 소생되고  
파도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열혈투사들이

그대를 우러러 고향의 어머니라 부른다

가장 간고한 혁명의 길 여기서 시작되었다  
가장 영광에 찬 력사 여기에 빛난다  
인류의 봄 꽃피우는 주체의 뿌리 여기 내리고  
세기를 깨우는 력사의 종소리 여기서 울린다

오, 혁명의 태양 솟아오른 만경대!  
그대는 만리대공에 붉은 노을 펼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 높이  
모시고  
인류의 상상봉우에  
혁명의 집으로 찬란히 솟아있구나

만경대!  
만경대!

1974.

# 날 이 밝 는 다

정 서 촌

백두산 아름답리 원시림을 찍어서  
벽이며 지붕이며 쌓아올린 귀틀집  
등잔불 깜빡이는 나직한 방에서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밤은 무척 깊었으리...  
울부짖던 눈보라도 뜸해지고  
승냥이울음소리도 잠잠해지고  
태고연한 침묵만이 밀림속에 흐르는데

밤은 무척 깊었으리...  
난로우에 끓던 더운물도 잦아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그이의 모습 비끼인  
창가에는 허영계 성애가 불리는데

깊디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깨어나신  
그이의 손은 조용히 움직이신다  
연필을 달리시여 물결을 일으키는  
통나무책상우에 한장의 지도여

얼음을 깨물며 가야 할 행군  
침침히 다가서는 준령도 많아라

그러나 기어이 그것들을 넘어서야  
조국으로 개선할 승리의 길

간고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위대한 구상을 하신다  
오, 이밤 채찍에 쓰러지는  
동포들의 신음소리 귀전에 들으시며...

그이께서는 지그시 연필에 힘을 주시여  
원썩들의 진지에 화살표를 집중하신다  
—가자, 어서 대오를 이끌고  
가자, 튼튼히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깊어간 백두의 밤이  
몇밤이나 되던가 몇천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친 외투깃을 추켜올리시며  
장군님께서 밀영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날이 밝는다  
백두산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1959.

# 나 의 조 국

김 상 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니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질 듯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버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도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니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어,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 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리안고 잤더니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럼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오, 조국이어 조국이어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조국이어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 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 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어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내려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잇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어라!  
조국이어 나의 조국이어

#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김 석 주

창밖에 비뿌리고  
날이 저무니  
가슴가득 떠오르는  
수령님 생각

오늘은 어느곳에 계실가  
밤비를 맞으시며  
그 어느 령길을 넘고계실가  
그 어느 들길을 지나가실가

그날도 이맘때 이러한 저녁  
멀고 험한 밤길을 이어가셨지  
쉬어서 가시였으면  
비라도 그어서 가시였으면...

간절하고 송구한 우리 마음 아시고  
산촌마을 농민들도 기다린다고  
우리야 늘 이런 길을 걷는데  
찬비를 맞지 말고 어서 들어들가라고

불빛이 아늑한 마을을 뒤에 두시고  
웃으시며 떠나시던 수령님모습  
어제도 오늘도 못 잊고  
낮에도 밤에도 못 잊어

창밖에 비가 내려도  
문득 이런 날 걸으실 수령님 생각  
창밖에 눈이 와도 바람이 스쳐도  
가슴뭉클 젖어오는 수령님 생각

기나긴 한평생

눈비속을 가시는 수령님  
맑은 날 좋은 날은 우리에게 주시고  
곳은 날 험한 날을 헤쳐가시니

락원의 강산에 행복의 꽃들이 피여도  
마음속엔 내리는 백두의 눈송이  
이 땅의 끝까지 사랑의 열매 주렁저도  
목메여 더듬는 그 자욱자욱

아, 찬비속에 안고오신 사랑이어서  
받아안은 사랑이 이렇듯 뜨거웁고  
찬눈을 맞으시며 안겨주신 행복이어서  
누리는 행복이 이렇듯 눈물겨운가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좋은 날 젖는 행복 고마운 마음  
그날의 눈비 행복의 이슬로 젖어  
가슴속에 끝없이 고이는데  
맑고 깨끗하게 샘솟는것은

언제나 그 언제나 수령님 높이 모실 생각  
어느때나 그 어느때나 수령님 받들어갈 생각  
우리의 가슴속엔  
아버이수령님 생각뿐이여라

1977.

# 만 수 대

김 철

났으신것은 백두의 용암대지  
손들어 가리키심은 우주의 한끝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

여기서 해가 뜨고 달이 쏸고 별이 돌아라  
여기서 주체시대의 장엄한 음악이  
광대무변한 누리를 진감하여라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총화되고  
혁명가들의 선서가 예서 다쳐지나니

행복하여라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량심을 헤쳐놓은 사람은...  
또 영광이여라  
곡절많은 한생을 여기서 매듭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 가는 전사는...

쳐다보며 오를 때엔  
모래알처럼 느껴지던 자신의 존재도  
돌아서 내릴 때면  
산악보다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주는

오, 만수대! 만수대는  
인간만세의 무궁한 령마루로  
찬연히 빛나도다

1979.

## 만민의 태양

오영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월이 기다렸던분  
기다림에 기다림에 가슴이 타던  
그 숙망의 언덕에  
쫓아오르신분

그이는  
흘러간 유구한 력사  
흘러갈 영원한 세기가  
서로 손을 맞잡고  
20세기 하늘높이 받들어올린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월이 머리회도록 찾아헤맨  
진리의 아름다운 구슬을  
짓밟힌 인민들속에서 찾아내시고  
억만가닥 빛발에 담아  
누리에 뿌려주신분

그이는 그 빛발로  
온 지구에 환희를 주시며  
꽃망울을 터치시여  
다투어 봄이 웃는 대지에  
넘치는 삶의 향기로  
력사의 새 아침을 가득 채우신분

**김일성**동지 그이는  
철쇄와 멍에밑에 짓눌려 울던  
인간을 뜨겁게 안으시여  
행복의 푸른 언덕이 끝없이 굽이쳐간  
봄의 들판에 세워주신분

그이는  
존엄높은 인간의 머리우에  
구만리 창공을 비껴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인류가 그토록 피를 흘렸던  
해방과 자유의 나래를 달아주신분

그이의 사색앞에  
력사는 세기를 내맡기고  
그이의 사랑앞에  
만민의 가슴은 젖어라

그이의 손길은  
인간의 힘이 창조할  
새 세계의 모양을  
찬란한 주체의 해발로  
지구우에 뚜렷이 그려주시었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수천년을 혼잡속에 헤매이던  
세계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정연한 대오를 무어주신분

그이는  
이 대오우에 첫 구령을 내리신  
세기의 령술자  
《앞으로!》  
새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력사의 대진군우에  
불멸의 기치를 주신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새 세계  
그이는 우주의 중심  
조선의 만경대  
가난한 인민속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수령님  
그이는 주체의 태양!

1977.

## 승리자의 4월

홍철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며 투쟁 속에 손뼉아 기다려온 2012년 4월이 밝아왔다.

아버이수령님탄생 100돐!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입에 올렸던 말이며 이 나라의 천만사람들이 얼마나 거창한 사업과 실천의 표대로 두고 산 2012년 4월인가.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최상의 높이에서 분출되는 이 시각 승리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며 대하마냥 합쳐지는 생각이 있다.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왔더라면...

눈물을 머금은 가슴마다에 우렁치 떠오르는 성스러운 추억이 있다.

논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초강도강행군, 철야강행군...

부르기조차 가슴뜨겁고 눈물겨운 이 력사의 날과 달들이, 인민을 위해 그렇듯 자신을 깡그리 태워오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한평생이 지금의 4월을 떠받들고있다.

이 땅에 찾아온 2012년 4월은 결코 세월의 궤도를 타고온 시간의 루적이 아니었다.

우리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위대한 심장에 서 더웁혀진 우리의 피였고 우리의 땀이었다.

2012년을 누구보다 일찌기 가슴속깊이 간직하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고 이 위대한 봄과 누구보다 마음속 말을 많이 나누신분도 다름아닌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이 나라 천만군민을 일으켜세우시던 그때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2012년 4월은 어떻게 자리잡았던가.

수령님 맡기고 가신 이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 우리러보는 강성국가로 빛내여 수령님념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시려는 그 철의 의지가 그대로 우리 장군님께서 간직하신 2012년이 아니었으랴.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나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2012년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는 너무도 가깝고 소중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 나라 인민의 모든 소원을 수령님의 념원과 하나로 이으시고 2012년 4월을 향해 정말이지 불같이 살아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어제길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멸의 헌신과 로고로 우리 장군님께서 오죽 힘드시랴만 2012년으로 가는 길이 늦어진다고 현지도의 밤길에서 다시 새벽길로 이어가신 혁명실록의 그 하많은 낮과 밤들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노래에도 있듯이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으며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오셨는가.

다박솔초소! 우리 장군님께서 피눈물을 딛고 일어서시여 선군의 의지를 더 굳게 버리신 이 사연 많은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켜야 강성국가이고 싸워이겨야 강성국가이기애 불꺼진 공장마 마을을 지나시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못하시고 조국수호의 최전방인 전선길을 가셔야만 했던 우리 장군님.

허리띠를 졸라맨 사랑하는 인민을 눈앞에 보시면서 자신을 이겨내셔야 했던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을 누가 다 알았으랴.

지금은 고난의 천리를 가지만 신념과 의지로 이겨낸 오늘을 추억하며 강성국가의 대문에 들어설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누구보다 굳게 믿은 신분이시기에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병사들의 초소를 자신의 집보다 더 많이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렇게 버려진 우리의 총대였다.

그렇게 다져진 우리의 국방이었다.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우리 인민은 우리에게 누구나 쉽게 가질수 없는 이 정의의 보검을 그렇듯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장군님이 고마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다.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작은 나라가 핵보유국이 된다는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일인가.

침략자의 발굽에 짓밟혔던 피눈물나는 과거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민족의 존엄을 안겨주시자니 우리 장군님의 로고가 얼마나 천겹만겹으로 쌓이셨으랴.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드시고 부강조국건설도 함께 밀고나가시자니 우리 장군님께서 늘 시간이 모자라셨고 낮과 밤을 잊으시고 바쁘게 사셔야만 했다.

빨찌산식강행군이란 말도 그렇게 태어난것이였다.

너무도 자신을 잊고사시는 장군님의 건강이 넘려되어 한 일군이 눈물이 글썽하여 간절히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그 일군을 달래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나의 빨찌산식강행군은 앞으로 계속될것입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 나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인민들이 잘살고 기뻐하면 나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강선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

2012년 4월은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전환적시기마다에서 이런 위대한 헌신, 위대한 창조속에 마련된것이다.

그 거창한 불길속에서 변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 세상을 놀래웠다.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내 조국에 회천속도가 창조되고 대계도간석지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지더니 비날론지구가 새로운 비약으로 용솟음치고 홍남의 가스화에 의해 우리의 주체비료가 쏟아져내리는 가슴벅찬 현실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던가.

우리 장군님의 리상이 얼마나 높으며 그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장군님 키워주신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 결심하면 이 세상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오늘의 4월으로 오는 전진도상에 참으로 참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헤아릴수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끝끝내 승리자가 되었다.

이 나날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힘이 잠재해있었는가를 자신이 놀랍도록 절감하였다. 그 무한대한 힘을 찾아주시고 실천적모범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력을 보여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령도자가 그렇듯 강하니 인민도 강자가 되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이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것인가를 세계가 눈을 부비고 보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래야 가질수 없고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수 없는 일심단결의 이 위대한 힘은 그대로 조선의 재부이다. 그래서 우리 비록 부족되는것이 많아도 남을 넘겨다보지 않았고 생활의 구석마다에서 애로와 마주설 때가 많아도 결코 탄눈을 팔지 않았다.

령도자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던 나날 두차례의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체험했고 재가루만 날리는 폐허우에서도 체험했다.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오면서 이 고귀한 전통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확증되었다.

천만군민이 자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기는 법을 배워온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그래서 원썬들은 우리의 이 정신력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위대한 힘을 핵폭탄보다 더 두려워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날에 날마다 이어지는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강하신분인가를 걸음걸음 폐부로 절감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 회생을 각오하고 사셨는지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았다.

눈도 많이 내렸던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인민은 우리 장군님께서 이미 인간의 육체가 견딜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대한 정신력으로 인민앞에 서계셨다는것을 너무나도 매늦게야 깨달았다.

2012년 4월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고귀한 정신력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4월의 대축전장에 홀로 들어서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섰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첫 진군을 시작하였다.

새해 정초부터 끊임없이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겹게 안겨드는 말씀들.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아버이장군님의 현지도날자가 1월 17일이면 3일전이라고, 그날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아버이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오실 때마다 늘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씀하곤 하시었는데 자신께서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동무들이 이룩한 성과를 장군님께 꼭 보고드리겠다고...

아버이장군님께서 남기고가신 이 땅, 이 인민을 행복한 인민으로 만드시고 남부럽지 않은 강성국가로 일떠세우시려 우리의 **김정은** 동지 찾으시는 곳마다, 만나주시는 사람들마다 언제나 그이의 마음속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지니.

오늘의 경사로운 이 4월에 아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함께 오시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불타는 결의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그리움의 4월과 맹세의 4월이 합쳐진다.

아버이장군님 슬하에서 더더욱 강해지고 보다 더 아름다와진 승리자들이여!

강성국가의 4월로 이어질 휘황찬 우리의 앞길에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신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서계신다.

백두의 기상이 차넘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주체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우리 조국청사에 길이길이 아로새겨질 뜻깊은 주체101(2012)년의 태양절의 아침이 밝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태양절의 이 아침 우리 작가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주체년호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력사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이시며 인민의 결출한 령도자, 혁명의 대성인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그 완성을 위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승리의 한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오신 사상리론의 영재, 불세출의 선군령장, 절세의 애국자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인이 남긴 업적은 력사에 남는다.

진정으로 결출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는 력사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불멸한다.

쌓으신 그 업적 하늘에 닿고 베푸신 사랑이 대하를 이루어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영원토록 못 잊어 흠모하며 따르고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영원한 그리움의 송가, 태양찬가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있는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는 흠모심과 그리움속에 우러르며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 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하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업적가운데서 항일혁명문학의 창조와 령도는 첫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정력적인 령도와 창작집필활동으로 우리 주체문학의 영원한 뿌리로, 생명선으로 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전통을 창시하시였다.

문학에 대한 수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문학과 그 창조사업에 대한 지도적지침을 주는 사상리론적령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철학적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로선을 구현하시여 사람중심의 주체의 문예관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견해, 주체적문예관의 근본문제를 밝히는데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작품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였다.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조선의 노래》, 《사향가》, 《조선인민혁명군》, 《반일전가》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혁명과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항일혁명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작품으로서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를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의 인간학의 본보기이며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문학작품의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몸소 창작지도하신 그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 민족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구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후 우리 문학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무엇보다도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방침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령도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건국사업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여러차례 작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작가의 사명감과 임무도 가르쳐주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력사적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형상방향과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며 그 혁신적발전은 새로운 현실에 토대하여 이루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우리 인민을 새 민주조선건설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이 새로운

혁명적현실을 문학작품에 옳바로 반영하도록 작가들을 이끌어주시었다.

해방의 기쁨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창조적인 건국정신, 이것은 새 조선의 문학이 현실주제작품에 반영하여야 할 기본내용이었다. 해방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차넘친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한없는 기쁨과 자랑이었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수령님을 노래하고 형상하는데 창작적열정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시 《**김일성장군 찬가**》, 《해별에서 살리라》,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 등이 창작되었다.

그리고 가사 《승리의 5월》, 《녀성의 노래》, 서정시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장편소설 《땅》 등 나라의 주인, 창조의 주인으로 된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긍지와 자랑, 단결의 힘으로 모든 곤난을 물리치고 부강한 새 조국을 세워 나가려는 그들의 높은 애국심과 전투적기상, 창조적열정을 힘차게 노래한 작품들은 건국의 열정과 만만한 투지로 들끓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문학앞에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일찌기 세계전쟁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렬처절한 싸움이었다. 전선과 후방에서 발휘한 무비의 영웅주의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사람들로부터 영웅적인민으로 불리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성격과 그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를 헤아리시어 우리 문학예술을 영웅적문학예술로 되게 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우리 문학예술을 영웅적문학예술로 되게 할데 대한 역사적과업과 함께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에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한 《조선은 싸운다》를 비롯하여 서정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가사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샘물터에서》, 《내 고향의 정든 집》, 단편소설 《불타는 섬》 등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무비의 용감성, 떨적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를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의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계속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를 열어주시음으로써 문학은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발전의 길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우리 문학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주체형의 인간전형인 천리마기수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인간개조의 힘있는 무기로 발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11월 27일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발표하시어 문학예술에 천리마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며 시대의 주인공인 천리마기수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천리마시대 문학발전의 진로를 명시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우리 문학은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현실속에 들어간 작가들의 창작과 생활정형을 현지에서 몸소 알아보시면서 구체적인 지도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었으며 창작된 작품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가사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 《해주-하성서 온 편지》, 장편소설 《시련속에서》, 극문학 《아침노을》, 《붉은 선동원》, 《산울림》 등은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시대의 대표작들이다.

혁명적문학예술,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조선의 참된 혁명가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량만주의를 키워주는 문학예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해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우리의 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인 문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었을뿐만아니라 혁명적작품의 창작실천과정을 정력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혁명투사로 성장하는가 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를 비롯한 혁명소설들을 보아주시고 작품의 진실성과 인간학적풍격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미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문학사업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적문학으로서의 우리 주체문학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옹호고수하여 혁명의 무기,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중대한 사업으



로서 혁명적문학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주의문학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로 된다.

1960년대 후반기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 일련의 혁명전통주제작품들중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반영하는데서 오류를 범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확고히 의거하여 전형화할데 대한 원칙을 밝히심으로써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원칙적으로 구를 심오히 천명하시였다.

실로 문학사업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문학의 발전도상에서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로동계급의 문학의 당적이며 혁명적인 본성과 요구를 근본적으로 천명한 위대한 사상이였으며 혁명적문학건설의 가장 높은 단계를 열어나갈수 있게 한 불멸의 기치였다.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위대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의 본모기를 창조하도록 우리 작가들을 이끌어주시는 한편 세계문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개화발전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20세기말에 이르러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인류의 투쟁도 더욱 적극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류는 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 절박한 현실은 인류의 량심이고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인 세계의 진보적인 작가들앞에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인류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5(1986)년 9월 29일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시아, 아프리카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를 베풀시고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심으로써 시대가 문학앞에 제기한 절박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룡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주체의 인간학발전의 영원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여주시고 세계문학을 자주화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신 문학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영명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더욱 찬란히 꽃피어났다.

오늘 이 땅우에는 인류문예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지난 시기의 낡은 틀을 깨버리고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으며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확고히 선 명작들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자기의 위치를 튼튼히 차지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품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과 영화, 연극과 가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기는것으로부터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였다. 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혁명소설, 혁명영화, 《피바다》식가극, 《성황당》식연극들이 수많은 태어나 항일의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며 찬란히 꽃피어날 우리 문학예술의 밝은 앞날, 새로운 발전면모를 그려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밝힌 수령론을 우리 문학창작에 구현하시여 수령형상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기본주류로 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다.

그 나날에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덕망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 시가작품들이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문학론》,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문학예술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에는 주체의 문예관을 확립하는 문제로부터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문제, 우리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삼고 수령형상문학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문학의 사상적대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명시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종자를 바로잡고 성격위주의 문학을 창조하며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창작에서 견지해야 할 미학적원칙들이 다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문학은 주

체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을 훌륭히 형상한 명작들을 창조하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전진해가는 자기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문학은 선군시대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꽃이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송의 선군정치를 우리 문학이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로작들과 강령적인 가르치심들에서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는 명작이란 어떤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미학실천적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어 작가들을 선군시대의 명작창작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었다.

태양의 빛과 열을 떠나서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시대의 명작들은 어느것이나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피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던 그 나날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킨 잊지 못할 서사시들과 가사들, 장엄하고 격동적인 선군시대를 열렬히 긍정한 수많은 서정시들, 시대의 참된 전형적성격을 형상한 장편소설들...

이 훌륭한 시대의 명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자를 주시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어 세상에 태어난것이다. 바로 여기에 선군시대 명작들이 안고있는 거대한 역사적의의가 있으며 선군시대에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끝없는 긍지와 행복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시대의 명작으로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우리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영원한 령도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창조와 건설에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그 발전의 만년담보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하여 우리가 창작하는 모든 작품들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의 붉은기사상, 사회주의사상만이 짙 차호르게 하며 우리 당의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창작실천으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인 기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자신의 리상으로 새겨안으시고 불철주야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형상한 작품창작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켜 이 땅위에 장군님의 력사가 영원히 굽이쳐 흐르게 하며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고 리상이었던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이 선군혁명문학의 담당자들인 우리들의 최상의 영예이고 긍지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기세높이 전진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칠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장군님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선군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대중속

# 수령님의 수첩

김 경 석

4월의 이 아침  
꽃다발 정히 안고  
여기 내 고향 사리원  
정든 상매산에 오르니  
아버이수령님  
수령님은 오늘도 수첩을 들고계신다

이슬젖은 논두렁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이 대답올리는  
이 고장 흙성분을 적으시던 수첩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마을  
집집에 모자라는 밥사발이며  
수저의 개수까지 적으시던 수첩

대야금기지를 찾으셨을 땐  
늘어난 쇠물량을 헤아리시며  
환하신 미소속에 계신 아버지  
새 집 새 거리 새 극장...  
인민에게 더해주 그 기쁨을  
하나하나 소중히 새기시던 수첩이여

못 잊어라 풍년든 논머리에서

벼이삭의 알수도 친히 세여보시며  
수첩을 펼치시던 수령님모습  
그 수첩엔 또한 올라있지 않았던가  
인민들의 식탁에 가닿을  
새로 지은 닭공장의 생산량까지

오, 한자한자  
한페이지 한페이지가  
국사가 되고 정책이 되어  
조국이 펼쳐온 번영의 력사  
인민이 누려온 행복의 서사시로  
넘치도록 수놓아진 수령님의 수첩이여

오늘도 수령님은  
수첩을 들고계신다  
인민을 하늘처럼 귀중히 여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려있는 수첩은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의 앞길을 밝힌  
휘황한 설계도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져있는  
사랑의 실록이여라

에 깊이 들어가 들끓는 현실을 깊이있게 체험함으로써 참신한 종자를 찾아쥐고 형상으로 꽃피워 시대의 모습이 비낀 생동한 인간성격을 창조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정신력에 창조와 혁신의 불을 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해야 한다.

또한 창작실을 전투장으로 여기고 들끓는 시대에 자기의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며 명작창작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해나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넘치는 열망이며 우리 삶과 투쟁의 목표이다.

우리 작가들은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나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이라고 소리치며 자랑할수 있는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아버지수령님의 손길아래,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작가다운 문학정신과 창작자세를 가지고 명작창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선군시대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창조와 건설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문학령도업적이 천추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발전되고 문명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으로 찬란히 빛나고 철세의 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투쟁, 우리의 생활을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제 또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 태양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친아버지,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다.

전체 작가들이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기 위하여, 이 땅의 천만년 릉성번영을 위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토록 우러러 칭송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의 성스러운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며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 힘있게 돌진해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돌격나팔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 위대한 심장

허 문 길

그림 김 광 석

1

내각부수상 홍명희는 아침모임이 끝나자 평양시 서문동과 가루개에 있는 시장들을 한바퀴 돌아보고 내각청사가 자리잡은 룡흥리채석장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전쟁전에 이곳에는 아름답리나무들이 짝 들어차서 밤에는 메돼지까지 어슬렁거렸다고 한다. 지금은 들쭉날쭉 파헤쳐진 돌무지와 사이사이 로송 몇 그루와 키낮은 관목림이 있을뿐이다.

홍명희의 뒤로는 도시경관을 말아보는 젊은 참사가 불안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말없이 따라오고있었다.

원체 과묵하기 그지없는 홍명희이지만 이날따라 말 한마디 건너지 않고 옮기는 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사실 홍명희는 떠난 걸음도 가볍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걸음은 한결 더 무거웠다.

《음—》

채석장입구가 바라보이는 가루개채등에로 터벌터벌 올라서던 홍명희의 두툼한 입술새로 부지중 긴 한숨이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시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처참하게까지 느껴지던 광경이 눈앞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어룡거렸다.

함지박이며 바깥찌며 물초롱... 낮과 호미며 쭈그러든 화로, 색바랜 치마며 해진 덧저고리... 말린 고사리며 고추가루, 언배추와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해묵은 김치...

그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팔고사던 사람들의 여윈 얼굴들, 애처롭게 가슴에 스며들던 녀인들의 싸구려소리... 그런가하면 이 전쟁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고 손님들을 불러들이던 송어집주인의 반죽좋은 얼굴도 있었다.

《음—》

채석장입구에 이른 홍명희는 자기 사무실이 있

는 갯도에 들어서기 전에 마치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여러가지 시름거리를 겨울바람에 털어버리고싶은듯 부서진 돌무지에 털썩 주저앉아 긴숨을 다시 내그었다.

눈앞으로는 멀리 장대재와 가루개거리가 보였다. 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볼만 한 흔적조차 사라진 거리다.

미제의 폭격에 무참히 파괴된 도시의 처참한 광경이 새삼스럽게 홍명희의 가슴을 후벼냈다.

집들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여기저기에 토굴집과 반토굴집들이 엉성하게 보인다.

무너진 벽체와 가지부러지고 허리중등이가 동강이 난 가로수들...

상처입은 도시가 그의 발밑에서 신음하고있는것이다.

시장에서 커다란 비분에 타들던 가슴에 다시금 쓰라린 덧재가 날아들어 그의 가슴을 더욱 쓰리고 격노하게 하였다.

홍명희는 주먹으로 무르팍을 자근자근 두드리며 치밀어오른 분노를 그만에야 터뜨리고말았다.

《더러운 양놈들!》 홍명희의 두툼한 입술이 열리더니 거센 노성이 터져나왔다.

《전쟁을 해도 더럽게 하지 않느냐?! 반만년을 이어온 성지를 기어이 도륙을 내고 맥을 끊어버리려고 잡도릴 했구나!》

홍명희의 노성이 여느때없이 거세차서 곁에서 엉겨주춤거리고 서있던 참사마저 흠칫 몸을 떨었다.

홍명희는 조선문단의 대가서렬에 오르는 오랜 문인이기도 하다.

펜을 달리면 세상만사가 펜끝에 실려 자유분방하게 엮어지고 그속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사스럽게 만들어가지만 당자는 입을 다물고 이를사홀도 지내는 과묵한 사람이다. 사람이 당하는 희로애락을 가슴깊이 묻어두고 입으로는 좀체로 터쳐놓을줄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홍명희는 속에서 설설 끓고있는 울화를 더는 참아낼수가 없어 으

스러지게 틀어잡은 주먹을 후들후들 떨었다.

《부수상동지, 이제 하늬바람이 터지면 눈보라가 일겁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참사는 분노와 아픔과 시름에 시달리는 년로한 부수상의 격노한 옆모습을 조심히 살피다가 걱정스러운듯 권하였다.

그 말을 기다리거나 한듯 정말 통남산쪽으로 뻗은 골짜기에서 한줄금의 바람이 휩 불어오더니 채석장앞에서 룡트림같은 흰눈기둥을 말아가지고 달려들었다.

참사를 향해 흘깃 눈꼬리를 들었던 홍명희는 참사의 녀려와 눈앞으로 곧추 달려드는 눈기둥에는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둘 다 그 눈속에 묻혀 하얗게 눈사람이 되고말았다. 그래도 홍명희는 돌무지우에 얼어붙은듯 기척이 없었다.

잠시후 그는 모자를 벗어 옷을 툭툭 털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그 대목을 살려야겠소.》

《예?》

홍명희가 나직이 내뱉은 소리를 들은 참사가 허탈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홍명희의 어두운 그늘이 실린 얼굴을 보고는 더 말을 붙여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홍명희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로부터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안을 제출할것을 지시받은것은 며칠전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산진으로부터 평양에 돌아오신 후 인차 평양시의 여러곳을 세세히 돌아보시고 홍명희에게 이 과업을 위임하시였다.

그사이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적들이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여 버린 수도를 복구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대책안들이 나와 첫시작을 땀다.

벌써 파괴된 상하수도망이 복구되어 수도물이 나오고 된장, 간장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대동강의 동서를 편결하는 수중다리와 나무다리도 건설되어 사람들과 운수기재들이 강을 건너 오고갔다.

그런데 여적까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불쑥 돌출되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평양과 지방의 도, 시, 군 소재지들에서 다시 문을 연 시장문제였다.

어제 저녁에야 가까스로 문건초안이 작성되어 홍명희의 책상우에까지 왔다.

결론부터 앞에 찍어놓는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장문을 닫는다는것이였다.

참사를 비롯한 시장문제와 관련한 문건의 기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굵직한 논거를 내걸고 그런 결론을 뽑아냈다.

첫째로, 미제공중비적들이 수도를 비롯한 도 소재지들을 초토화하고있는데 그 첫번째 과녁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장이라는것이다.

미군비행사들은 사람은 물론 송아지만 봐도 수백수천발의 기총탄과 폭탄을 마구 던져버리고야 직성이 풀려 달아나는 악한들인지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이 위험하다는것은 반론할 여지도 없었다.

문건기안자들은 평양에 대한 여러차례에 걸치는 미제야수들의 폭격에서 당한 장마당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엮어놓았는데 그 엄청난 수자에 홍명희는 아연해졌다.

둘째로, 싸우는 조선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이제 멀지 않아 세계법률가협회대표단도 오고 국제녀성련맹도 대표단을 받아달라고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왔다.

서방기자들은 찾아오겠다고 한다.

(그래, 전선과 후방에서 너나없이 피를 흘리는데 장마당에서까지...)

지금 홍명희는 얼음같이 차디찬 돌무지에 퍼더버리고앉아 두려운 눈덕을 내리붙이고 문건의 폐지들을 다시금 머리속으로 가슴아프게 더듬고있었다.

백천가지를 다 젖혀놓고서라도 장마당에서 귀중한 사람들을 잃고있는 그 한가지만 하여도 시장을 폐쇄할데 대한 문제는 더 가부를 따져볼게 없을것 같다.

전선에서 끝날같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것만 해도 통분하기 그지없거늘 장마당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잃다니... 안되구말구.

《미국놈들도 거기가 장마당이라는걸 알아볼테지?》

홍명희는 너무도 어리숙한 물음이었지만 느닷없이 화가 나서 통명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장마당이라는걸 알기에 더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야만들! 더러운 놈들!》

홍명희는 남쪽하늘을 노려보며 더욱 기가 나서 소리질렀다.

홍명희는 자리에서 젊은이들처럼 기운차게 일어났다.

그는 갱도입구를 향하여 팔을 신경질적으로 활활 내저으며 걸어갔다.

《그래, 장마당에서 인민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 안된다.》

장마당을 돌아보기를 열번 잘한것 같다.

언제나 **김일성**동지께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들을 실상그대로, 사소한것도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고드리는것을 철칙으로 내세우고 사업하는 고지식하고 량심의 대가 결바른 홍명희였다.

이것은 그가 1948년의 잊을수 없는 봄날에 그이의 품에 안겨 나라의 중요정사를 맡아안은 때로부터 추호의 드림이 없이 지켜오는 사업원칙이고 방식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활에서나 사업에서 가식이 없는 홍명희의 그 대쪽같은 량심과 어질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귀중히 여기시고 아껴주신다.

홍명희는 오늘 새벽까지 시장대책안과 관련하여 관계일군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청취하였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귀로 듣지 못한 사실을 장군님께 보고드릴수가 없어 추위와 비행기폭격을 넘려하는 일군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마당길에 나섰던 것이다.

헛걸음이 아닌것 같다. 나와보기를 잘했다.

이제 더는 미를 필요가 없을것 같았다.

더 머물거리다가는 여러가지로 낭패를 볼것 같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제라도 당장 서해쪽에서 갈가바퀴때들이 덮쳐들가봐 더욱 조바심이 났다.

그는 걸음을 빨리 하였다.

갱도입구에 이른 홍명희는 참사를 향하여 돌아섰다. 무게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참사동무, 그 문건을 가져다가 시급히 타자를 쳐가지고 오시오.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도시경영상을 불러 최종합의를 보겠으니 그리 알고 문건을 완성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참사도 홍명희가 복잡한 심리적굴절을 거쳐 드디어 결단을 내린것이 다행스러운듯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 2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그마한 지하갱도 집무실에서 문건에 눈길을 주신채 사색에 집념하고계시였다.

부관이 열어주는 문으로 집무실에 들어서던 홍명희는 좁은 방의 키가 닿을듯말듯 한 천정에 매달려 불빛에 번들거리는 물방울들이 마치도 자기의 가슴에 알알이 아프게 떨어지는듯싶었다.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국가 군대들을 대상으로 혁명전쟁을 령도하시는 령장을 모시기에는 너무도 수수한 방이였다.

(아, 이 홍명희가 나이를 헛먹었구나.)

홍명희는 내각에서 부수상의 직능뿐아니라 년장자로서 여러가지로 마음써야 할 일이 많다.

내각사업도 큰집안일처럼 년장자의 위엄과 훈수가 더잘 통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장군님을 모시는 일이야말로 자기가 나서야 할 중임으로 언제나 마음을 써오는 홍명희였다.

홍명희는 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이모저모로 자기 구실을 못하는 죄책감으로 이렇듯 때양 가슴미여지는 아픔을 느끼곤 한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니 눈뿌리가 화끈해왔다.

원래 홍명희는 여기 룡흥리채석장이 내각청사의 후보지로 물망에 오른 때부터 최고사령관동지의

집무실만은 다른 곳에 꾸리려고 원심을 써왔다.

우선 이곳은 위치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성이가 우뚝 솟은게 적들의 비행기에 쉽게 로출될 념려가 컸다.

그리고 이 채석장의 갱도를 아무리 구석구석을 다 뒤져야 김일성동지를 모실만 한 방을 찾을수가 없었다.

제일 걱정스러운것은 룡흥리채석장의 갱도가 심층이 깊지 못한것이였다.

사실 먼 후날 이곳은 미군놈들의 평양시폭격에서 제1차 타격대상으로 선정되였는데 한번은 갱도의 꼭대기에 한톤짜리 폭탄이 떨어져 그 진동으로 갱도안의 유리고뿌가 깨어진 일도 있었다.

그때 아래일군들에게 시급히 안전한 곳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공사를 다그쳐 갱도를 다시 손질하라고 신칙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 새로운 갱도를 굴설하겠는가, 갱도가 있으니 이 채석장을 리용하면 된다, 전시환경에서 이만하면 내각이 자리잡을만 하다고 하시면서 동발목이 그대로 있고 벽체미장도 하지 않은 이곳에 자리를 잡으시였다.

홍명희가 너무 송구스러워 갱도에서 그중 시원해보이는 방에 그이를 모시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만류하시였다.

좁 크다는 방들은 회의실로 혹은 치료실로 혹은 휴게실로 꾸리시여 내각의 여러 성원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시고 자신께서는 굳이 이 작은 방에 자리를 잡으시였다.

《홍선생, 우리 이 방에서 미제를 꺼꾸러뜨려봅시다. 사무실이 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다는겁니까? 백두산에서는 말그대로 가랑이를 덮고 자면서도 일제를 쳐부시였는데 이쯤되면야 호사이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비좁고 습기찬 방에 그이를 모시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홍명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시고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오늘 저녁에는 보위상을 만나야지. 이달중으로 공사를 끝내게 하자.)

홍명희는 지금 김일성동지의 집무실을 놓고 탄궁리가 있었다.

평양의 곳곳에 전문가들을 내세워 탐문하여보니 사창시장 맞은편의 등성이가 안성맞춤이였다.

어느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보위상과 공병국장이 참가한 자리에서 홍명희는 그쪽이 이모저모로 명당자리이니 공사를 벌려 내각의 일부 부서를 그 곳에 옮기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단박에 엄히 눌러놓으시였다.

《안됩니다. 지금 전선에서는 한그람의 폭약, 한명의 폭파수도 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있는 후 홍명희는 보위상으로부터 그런

일에서 그렇게 쉽게 물러서느냐고, 《홍선생님은 너무 결단성이 없다.》는 편잔까지 받았다.

그때 그들사이에 의논이 되어 장군님을 모실 갯도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금 홍명희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벌개졌다.

(내가 참 불민한 사람이지.)

장군님을 모실 갯도공사를 장군님의 승낙을 받아 하겠다고 청을 드리다니...)

**김일성** 동지께서는 소리없이 들어서는 홍명희를 알아보시고 고개를 드시었다.

《아, 홍선생이 오셨군요. 어서 이쪽으로 와서 편히 앉으십시오.》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좁은 방을 가득 채우며 정답게 울리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신의 가까이 있는 가죽소파를 가리키시었다.

그이의 정력에 넘치신 모습이 이 방안의 모든것을 더욱 환하게 해주는것만 같다.

홍명희는 그이의 존안을 뵈옵게 되자 좁전의 송구스럽던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들고온 문건봉투에서 시장과 관련한 문건을 꺼내 **김일성** 동지께 올리었다.

《시장과 관련한 대책안입니다. 도시경영상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던중입니다. 이 자료를 가져다 보십시오. 방금전에 총참모부에서 보고하여왔습니다. 이걸 보면 시장문제를 빨리 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분후에 내 방에 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명희는 **김일성** 동지께서 내주시는 자료철을 정중히 받아들고 물러났다.

그이의 1분1초가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어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홍명희는 언제나 그이를 뵈오려 갈때면 한마디라도 군말이 될세라 단어 하나, 토 하나까지 생각해가지고 될수록 그이의 시간을 덜지 않으려고 마음을 쓴다.

지금도 홍명희는 자기가 들고온 문건에 시장과 관련한 전후사연이 다 집약되어있는만큼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그이의 집무실을 나섰다.

자기 방에 돌아온 홍명희는 책상앞에 나앉자 자료철부터 펼쳐놓았다.

문건에는 미국동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가 수하졸개들에게 내린 훈령이 방금전에 타자를 친듯 새콤한 타자잉크냄새를 풍기며 적혀져있었다.

거기에는 미제침략군이 서울, 인천계선까지 다시 쫓겨나간것과 관련하여 혼맹이가 빠진 맥아더의 비명과 그놈의 발광적인 폭언이 담겨져있었다.

두루 악에 반친 못된 소리가 많았다. 골자를 뽑아보면 공화국북반부 도시들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며 평양에서는 생명 그자체를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본토에서 비행대를 더 불러들이며 유럽과 지중해에 있는 함대를 조선반도의 해역에 끌어올것이라는것이다.

맥아더는 원체 호언장담과 야수적인 기질로 세상에 소문난 놈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악다구니질은 더더욱 귀등으로 스쳐보낼수 없을것 같다.

(이놈을 그저...)

홍명희는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다문다문 흰서리가 내볼린 장미가 푸르르 떨어졌다. 그래 지금까지 이 땅에 들부어놓은 죄불이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나, 이런 무지막지한 미치광이가 또 어디에 있었담.

(맥아더 이놈! 장마당에 폭탄을 던져 늙은이, 부녀자, 아이들을 날려버리는게 전쟁이나?!)

홍명희는 서울에서 두세번 봐두었던 그 흉물스럽던 맥아더의 상통을 눈앞에 세워놓고 분노에 차서 꾸짖었다.

문득 이 정세자료를 보시고 시장문제를 빨리 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던 **김일성** 동지의 말씀이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마음속 한 귀통이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제출한 문건이 **김일성** 동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기대에서였다.

홍명희는 30분이 지나자 **김일성** 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른손에 문건을 드시고 집무실을 무겁게 거니시다가 홍명희를 보자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이께서는 홍명희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그의 맞은편걸상에 앉으시며 물으시었다.

《자료를 다 보셨습니까?》

《예, 맥아더가 미쳐난것 같습니다. 심상 그렇게 미친짓을 할 놈입니다. 제 서울에 있을 때 두세번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그놈의 화상이 꼭 악인이였습니다.》

압록강까지 파죽지세로 몰아갈것처럼 으시대다가 사등뼈가 부러져 꺼꾸로 줄행랑을 놓게 됐은즉 원체 지략이 모자라는 놈이니 그런 지랄밖에 더 쓸게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군놈들이지요.》

《한족 저희들이 평양시와 각 도 인민위원회들에 곧 지시문을 펴구어 맥아더의 흥계를 알려주고 미리미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웁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인차 군사위원회와 내각의 공동결정을 받아 도와 시, 군들에 펴구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세의 변화에 맞게 제때에 일거리를 착상하고 박력있게 밀고나가는 홍명희의 일숨씨에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사실 홍명희는 전쟁전에도 그랬지만 전쟁속에서



도 추호의 동요나 당황함이 없이 복잡한 사업을 맡아가지고 30대의 젊은이들 못지 않게 왕성한 사업의욕과 전격력으로 자기의 직분을 원만하게 감당하여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전에는 정의의 필봉으로 강도일제와 맞섰고 해방후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신념을 꽃꽂이 지켜온 자산계급출신지식인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걸음걸음을 다심하게 보살펴오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차 시장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었다.

《참, 홍선생은 어제 낮에 시장을 돌아보셨는지요? 대낮에 시내를 돌아보는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래사람들이 만들어온 문건이 지나치게 편견적이지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 나가보았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리유가 있지만 장마당을 막아버리는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홍명희는 어쩐지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것을 느꼈다.

어찌너지저니 하여도 장마당을 통하여 사람들은 지금 최소한의 생활용품들을 구입하고있다. 홍명희는 무엇보다도 이제 가슴아프고 그저 쉽게 문건을 **김일성** 동지께 올릴수 없어 시장을 직접 밟아보았던것이다.

《웁습니다. 나라에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대주지 못하고있는 형편에서 시장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문에 문건작성도 늦어졌습니다. 그냥 문을 여는가, 문을 닫는가를 두고 관계일꾼들의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홍명희는 이렇게 피롭게 말을 이어가다가 울대를 움썹거리며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였다.

또다시 장미가 푸르르 떨었다. **김일성** 동지의 안광에서 미소가 지워지고 어두운 고뇌의 빛이 서려들고있음을 띄어보았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문건폐지들을 몇장 번지시며 그 무슨 피로운 상념에 골똘히 잠기시었다.

한동안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그러니 시장을 없애버리자는것이겠습니까?...》

그이의 입가에서 무겁게 흘러나오는 말쑤이 홍명희의 가슴을 쿵— 세차게 울렸다. 그이의 말쑤은 물음이라기보다 안타까움이고 고뇌의 분출이었다.

홍명희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피롭지만 솔직하게 대답을 올리었다.

《생각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돌아보고나서...》

홍명희는 이 순간 시장의 한산한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그래 더 말을 잊지 못한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사실인즉 폐허로 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민의 고통을 보고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고 말쑤드리고싶었으나 어쩐지 그 말이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속으로 잦아들었다. 그이께 너무 큰 아픔을 드리는것만 같았던것이다.

그때 부판이 방에 들어와 총참모장이 급히 만나주실것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판에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나서 어두운 안색을 지우지 못하신채 홍명희와의 담화를 끝내시었다.

《좀더 연구를 해봅시다. 이견 사실 심중한 문제입니다.》

홍명희는 실박한 등심으로 어쩐지 식은땀이 드르르 굴러내리는것을 느꼈다.

### 3

**김일성** 동지께서는 총참모장에게 긴급정황과 관련한 명령을 내리신 후 다시 홍명희가 가져왔던 문건을 펼치시었다.

문건의 매 문장과 문구들이 그냥 눈에 아프게 밝혀와 그이의 심중을 저저이 괴롭혔다.

전전선에서 재진격이 끝나고 공화국북반부의 전역에서 정권기관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그 기능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민생활에 대한 국가적인 장악과 통제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상품생산과 공급체계가 복구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상품을 사고팔고 할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시장마저 폐쇄하여버리면 인민들이 어데 가서 먹고 입고 쓰고 살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겠는가.

물론 언제인가는 수요에 의한 생산과 공급체계를 완성하고 여러가지 폐단을 가지고있는 시장을 폐쇄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장폐쇄가 시기상조다.

더구나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하나의 경제적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놈들은 비렬하게도 평화적주민들이 모여드는 시장에 발광적으로 폭탄을 퍼붓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놈들의 폭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것이다.

《초토화》—이것은 조선전쟁에서 미국놈들이 써먹는 야만적인 군사술어이다.

땅을 불로 태우고 끄슬려 이 땅의 생명체를 말살해버린다는 극악한 전쟁교리이다.

방금전에 맥아더의 광기어린 망발들까지 접하고보니 그이의 심중은 자못 무겁기 그지없으시었다.

조선전쟁에서 냉마꼴이 되어 최근에는 실각설까

지 돌고있는 맥아더가 야만적인 패전분풀이를 하려는게 틀림없다.

또다시 온 나라가 전례없는 폭격과 포격에 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홍명희가 시장을 폐쇄할데 대한 대책안을 들고온것이 우연하지 않다.

다시 문건을 훑어가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건의 한 조항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서방기자의 말을 인용한 그 대목을 다시 읽으시였다.

《재더미로 변한 도시에서 울리는 신음소리...》

**김일성**동지께서는 아까 이 문건을 처음 읽어보실 때처럼 저으기 흥분되시였다.

이미 이 불쾌한 문구를 지난해 가을에 서방통신에서 보셨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악랄한 무차별적 폭격행위에 경악하여 세상에 고발하고 분노를 터뜨린 그 기자의 심정은 이해하셨지만 그 표현의 다른 측면의 의미를 놓고서는 커다란 의문을 느끼시였다.

지금 이 문건에서 그 통신의 토막을 또다시 접하게 되자 그이께서는 이 문건의 기안자들에 대한 불만이 차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홍명희가 시장을 돌아보는 모습을 생각해보시였다.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장마당이면 의례히 풍기는 생활의 다양한 활기와 웃음이나 랑만을 찾아보지 못하였을것이다.

잔악무도한 원쑤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혈전을 벌려가는 나라에서 시장이 있다는것만 하여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시장에 내놓은 상품들이 눈에 차지 않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전쟁통에 상처입은 인민의 모습이 홍명희부수상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을것이다.

눈물도 많았을것이다. 위낙 민족에 대한 사랑을 천분으로 안고사는 로인이 인민이 당하는 참상을 어찌 랭담한 눈으로 보았을텐가. 그리고 그 처참한것을 강요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로 치를 떨었을것이다.

아마도 돌덩이처럼 굳어진 주먹으로 가슴을 텅텅 두드리며 침략의 도배들을 저주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정이 들고 민음이 가던 홍명희부수상에게서 자못 허전한 심정을 느끼시였다.

무엇일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현듯 1948년에 홍명희부수상이 창작한 력작인 《림격정》을 다시 보시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서울에서 민주독립당의 당수로서 활약하던 홍명희는 그해 4월에 열린 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한 후 **김일성**동지를 찾아와서 자기는 이제부터 김장군의 휘하에서 장군님의 정사를 받들어 여생을 보내고싶노라고 청원을 하였다.

해방전부터 민족재생의 불바다를 진두에서 헤쳐나가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구세주로 믿어마지 않아오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서울에서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를 발기하고 그 위원장으로 나선 홍명희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단이였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의 청원을 민족에 대한 의로운 헌신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였다.

사실 세도가의 장손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홍명희가 오래전부터 필봉으로 선한것을 옹호하고 추하고 악한것을 미워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근로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리념과 제도와 운명을 같이한다는것은 보통의 상식과 지성으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볼수록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랑심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고결한 정신과 강직하면서도 도량이 있고 지성의 세계가 풍만한 로인을 홍선생이라 정을 담아 불러주시며 그지없이 사랑하고 존경하시였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초대내각의 중임을 맡기지 않자 홍명희에 대한 리해를 보다 깊이 하고싶으시였다. 홍명희에게 예정되는 직위에 대하여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출신성분으로 보나 작가적인 직업으로 보아 정권기관의 핵심적인 자리에는 적당치 않다는것이었다.

그래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으로 분초를 쪼개가시는 다망하신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시며 홍명희가 창작한 방대한 규모의 장편력사소설인 《림격정》을 다시 정독하시였다.

작품이자 작가란 말이 있다. 과연 그이께서는 《림격정》을 읽으시면서 홍명희의 지성의 폭과 인격의 높이며 랑심의 진가를 더 깊이 알게 되시였다.

호방하면서도 향토색이 짙은 인물군상들과 묘사를 더듬으시면서 자기 조국의 모든것을 사랑하고 내세우고저 애쓰는 홍명희의 무한한 애국의 세계에 심취되시였다.

그리고 소설의 페이지들에 흘러넘치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인간들에 대한 끝없는 동정과 애착심이 눈물겹게 고마우시였으며 권세가들과 부자놈들에 대한 사무친 분노에 승고한 경의를 보내시였다.

유명한 랑반대가의 자손이 자기 계급에 침을 뱉고 나선 그 의롭고 기개 드높은 뜻을 그이께서는 중히 여기시였다. 그리고 작품전반에서 홍명희의 작가적무게뿐아니라 예민하고도 비상한 정치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력사소설에 반영된 홍명희의 뜨거운 애국심과 품격에 맞는 직무를 맡겨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초대내각의 부수상의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홍명희는 **김일성**동지의 그 높은 뜻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껏 맡겨진 직책을 헌신적으로 감

당하여왔다.

그러나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금 당시 《림격정》을 보시면서 옥에 티처럼 느꼈던 허우룩한 심정이 다시 되살아나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판을 불러 말씀하시였다.

《평양시에 대한 시찰을 앞당겨야겠소. 오늘 오후 3시경에 지정된 인원들을 대기시키시오.》

《알았습니다.》

부판이 절도있게 경례를 하고 방에서 나가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시 문건을 들여다보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 4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시내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시장에 들어서신것은 눈썹이 떨어지는 어슬어슬해질무렵이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장군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따라서는 일군들을 다 내각청사로 돌려보내시고 참사와 부관만 데리고 시장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 시장입구에 들어서는데 언제 알고 여기 와서 대기하고있었는지 홍명희가 털모자에 숨겨고리차림을 하고 불쑥 길을 막아나섰다.

여러 시간 기다리고있었던지 로인의 코수염에 허연 성애가 내불려있고 어깨와 모자우에 수북이 눈이 실려있다.

그는 자기탓으로 장군님께서 이 길에 나서시였을것이라 뼈저린 가책을 안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자기 예감이 틀리지 않은것이 못내 다행스러웠다.

저 시장안에 장군님께서 들어서시게 해서는 안될것 같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온갖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곳이니 이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려는지 누가 알랴.

어슬넙인데다가 눈발이 희끗희끗 날려 가까이에 서도 상대를 가려볼수 없는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각계층 사람들이 휘휘 물려다니는 시장이라 저르기 그이의 안전이 넘쳐되였다.

《장군님, 여긴 너무 혼잡스러워 장군님께서 들리실 곳이 못됩니다.》

홍명희는 소란스럽게 떠들썩거리며 주위에서 바빠 오가는 장군들의 주의를 끌세라 나직이 아뢰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인의 맑은 눈에 비껴든 녀령의 빛을 마주보시다가 가볍게 웃으시였다.

《허허허... 홍선생이 그런 차림으로 나타난것이 이상하다 했는데 걱정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아마 예서 여러 시간을 보내신것 같은데 어서 돌아가십시오.》

《저야 뭐... 저는 원래 이쯤한 추위에는 꺼떡하

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어서...》

홍명희가 또 여러말로 그이의 걸음을 돌려세우려고 하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홍명희의 차거운 손을 꼭 감싸잡으시였다.

《좋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나왔으니 홍선생도 나와 함께 시장구경을 다시 해봅시다.

보십시오. 이 전쟁란리통에도 빠졌이 간판까지 붙여놓았군요. 장마당사람들이 여간 배짱이 아닌것 같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장입구에 크게 써붙여놓은 간판을 가리키시며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홍명희도 그 간판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어제 자기가 돌아볼 때는 없었든지 아니면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것 같다.

시키던 먹을 왕복에 들쭉 묻혀 힘있게 써놓은 글자밑에는 제법 벼이삭과 마치를 그려놓아 찾아드는 장군들을 반겨주는듯싶다. 보는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게 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벌써 시장안으로 걸음을 옮기고계시였다.

홍명희도 어쩔수없이 그이를 따라 시장으로 들어섰다.

**김일성** 동지께서 맨처음 들리신 곳은 철물가게였다.

첫눈에 보면 50줄에 들어선것 같은 철물가게 주인이 날을 세운 식칼이며 어디서 구해들었는지 번쩍거리는 알루미늄바게뜨며 남비그릇이며 여러가지 철제품들을 나무판대기우에 펴놓고 손님들을 부르고있었다.

《바게뜨요! 식칼을 사시오!》

해종일 소리치며 있었는지 목소리가 김빠진듯싶었다.

여러명의 장군들이 그 소리에 이끌려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흥정을 붙이며 왁자지껄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이께서는 한무리의 장군들이 물건을 사들고 떠나가자 가게에 다가서시였다.

《허허... 다 깨여지고 부서진 도시에서 이렇게 팔고살 물건이 있다는게 다행입니다. 이보시우 주인님, 그래 이런 물건들을 어디서 받아옵니까?》

《원, 받아오다니요. 한주일에 3~4일은 여기저기를 돌아가며 꾸겨박힌 미국놈비행기도 찾아내고 그놈들이 도망치며 쉼버린 철물들도 수집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녹을 벗기고 좀 손질을 하면 꽤 쓸만 한 제품이 됩니다.

재더미속에 묻혀 녹썴어버리게 해서야 안되지요. 미국놈 폭격에 집값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요.

이제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귀물이우다.》

가게주인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장한듯이 엉너리

를 쳤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그래 오늘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뭐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장세를 바치고나면 손에 쥐는건 몇푼 안되지요.》

《집의 식솔은 몇입니까?》

《하하... 이 손님 봐라. 그래 이 시장을 없애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놓자고 오셨소?... 그래도 이 칼이 있어야 국거리를 썰고 이런 쭉그러진 바깥쪽이라도 있어야 물을 길어다 먹을게 아니요.

우리 식구는 자그만치 열둘이지요. 어머니와 아들딸 셋에다가 부모잃은 조카에 셋에 옆집에 넷이지요.》

《열두식구라... 주인님의 세간살이가 험치 않겠습니까, 옆집애들까지 말아주고... 참 좋은 일입니다. ... 그러니... 장세가 너무 높다는거지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옆집아이들까지 말아 키운다는 소리에 크게 감심이 되시여 다심하신 어조로 물으시었다.

가게주인은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에서 그 어떤 범상치 않은분을 모시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어스름속에서 그이의 모습을 찬찬히 우러러보다가 그만에야 눈을 습벅거리며 열차게 부르짖었다.

《아니... 우리의... 장군님께서...》

그는 이렇게 탄성을 올리었다. 그러나 혀가 얼어붙은듯 그이를 우러러 입을 크게 벌린채 눈물을 쏟아놓았다.

그때 **김일성** 동지의 뒤에서 아니아니한 심정으로 주위를 살피고있던 홍명희가 한걸음 나섰다. 엄하게 눈짓을 하고 목소리를 죽여가며 위엄있게 주의를 주었다.

《쉴, 떠들지 마시오.》

그제야 철물가게주인도 홍명희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입을 두손으로 가리우며 어깨를 떨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크나큰 걱정과 휩싸여있는 철물가게주인의 어깨를 잡아주시며 험한 목소리로 치하를 하시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주인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물건이 재더미속에 녹슬어버리게 해선 안되지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조카애들도 키우고 옆집 아이들도 키우고있다니 주인님은 과시 훌륭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치하를 받은 주인은 너무도 황송스러워 허리를 깊이 꺾어 인사를 드리었다.

장마당시찰은 계속되었다.

홍명희도 부관도 날이 어두워지고 야간폭격기들이 날아들수도 있으니 이젠 자리를 뜨자고 여러번 청을 드렸으나 그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었다.

《일없습니다. 벌써 돌아봤어야 했는데 걸음

이 늦었습니다. 마저 돌아봅시다.》

문득 **김일성** 동지께서는 《평양송어》라는 멋지게 갈겨쓴 붓글씨에 물에서 뛰어오르는 세마리의 송어를 그려놓은 간판을 띄어보시자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었다.

《대동강송어라...》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뭇 밝은 어조로 뇌이시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홍명희는 어제 보아두었던 광경이어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왔다.

그가 이 시장에서 제일 경멸하고 눈을 흘겼던 곳이 바로 이곳 물고기집이었던것이다.

...

《그래 아바이도 전선에서 손자가 왔소? 송어를 사실라우, 잉어, 붕어를 사실려우?》

이 전쟁관리판에도 대동강물고기는 다 있으니 어서 말만 떼시우.》

홍명희가 어제 평양송어집에 들어섰을 때 첫눈에 지체가 있는 어른이라고 면바로 맞았던 주인은 이렇게 살진 볼을 실룩거리며 익살스럽게 지분거렸다.

원체 불의를 미워하고 남의 등을 쳐먹는 파렴치한짓에는 타협이 없는 로작가의 정의로운 노성이 가게문어귀에서 벼락같이 터졌다.

《이보게, 송어집! 부끄럽지 않는가. 남들은 전선에서 피흘리고 다리를 복구하고 폭탄구멍이를 메꾸느라 허기진 배를 조여매고 분투를 하는데 송어요, 잉어요 무슨 잡스러운 소리인고!...》

홍명희는 이렇게 되게 으름장을 놓고는 문턱을 넘다말고 돌아섰다.

하지만 주인의 반죽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등뒤로 날아든 대답이라는게 건드러지기 짝이 없었다.

《원참 령감님두, 다들 폭탄구멍이만 메꾸면 평양성사람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물고기국 한사발 먹어볼상실소? 전선에서 피흘리다가 돌아오는 아들딸들에게 송어 한토막 대접해보내자면 눈을 빨아도 송어집을 찾아야겠지요?》

홍명희는 주인의 능청에 치미는 역기를 누르며 시장을 떠났었다.

지금 홍명희는 이제 장군님께서 부탁치시게 될 이러루한 광경이 떠오르자 온몸에 비지땀이 내뿜었다.

이제 또 송어집주인이 무엄하게도 장군님께 뭐라고 횡설수설할는지 속이 요골요골해지기만 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발 앞서서 가게에 들어섰다.

다행으로 집안은 어둠이 서린 바깥보다도 더 어스끄레하여 사람을 가려볼수가 없었다.

차광막을 드리우고 어유등잔불을 켜놓았는데 마른 물고기를 매달아놓은 벽쪽을 희뵘하게 비치고 있었다.

《어험—》

홍명희는 주인의 눈길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크게 마른기침소리를 내며 주인앞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주인이 등잔불가까이에 나선 홍명희를 흘끔 쳐다보다가 어제 낮에 불쾌한 인상을 남겨두고 사라진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쫄한 일은 여반장이라는듯 이내 반색을 하며 대문이를 드러내고 병긋거렸다.

그리고는 구변 좋게 제잡담 인사를 건넸었다.

《그것 보시우, 평감님. 제 말 그런데 없지요? 평감님댁에 귀한 손(손님)이 들어선게 분명한즉 어데 가서 물고기 한마리 구하겠수?

자, 어서 부르시우. 주머니가 뽁뽁 비였으면 젠장 외상으로 가져가슈. 아무튼 물고기국 대접해야 할 손이 왔다면야 이 송어집신세를 지는 수밖에.

혹시 아드님이 전선에서 온건 아니우? 영웅메달을 달고왔다면 송어 몇마리쯤은 덤으로 줄수 있수다. 고향도시에 온 아드님께 이 송어집주인이 한턱 쓰겠수다.

대동강에서 물장구치며 자라난 평양사나이들에게는 제 고향 송어국 한사발이 진수성찬보다 나을거워다.》

《어힘—》

홍명희는 가게주인의 푸점좋은 너스레에 이마살을 잔뜩 찌프리고있다가 김일성동지께서 문턱을 넘으시자 또 크게 마른기침소리를 냈다.

《허허… 거참, 주인의 싸구려소리가 송어국냄새처럼 구수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인이 홍명희를 대상하여 천연스럽게 늘어놓는 입담에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책에서는 걸죽한 상소리도 거침없이 엮어내는 홍명희가 가게집주인이 너설거리는 수작에는 똑해져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것이 우습기도 하시었다.

가게매대에는 대동강에서 방금 건져온듯싶은 여러가지 선도가 좋은 물고기들이 있었다.

《아직 얼음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 대동강물고기가 이렇게 매대에 오르게 희한합니다. 대동강송어는 어떻게 건져옵니까?》

그이께서는 홍명희의 난처한 처지를 헤아리시어 소탈한 어조로 화제를 바꾸시었다.

《하, 겨울에 송어를 잡아내는 비방이 있지요. 이제 가게문을 닫고서는 도끼를 들고 대동강에 나갑니다.

얼음구멍을 여라문개 만들고 거기다가 송어다리그물을 놓습니다.》

《송어다리그물이요?》

《예, 얼음구멍안에 말짱을 세우고 통그물을 달아서 얼음밑에 들이킵니다.

통그물안에는 개묵이나 번데기가루를 진흙에 반죽해서 넣어둡니다.

그래놓고는 집에 들어와 눈을 불이다가 새벽녘에 나가서 건집니다. 통그물안엔 송어도 걸려들고 잉어, 붕어, 누치, 쏘가리도 바글거리지요.》

가게주인은 손세까지 써가며 신명이 나서 대답을 드렸다.

《예, 그거 참 신통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얼음구멍에서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가게일을 보자니 험치 않겠습니까.》

《예, 좀 고달프기야 하지요. 그래 우리 마누라가 가게를 맡아보겠다는걸 제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도나도 한몫을 하는데 그 사람두 제 몫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대동강송어라면 자고로 평양의 명물로서 물고기중에서도 상줄에 가지요.

전쟁이라고 해서 평양성사람들이 송어맛을 잃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뭇이 다 바른 시절인데 대동강을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한마리라도 더 건져다가 사람들의 밥상에 올려주는게 제 소임이지요.》

가게주인은 승이 나서 떠들다가 물었다.

《그래 손도 송어국 맛보시려구 오셨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저 구경을 하려고 들렀습니다.

주인장의 말이 옳습니다. 전쟁이라 해서 평양사람들이 대동강송어맛을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되지요. 참 장한 일을 하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심으로 그를 치하하시었다. 밟고 선 땅이 한결 든든하게 느껴지시었다. 가게주인은 뜻하지 않은 치하의 말씀을 받아 입귀가 벅글서해졌다.

《원, 제가 무슨 장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 전쟁에 모두들 두몫, 세몫 하는데 이 외팔이는 그저 절반몫도 못하지요.》

주인은 김일성동지의 치하에서 그 무슨 가책을 느꼈던지 이렇게 목선 소리를 냈다.

김일성동지의 안색이 어두워지시었다. 아까부터 왼쪽손으로만 손세를 쓰는것이 이상스러웠는데 오른팔은 분명 의수였다.

《팔은 어디서 상했습니까?》

《왜놈들이 저 미림벌에 평양사람들을 내몰아 비행장공사를 할 때 거기서 잃었습니다. 그뒤로 이일저일 두루 걸쳐보다가 마지막으로 몸을 불린 곳이 이 송어집이옵시다.》

《음, 그랬군요.… 그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전쟁판이라 물고기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품은 크게 들어도 제 오륙만 부지런히 놀리면 벌이가 꽤찮은 일입니다.》

《어힘—》

홍명희가 또다시 마른기침을 크게 하였다.

가게주인은 그 기침소리에 주눅이 들었던지 노래가락같은 달변이 끝이 없을것 같던 입을 꼭 다물었다가 짹막히 대답을 드렸다.

《한달에 3 000원은 떨어집니다.》

《3 000원?... 대단한 수입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놀라운 빛을 담으시었다. 지금 국수 한그릇에 5원을 하고있는 때인데 3 000원 이면 사실 약차한 돈이다.

《예,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중에서 시장세 금으로 500원정도 내면 2 500원이 남는데 제가 돈 모아 땅마지기를 마련하겠습니까, 야장간이라도 차려놓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애비를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예... 그러니 자식들이 군대에 나가있겠습니까?》

《그럼요. 올해초에 전선에 나간 막내딸까지 자그만치 여섯이 됩니다.》

《여섯명... 대단합니다!》

《그중에서 셋은 소식이 없더니 종시 올해초부터 편이어...》

순간 가게 주인의 구변종된 목소리가 쑥 목안에 기여들고 그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어유등잔 불에 반짝거리었다.

《음, 그랬군요. 원썬놈들이 우리의 귀한 아들딸들을 많이도 빼앗아갔습니다.

주인님, 조국은 전쟁에서 쓰러진 자기 아들딸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누라에게 엄하게 이릅니다. 집에서는 일절 물고기냄새를 잊어라, 하루 한끼도 쌀밥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모은 돈을 다달이 조국보위(조국보위후원회)에 바쳐라, 그게 우리 아들딸들이 쓰는 총알이 되고 수류탄이 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조국보위공채가 아마 공채만큼 될거웨다. 제가 뭐 전쟁이 끝나면 그걸 찾자고 채권증서를 전사하는줄 아시오? 내 뒤날 우리 아들한테 찾아가면 할소리가 있어야지요.

〈자, 봐라. 너희들이 쓴 총알이 거저 만들어진게 아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커다란 걱정을 느끼시며 한걸음 나서시었다.

《잘 전사하십시오. 전사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식들에게도 자랑하십시오.》

그이께서는 이 전쟁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며 전쟁승리를 위해 일떠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사들과 인민들을 그려보시었다.

송어집주인도 바로 간고분투하는 이 나라 인민의 성스러운 대오에서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제 몫을 나름으로 다하고있지 않는가. 이 전쟁에서도 우리 인민은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역세게가꾸어가고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뜨겁게 달아오른 가슴으로 물고기 가게를 나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둠이 서린 시장을 둘러보시었다. 소란스럽던 시장은 어둠과 함께 잤아든것 같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판의 뒤를 따라 시장을 꿰질러 출구를 향하여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시장을 벗어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들려온 너

인의 가냘픈 소리에 걸음을 세우시었다.

《떡을 사시오. 따끈따끈하게 구운 떡이요. 이제 몇작 남지 않았으니 얼른 사시라구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숙한 나이가 헤아려지는 그 소리에 이끌리신듯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부판이 또 뭐라고 말씀을 올렸으나 그이께서는 손을 내저으시었다.

소리임자의 등뒤에서 걸음을 멈추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절편을 노릿노릿하게 굽다가는 고개를 들고 손님들을 부르는 로인을 따듯한 눈길로 굽어보시었다.

낡은 솜저고리를 형겔끈으로 질끈 동인 로인은 별에 감실감실하게 된 손으로 기름기를 낸 지집판에 떡을 올려놓고는 솜씨있게 뒤빈진다. 참기름에 떡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여간 풍미롭지 않다.

가다가다 주름이 잡힌 로인의 주글주글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었다.

그이께서는 로인의 옆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며 퍼그나 갈리신 어조로 물으시었다.

《할머님, 어두워지는데 집에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집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로인은 노랑게 구워진 떡을 뒤집으며 근심스럽게 그이의 말씀을 받았다.

《헌데 오늘은 마수길이부터 좋지 않더니 날씨가 지절지절해서 손님들이 끊지 않수다.》

로인은 고개를 들더니 사위가 어두워지는것을 근심스레 둘러보며 짜증이 난 어조로 대답하였다.

《집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젊은이가 있으면 장마당에 앉히겠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통명스럽게 대꾸하는 로인의 데설곳은 심정이 헤아려지지었다.

《둘째며늘애가 복구대에 나가고 맏며늘애가 여기 와서 떡을 구워 집안을 먹여살려왔지요. 헌데 둘째가 지난해 가을에 대동교복구장에 나갔다가 미군놈의 기총탄에 잘못됐다우.

설상가상이라고 올해초에는 저 급살맛을 미군놈의 폭격에 전선원호에 나갔던 맏며늘애까지 떼웠수다.》

로인의 목소리가 비분에 떨며 얼어든 대기를 짙짙 울리는듯싶었다.

《아들들은 다 전선에 나갔습니까?》

《그러문요. 전쟁이 일어나자 그 다음날로 김장군님령이 내렸는데 얼른 잠깐 미군놈들을 몰아내고 돌아오겠다면서 떠나갔지요. 우리 셋째가 지난달에 두 형수가 다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장같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미군놈들이 조선사람씨를 말리우자고 악을 쓰는데 어머니, 눈물을 거두시고 조카애들을 잘 키워달라구했습니다. 김장군백성들은 불속에서도 무력무력 번성해야 한다나요.

그 녀석이라고 웬걸 울지 않았겠습니까. 편지를 보니 눈물을 똑- 똑 떨어지며 썼다는게 험등하더군요.

헌데 막내가 그 애마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무슨 기습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우. 전번주일에 우리 가루개 동서기장이 영웅메달만 들고왔습니다.

내 막내가 말대로 울지 않지요. 미국놈들 좋아하라고 울고있겠수.

그래 내 이렇게 허리를 질끈 동지고 나섰다우. 집안에 울망줄망한 손자들이 한구들 있는데 내가 늣었다고 집구석에 앉아있게 됐수?》

《예, 그렇군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슴에서 넘쳐오르는 걱정을 가카스로 참으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년세 많으신 할머니님이 이렇게 늣도록 앉아계십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냥 속안이 달아오르시였다.

《몇작 안 드시겠소?》

기대가 어린 물음에 그이께서는 일순 당황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으시였던것이다.

마침 홍명희가 바쁜 대목을 막아나섰다.

《할머니, 지집판에 있는 떡을 다 주시오.》

로인은 홍명희에게 접시를 내놓더니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절편을 지집판에서 옮겨주고 나무저가락 세조를 놓아주었다.

홍명희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았다.

《고맙쎄다.》

로인은 돈을 받아들고 거스름을 내줄양으로 품 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다.

《할머니, 됐습니다. 다 건사했다가 손자들의 찬거리를 사들고가시오.》

홍명희가 난처해서 뒤걸음을 하며 손을 내둘렀다.

《히, 그 량반 돈냥이나 건사한것 같은데 떡이나 구워판다고 이 늣은걸 허술히 보지 마소. 난 남의 공짜돈을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예?》

로인은 풍채좋은 홍명희가 두말을 하지 못하게 준절하게 꼭 박아놓고는 기어이 잔돈을 꺼내 회계를 맞추었다. 홍명희는 받을수도 안 받을수도 없어 얼굴이 벌겋게 되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여 로인의 결국한 속을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눈짓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커다란 감동과 고마움으로 목이 꺾 메여지시였다.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심히 들을수 없지 않는가!

(아,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꺼지지도 않는 우리의 어머니들!)

그이께서는 슬픔을 지리뵈고 강인히 웃는 로인 앞에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고싶으시였다.

그리고 잔돈 얼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를 할머니에게 드리고싶노라고, 이 땅의 가장 귀한것을 꼭 할머니께 드리게 될것이라고 로인에게 엄숙히 확약을 하고싶으시였다.

홍명희가 접시에 있는 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지 또 속을 썩이는데 **김일성** 동지께서 어느새 그의 난처한 속생각을 짐작하시고 부판에게 이르시였다.

《가져가서 저녁상에 내놓도록 하오.》

부판이 얼른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떡을 받았다.

로인은 접시에 있는 절편이 처리되는것을 보고 서야 마음을 놓은듯 다시 지집판을 참기름을 묻힌 솔잎으로 쓱쓱 문지르고는 합지박에서 절편을 꺼내 피운다.

그리고는 풍로에 숯 몇덩이를 더 집어넣은 다음 바람문을 열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빨리들어가자 풍로에서 새파란 불이 이글거리고 지집판에서 뽕질뽕질 소리가 귀맛 좋게 났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쩐지 로인의 곁에서 쉽게 일어설수가 없으시였다.

강직하고도 이악스럽고 깨끗한 로인에게 함뻍 정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시였으나 지금 이 시각에는 그 방도가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로인님댁은 어데 있습니까?》

《에서 멀지 않수다. 가루개 뒤꼍짜기에 있는 토굴촌에 있지요.》

《그런데 손자들은 왜 끼고있습니까? 얼마전에 나라에서 부모없는 애들을 맡아키운다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늣으신 몸으로 애들의 뒤바라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을치고 부모없는 애들이 한둘인줄 아시우? 나두 이 짓거리가 번한것이 못돼서 애들을 어디엔가 있다는 학원이라는 곳에 보낼 생각두 했수다. 하지만 동서기장이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했수다.》

지난달에 우리 장군님께서 어느 마을엔가 들리시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런 나라법을 내오게 했다나요. 그런즉 우리 애들까지 보내 부담을 드려서야 내가 무슨 장군님백성이겠소. 이 늣은게 오록이 성해가지고 그렇게 못하지요. 자, 손들은 이제 자리를 내시우. 이걸 마저 팔아야 애들의 찬거리를 마련할수 있다우.》

로인이 폐사로운 어조로 말했으나 홍명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김일성** 동지께서도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나시였다. 지금은 어떻게 자리를 빨리 피해주는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더구나 로인이 자기가 지금 어떤이들을 상대하고있는가를 알게 되면 오늘 로인의 처지가 웅



색하게 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복받치는 걱정을 애써 다잡으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할머니… 조금만 참고 견디여주십시오. 이 고생살이를 옛말로 외울 때가 꼭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시다. 부디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가 이기고 전쟁전보다 더 잘사는 그날을 꼭 보십시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목이 메시여 힘들게 작별의 말씀을 이으시였다.

로인이 술잎בות 든채 **김일성** 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인사를 올렸다.

《고맙습시다. 나두 오래오래 살구싶습시다.

좋은 날이 오구말구요. 우리 장군님 계신데 그런 날이 오구말구요. 우리 막내 말대로 미군놈들이 조선사람씨를 말리려구 잡도릴 하지만 어렵두 없습다.

김장군의 백성들은 폭탄속에서도 무럭무럭 번성할거웨다. 어서들 가보시우, 보아하니 중한 일 보시는분들 같은데.》

로인은 이렇게 저저이 인사를 올리고나서 다시 어둠속을 휘돌러보며 손님들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인의 목소리가 그냥 발목을 잡고 가슴에 에여드는듯싶으시여 힘들게 승용차가 대기하고있는 가루개등마루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에 오르시면서도 그 로인앞에서 이렇게 떠나는것이 더없이 죄스럽고 미안하기 그지없으시였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이 자리에서 도울것이 없을까 하여 다시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누구인가를 눈으로 찾으시였다.

부관이 눈썰미있게 그이앞으로 뛰어와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나온게 없소?》

《돈을 말입니까?!… 저…》

부관은 분주스럽게 주머니들을 헤집다가 돈이 없는게 자기 불찰이기라도 한듯 뒤덜미에 손이 올라갔다.

**김일성** 동지께서 아쉽고도 허전한 생각에 길게 한숨을 내그으시는데 홍명희가 열린 안주머니를 털어냈다.

《여기 5백원에다가…》

홍명희는 안주머니에서 꺼낸 5백원에다가 방금전에 로인이 노염을 쓰며 한사코 돌려준 잔돈까지 없어 **김일성** 동지께 드리였다.

돈을 받으신 그이의 안색이 활짝 밝아지시였다.

《하, 다행입니다. 장마당인사란 물건을 사주는 거라고 했는데 하마터면 남산골쟁님이 될번 했습니다. 내가 오늘 선생님의 도움을 요긴할 때마다 받습니다.

부관동무, 참사동무와 함께 이 돈을 가지고가서 저 할머니가 오늘 팔지 못한 떡을 다 사가지고 돌아오오. 빨리 돌아가서 손자들에게 저녁상을 차려

주어야 될게 아니요.

그리고 동무가 재간껏 이 돈을 할머니께 다 드리고 돌아오시오. 할머니가 떡값이상은 받자고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돈은 절대로 공짜로 드리는게 아니라구 잘 설복해보오. 험치 않은 임무요.》

《알았습시다, 최고사령관동지!》

부관이 힘차게 대답을 드리고는 운전사가 내미는 그릇을 들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부관이 참사와 같이 어둠속에 사라지는것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소 마음이 가벼워지신듯 돌아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전사를 부르시였다.

《난 걸어가겠으니 부관동무가 떡을 사오면 태워가지고 오시오. 로인이 그 떡을 다 굶자면 시간이 좀 걸릴거요. 홍선생님도 차에 들어가계시다가 함께 오도록 하십시오.》

《최고사령관동지…》 운전사가 급해맞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이께서는 엄하게 눌러놓으시였다.

《아, 그렇게 하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홍명희가 황황히 그이를 따라나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자주 시장쪽을 돌아보시였다.

한시름은 던듯싶었는데 시장에서 멀어지니 그냥 속이 빠근해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히는 소리를 들으시며 방금전에 만났던 로인과 가게주인들을 그려보시였다.

내각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내각이 가까와올수록 더 천천히, 더 무겁게 걸음을 옮기고계시였다.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저 고개를 높이 드시고 눈 깔린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이의 안광이 어둠속에서도 황황 불타오르고있었다.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지금 사랑과 증오로 압축된 두 극단의 감정이 쇠물처럼 끓고있었다.

평시에는 비단결같다가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꺼이 자기를 바쳐 억척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민, 우리 민족… 저 슬기로운 인민의 총직한 아들로 평생을 살아가실 신성한 맹약이 다시금 그이의 가슴을 격동시키고있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고싶은 열화같은 소원이 그대로 사랑의 불길이 되여 그이의 가슴속에 활활 타번지고있었다.

전쟁이라 하지만 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줄수 있을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오신 문제들이 드릴수 없는 결심으로 굳혀지는것이였다.

무너졌던 학교를 다시 세우고 무료로 공부시키는 법을 내오자.

로인들 그리고 전상자들을 우대하는 법규도 내오자.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송가문학과 백두산전설에서부터 시작되였다. 혁명 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해방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나 〈백두산〉은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동지들과 인민의 절절한 소원, 시인의 가슴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충동과 열망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오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문학은 확고히 수령의 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하여 힘있게 건설되고있다.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러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인민들이 반토굴집에서 쉬이 나오도록 평양시복구건설준비도 미리미리 끝내 놓자, 현대적인 집들을 지어 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자.

무상으로 병을 치료해주는 법도 나오자. 그리고 또...

그이의 심중에는 사랑하는 인민을 위한 무수한 결정과 법령이 내려치고있었다.

그이의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울리는것은 사랑의 노래만이 아니였다.

지금 그이의 눈앞에서는 원썩격멸의 번개가 번쩍이고있었다.

저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한시바삐 전쟁승리를 앞당겨오리라!

원썩을 철저히 격멸하자,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무자비하게 쳐갈기자, 비행기들부터 죽쳐야 한다, 전선과 후방의 이르는 곳마다 비행기 사냥군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적비행기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자.

저격수들의 명중화력으로 발악하는 원썩을 섬멸하자.

기습전, 습격전을 더 적극 벌려 원썩들이 밤에도 낮에도 벌벌 떨게 하자....

이제 얼마후이면 전선으로, 참호로 전달될 원썩격멸의 명령이 지금 그이의 뇌리에서 되성처럼 울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발목이 아직도 열기설기 그대로 암반을 뺨치고있는 갯도입구에 이르시여서야 발길을 멈추고 홍명희에게로 돌아서시였다.

어둠속에서도 그이의 모습에 유난한 채광이 비친듯싶었다.

그이께서는 한결 정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홍선생님, 오늘 나때문에 한지에서 수고를 하

셨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몸도 녹이고 휴식을 하십시오.》

홍명희는 그이께서 쾌사스러운 어조로 다심하게 인사말씀을 하시자 그이를 모시고 시장을 돌아보면서 받아안은 커다란 감동과 충격이 다시금 가슴 한밀로부터 옥 끓어올랐다.

홍명희는 그게 딱히 무엇인지 이 순간에는 짚어낼수 없었다.

그저 자기라는 인간의 키가 시장에서 보낸 몇시간동안 무척 커졌다는 생각만 하였다.

그래 홍명희는 그이의 자애에 넘친 안광을 우러러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싶어졌다.

《장군님, 전 지금 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워웁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울는지... 그들은 모두 내 나라의 훌륭한 주인들입니다.》

홍명희는 시장에서 받아안은 커다란 감동을 이렇게밖에 표현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운듯 얼굴을 붉혔다.

《예, 선생님말씀이 지당합니다. 내 나라의 장한 주인들이지요!

훌륭한 인민입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마땅히 위대하다는 말로 불리워져야 합니다! 달리는 부를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고는 갯도를 따라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인민!》

홍명희는 그 어떤 비상한 선언처럼 귀전을 치는 **김일성**동지의 숭엄한 말씀을 입속으로 되뇌이였다.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선언속에 담겨진 그이의 심원한 사상을 깊이 새기고싶어 우뚝 굳어진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수령님은 조국을 찾아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언제나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김 정 일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삶도 지켜주시었고 창작적나래도 펼쳐주시었으며 행복도 영광도 다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은 그 위대한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 먼저 간 작가들의 심장의 웨침과 더불어 4월의 이 아침 더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오고있다.

## 수기목록

###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는 지금 비록 몸은 늙었지만 젊었을 때나 다름없는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창작에 종사하고있다. 이것은 이 미약하고 년로한 작가를 친어버이 심정으로 돌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바다같은 사랑과 은덕이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한다. 만일 내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진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대해 더욱 절절히 느끼게 되는것이 나의 심정이다.

나는 젊어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진리도 몰랐으며 사람의 운명은 마치 그 무슨 불가항력의 힘에 의하여 좌우되는줄 알고 행운이 차레지기를 기다리였다. 해방전 50평생을 허망하게 살아오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서야 비로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것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시고 나를 혁명하는 인간으로, 당의 작가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내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만물을 소생시키고 키워내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나를 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은혜로운 품! 한생을 돌이켜보는 나의 마음속에는 죽

어서도 정녕 잊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 어린 친근한 영상만이 하늘 가득, 가슴가득 안겨온다.

리 기 영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긴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를 놓고 열, 백을 헤아릴수 있다는것을 뜻하는 말일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 이것은 비단 나 한사람에게 돌려주신 사랑이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 작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는것이다.

그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도 같은 존재였던 내가 혁명문학을 하는 작가로 성장할수 있었다.

내가 우리 혁명력사를 잘못 반영한 작품을 써서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렸을 때에조차 작가와 작품을 아껴야 한다고 하시며 저의 운명을 구원해주신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때로는 엄하게 비판도 해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이른바 순수문학정신의 몽롱한 신기루속에서 헤매이던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손잡아 이끄시여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

태양의 빛과 열과도 같은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의 물방울로 크나큰 바다를 만들어 내시는 수령님!

인류력사의 갈피를 헤치고 또 헤친들 이렇듯 위대한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지닌 수령을 어디서 찾아볼수 있으랴!

## 전 세 봉

사람들은 아름답게 핀 한송이 꽃을 볼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은 흔히 느끼기 쉬우나 그 꽃이 어떻게 되어 그토록 아름답게 필수 있었는가에 대하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름다운 꽃이 피자면 오래동안 따뜻한 해빛을 받아야 하며 깊은 땅속에서 맑은 물과 갖가지 영양소들을 끊임없이 빨아올려야 한다. 철이 오면 저절로 피어나는것 같은 한떨기 꽃도 그렇거늘 한 인간이, 한 작가가 자라온 길이 어찌 단순하며 순탄할수 있으랴.

인간으로서 또 작가로서 나의 성장과정에는 나를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거듭거듭 타이러 깨우쳐주시고 때로는 엄한 질책도 해주시며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지난날 문학이 무엇인지, 당과 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내가 혁명문학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당당한 작가로 성장할수 있었다.

이 땅위의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태양의 빛과 열에 있듯이 내가 쓴 모든 작품에 담겨진 환상과 열정과 지혜의 원천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있는것이다.

세상에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은 흔히 세속적인 사랑에 그치고마는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육신을 키워주는데 그치고마는것이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에게 넋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여 작가로 키워주시였으니 그것을 어찌 자식을 키운 부모의 세속적인 사랑에 비길수 있으며 이 세상 어디에 자기 자식에게 이렇듯 황홀한 환희와 고귀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준 부모나 스승이 또 있으랴.

하기에 오늘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문학의 현명한 스승으로, 운명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부르고있는것이다.

## 백 인 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애국가》를 쓴 작가라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가사를 쓸수 있었는가고 묻곤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애국가》의 가사를 쓴것은 나이지만 그의 종자를 주시고 구체적인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시여 훌륭한 명가사,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신분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라고—

진정한 애국자가 될 때 훌륭한 작품을 쓸수 있다고 하시며 《애국가》에 답아야 할 내용과 창작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그 모습은 진정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제일로 열렬히 사랑하시는 참다운 애국자의 빛나는 모습이였다.

참으로 《애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심장에서 태어난 노래이다.

해방전 진정한 문학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고 방황하던 나를 그 크나큰 품에 안아주시고 친히 손잡아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여 오늘과 같은 영광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내 무슨 말로 노래할수 있으랴.

내 몸은 비록 늙었을망정 나에게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하여 한생토록 노래하고싶은 심정은 언제나 내 가슴에 불게불게 타고른다.

## 박 세 영

예로부터 인간은 세상에 한번 태어나 한번 생을 산다고 하였다. 일생이라는 말도 바로 그래서 생겨난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 안겨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는 행복을 받아안았다.

나는 류다른 체험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러니만큼 오랜 고뇌와 시련끝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보다 더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다시금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았을 때, 이 땅에 두번다시 삶을 받아안고 새로 태어났을 때 나의 감격과 환희와 고마움이 어떠하였겠는가.

나에게 와닿은 찬란한 재생의 빛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문학과 작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이였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 온 세계를 향해 목터지게 웨치고싶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났노라! 다시 삶을 받았노라!》고—

그리고 쓰고싶었다. 곡절많은 나날속에 체험으로 간직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붓에 담아 가슴터지도록 웨치고싶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이 영원토록 안겨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고.

## 김 상 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꽃같이 이어가자!

— 공동구호에서 —

## 조 선 의 해 돋 이

김 재 원

만경대해돋이의 빛발  
한품에 다 안으시고  
백두산해돋이의 광채  
온품에 다 지니시고  
인민의 마음속에 향도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수령님 모습으로  
아버이장군님덕망으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운명의 기둥 신념의 기둥을 억세게 세워주신  
그이는 강철의 령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 영상 우러르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아침해 솟아라  
그이의 음성 그이의 발걸음소리 들으면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이 강산에 세차게 울려  
그이만을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이어

백두산총대가문의 혈통을 이으시여  
사상도 신념도 성격도  
백두산형의 장군  
천품으로 타고나신 지략도 담력도  
백두산3대장군그대로이신 천출명장

행운이여라  
수령복 장군복 대를 이어 받아안은  
세상에 단 하나 축복받은 우리 인민이여  
대통운이여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여

젊음과 열정이 빛발치는  
광휘로운 태양의 그 인품  
세계의 한끝까지 꿰뚫어보시는  
영채로운 그 안광

아버이를 잃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인민들  
자신의 손수건은 피눈물에 젖고젖어도  
불같이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한품에 안아 눈물을 닦아주신  
아, 사랑의 태양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인민은 말기고살 자기 운명의 래일을 보았거니

번쩍  
그 눈빛 한번 강토에 비끼면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이 땅에 세차게 타번져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리상  
조국땅 방방곡곡에 백화로 만발하고

령장의 그 손길  
백두의 번개  
정일봉의 우뢰를 담아  
한번 작전도에 붉은 화살 그으시면  
강토 3천리에  
승리의 축포 통일의 대함성 터져오르리라

아, 그 빛발 만대에 비끼  
동방조선의 해돋이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세기에 펼쳐갈  
무궁한 세월이 동터오는 력사의 해돋이  
누리에 인간자주의 꽃향기 한없이 넘쳐날  
영원한 태양민족의 해돋이여라

## 영 원 한 조 선 의 길

김 용 업

해도 피눈물에 젖었던가  
천하가 울던 곡성의 령마루넘어  
불노을 펼치며 밝아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아침

조국과 인민이 실린듯

무거운 발동소리 조용히 울리며  
서서히 서서히  
금수산기슭을 떠나는 야전차

흰눈처럼 순결하고  
헌신적인 한생

후덥게 흘러드는 땀눈길 헤쳐  
105땅크사단을 찾아가시는 **김정은**동지  
추억깊이 안으시여라  
이 길에 첫 자욱 찍으신 그날부터 반세기 넘는  
장군님 걸어오신 그 피어린 선군길을

저 구름너머였던가  
미끄러지는 야전차 어깨로 밀며 오르시던  
얼음갈린 오성산 칼벼랑길은  
아득한 저 하늘가밀이 아니었던가  
온몸을 적시며 산악같은 파도를 헤쳐가시던  
아슬아슬한 초도의 그 풍랑길은

거목의 뿌리처럼 묵묵히 묵묵히  
한몸 깡그리 바친 장군님의 그 선군길  
그 자욱따라 솟은것 아니던가  
백두의 총대 내 조국의 필승의 기상  
지척에 보이는 강성부흥의 희망봉

차창에 스치는 눈바람도  
핵구름 쳐갈기시던 그 숨결이런듯  
반짝이는 가로수의 눈꽃들도  
그이의 땀방울 맺히고맺히여 피어난듯  
그 불같은 한생 온몸에 스며드는 이 길

## 땅 과 영 생

하늘에선 햇빛이 쏟아져내리고  
벼이삭 실레는 들판엔  
백학이 너울너울 춤추는  
패청한 청산벌의 가을날

일만시름 다 잊으신듯  
수수한 농립모 쓰시고  
풍요한 들길을 천천히 걸으시며  
아버이수령님 노래를 부르서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

풍작의 기쁨에 취한 농민이 되신듯  
구수한 난알향기 호홉하시며  
걸고걸으시는 수령님 마음속 생각을  
땅이여 네가 어찌 다 알라

땅없는 농민의 집에서 태어나시여  
그리도 땅과 깊은 정을 맺으셨던가  
항일의 혈전만리 그 준엄한 나날에도  
마음속엔 언제나 너와 헤어지신적 없었으니  
아마도 땅은 수령님의 정든 살붙이...

땅이여 너는 곧 조국이기예  
너를 찾기 위해

지금 이 시각도  
우뢰같은 그 박동 내 조국 맥박으로 고동치고  
일행천리 그 자욱 내 나라 숨결로 폭풍치고  
봄빛같은 그 미소 만복으로 피어나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자욱 빛발치는 이 길

그 박동과 숨결  
그 자욱과 사랑의 미소 그대로 안고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아가시는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하늘땅에 메아리쳐라  
용암처럼 끓는 심장의 그 맹세

—조선아 끝까지 이어가리라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하여온  
백두령장들의 성스러운 그 자욱을  
온 세상에 떨치리라 강성국가 내 나라를!

오, 장군님 그 념원 꽃피우는 야전차  
조국과 인민을 이끌고 질풍처럼 달리여라  
영원한 이 조선의 선군길을  
3천리 온 강토에 햇빛을 뿌리며

### 전 승 일

백두광야를 다 밟으셨고  
땅은 인민의 행복의 터전이기예  
한평생 고향집토방보다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집 토방에  
더 많이 오르시지 않았더나

언제던가 그날도 들길을 걸으시며  
혁명이 허락한다면  
땅을 다루는 농민이 되고싶다신 수령님  
불멸의 위업 쌓으신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데서나  
수령님의 력사는 땅과 함께 흘러왔더라

땅은 농민의 땀으로 걸구어진다지만  
연백벌이라 재령벌이라  
열두삼천리벌이라  
조국의 외진 산촌 넓은 벌도  
수령님 바쳐오신 지성으로 옥토가 되었거니

한평생 바쳐오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평생 지켜오신 철리가 무엇인가를  
가없는 대지에 노래로 새겨주시는 우리 아버이  
귀중한 이 땅과 함께  
대대손손 가꿔갈 조국의 이 땅과 함께  
아아, 우리 수령님 무궁토록 영생하신다

#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력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리 현 순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아래 창작되어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자랑스럽게 빛내인 명작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개척되어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도 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총서 《불멸의 력사》의 갈피갈피에 아로새겨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자욱자욱과 거기에 깃든 장군님의 충정과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

총서 《불멸의 력사》가 이룩한 중요한 사상 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에 담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총서라고 하면 일정한 하나의 체계에 의하여 묶어진 작품들을 말한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문학사에는 여러 총서들이 이름을 남기고있지만 그것은 한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내용상 공통성을 가진 작품묶음에 지나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수령형상소설문학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총서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 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정을 작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하고도 탁월한 예지에 의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이 독창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다른 나라의 총서와 구별되는 우리 식의 새형의 총

서형식이다.

력사의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 주체의 길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가장 위대한 혁명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가장 위대한 인간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독자성을 가진 작품들에 깊이있게 반영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전일적인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체계성있게 통일시킨데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으로서 《불멸의 력사》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매 단계를 형상한 독자적인 장편소설들을 혁명력사발전의 로정에 따라 전일적인 체계밑에 순차적으로 구성한 방대한 규모의 장편소설군을 형성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장편소설 《맞은 울랐다》, 《혁명의 려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1932년》, 《근거지의 봄》, 《혈로》, 《백두산기슭》, 《압록강》, 《위대한 사랑》, 《잊지 못할 겨울》,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투》, 《붉은 산줄기》, 《천지》 등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반영한 작품들과 장편소설 《개선》,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 《미래》, 《열병광장》, 《삼천리강산》, 《50년여름》, 《조선의 힘》, 《푸른 산악》, 《전선의 아침》, 《승리》, 《변영의 길》, 《대지의 전설》, 《인간의 노래》, 《태양찬가》, 《청산별》, 《대박산마루》, 《영생》 등 해방후 민주조선건설시기로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이르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력사적시기의 단계들을 형상한 작품들로 이루어져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과 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혁명발전의 단계들을 다루면서 독자적인 사상주제적과제들을 해결하고있으며 매 작품들은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속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고있다.

총서를 이루는 매개 작품들은 자기의 고유한 사상주제적과제를 가지고있는 독자적인 작품들이지만 총체적인 구성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으며 총적으로 하나의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수많은 작품들로 이루어지면서도 앞뒤작품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체계성을 가지고 전개되면서 방대한 역사적내용을 하나의 웅대한 화폭으로 조화롭게 묶어세우고있는데 총서 《불멸의 력사》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총서형식을 새롭게 개척한 문예사적의의가 있다.

둘이켜보면 인류문학사에는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이 기록되어있지만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력사를 일관하게 대서사시적인 화폭으로 반영한 총서형식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태어났다.

우리의 문학, 인류문학사가 새롭게 알게 된 총서형식은 바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뜻 깊고도 격동적인 위대한 사변과 감동적인 사실들로 가득찬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 그 자체가 규정한것이였다.

참으로 우리 식의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새형의 총서형식이 새롭게 개척되고 빛나는 발전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문학이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며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 불멸의 력사를 핵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수령형상문학의 풍격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종자를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을 꽃피움으로써 총서작품들의 인간학적풍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종자는 핵으로 되므로 그에 형상의 모든 요소를 복중시켜나가는 창작과정의 일반적생리를 지켜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그의 인간학적풍격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담보는 종자탐구에 있다. 만약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이 위대하고 격동적인것이라고 하여도 작품의 핵인 사상적알맹이를 똑바로 쥐지 못하면 그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의 무게와 깊이를 제대로 형상해낼수 없으며 나아가서 제기한 문제를 똑바로 밝혀낼수 없게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무게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그것을 꽃피우는데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인간학적풍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살리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그 제목이 말해주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관한 문제를 종자로 하고있다.

불멸의 력사, 여기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의 본질이 심오하게 일반화되어있으며 총서작품창작에서 일관하게 구현하여야 할 사상의 진수와 형상의 씨앗이 담겨져있다.

수령형상문학총서의 풍격에 어울리는 이와 같은 무게있는 종자는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잡아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제목이며 종자라고 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서작품창작에서 일관하게 구현해야 할 형상의 씨앗을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개별적인 총서작품들의 종자도 밝혀주시면서 총서창작의 전과정에서 그것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잊지 못할 겨울》, 《위대한 사랑》, 《땀은 올랐다》, 《영생》 등 한편한편의 총서작품들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심어주신 철학적인 종자가 있어 독특한 향기와 빛깔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력사의 자욱자욱을 숭엄하고도 풍만하게 빛내이는 시대의 성과작, 명작들로 창작될수 있었다.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매 단계를 반영하면서 그 력사적인 단계에서 이룩된 수령님의 업적의 진수, 그 불멸의 력사에 깃든 고유한 사상적알맹이를 잡아쥐고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부각시키는데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집중시키고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그의 뚜렷한 실례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지린(길림)에서 활동하시던 이야기를 펼쳐고있다.

당시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일삼고있었으며 저마다 자파세력을 늘이기 위해 갖은 모략을 꾸미면서 파벌 싸움에만 미쳐돌아가고있었다.

이른바 《독립》과 《혁명》을 부르짖으며 기성세대들이 낡은 시대의 타류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을 때 새로운 시대사조를 갈망하는 열혈청년들은 갈길 몰라 헤매이고있었다.

기울어져가는 우리 민족,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기성세대의 리념이 이미 낡았다면 새로운 시대사조를 반영한 혁명사상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시대는 이러한 물음을 절박하게 제기하고있었다.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것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만이 해결할수 있는 력사적인 과제였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요구로부터 주체사상의 출발점에 관한 문제를 종자로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웅당한 높이에서 보여줄수 있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총적인 종자를 심화시키고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항일혁명투쟁시기 가장 준엄했던 역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반영하면서 이 행군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와 승리의 요인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소재가 안고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인간의 모든 생존조건이 말살된 최악의 환경속에서 어떻게 조선인민혁명군이 생존하였으며 또 승리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장편소설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닌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있는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것은 유격대도 인간이기때문에 모든 생존조건을 완전히 박탈할 때 《멸망》하지 않을수 없다고 타산하는 일체의 어리석은 판결과 바로 인간이기때문에 그러한 모든 준엄한 조건을 이겨내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보는 혁명적인 판점, 인간을 단순히 동물적인 존재로가 아니라 숭고한 혁명사상을 가진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보는 주체적판점의 심각하고도 날카로운 대결이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이 대결에서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판점의 승리를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정신력에 대한 다함없는 숭가이다.

총서작품들가운데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력사에 대한 총적인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는 사상적알맹이로 심화시킴으로써 강철의 의지와 담력, 천재적예지와 지략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은 형상으로 펼쳐보인 작품들도 있다.

그러한 작품들가운데서 특색있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장편소설 《푸른 산악》이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가장 가렬했던 1211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천재적군사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고있다.

1211고지전투라는 소재가 안고있는 문제점은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적들의 《최대의 포격》, 《최대의 폭격》으로 하늘도 타고 땅도 타고 바위도 타는 무서운 불바다속에서 1211고지는 조국의 푸른 산악으로 거연히 솟아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었으니 이 승리의 기적은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주체사상적과제를 우리 식의 선택이라는 심오한 종자에 담아 형상으로 구현함으

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 강철의 의지와 담력 그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리어 1211고지는 조국의 푸른 산악으로 영원히 높이 솟아 빛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고있다.

소설은 적들의 주타격방향이 전선서부이나 아니면 전선동부이나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처한 우리의 전투방식이 《운동전》, 《기동전》으로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 위대한 선택의 기초에는 1211고지전투가 우리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념이 굳게 자리잡고있었다는것을 문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총서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가 안고있는 심원한 세계를 매 력사단계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총서작품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형상한 작품(장편소설 《개선》, 《삼천리강산》, 《열병광장》)들도 있고 새 조선건설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그린 작품(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들도 있으며 전후복구건설과 농업협동화운동을 승리로 이끄신 업적을 형상한 작품(장편소설 《번영의 길》, 《대지의 전설》)도 있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전설속의 천리마를 현실에 불러오시고 새로운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작품들(장편소설 《인간의 노래》, 《청산별》)도 있으며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령도를 형상한 작품(장편소설 《태양찬가》)도 있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를 형상한 작품(장편소설 《영생》)도 있다.

무한대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불멸의 업적을 아름답고 풍만한 생활화폭으로 펼쳐고있는 바로 여기에 총서 《불멸의 력사》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총서 《불멸의 력사》가 이룩한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그려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위대한 생활이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 혁명의 최고령도자라고 하여 산 인간으로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그리지 않는다면 수령의 형상을 격식화할 수 있으며 예술적진실성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리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의 생활을 그리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의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며 실지 있는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예술적허구를 쓸데 대한 문제 등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 않고 회상하시는 역사적 사실들을 작품에 잘 반영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작품들의 초고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 구성조직, 하나의 사건과 세부, 하나의 대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작품들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려낼 수 있었다.

총서작품들에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군사 전략가 이시며 령도의 예술가 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예술적으로, 감동깊은 생활적인 형상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총서작품들에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과 예술적진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와 업적을 진실하게, 인간학적으로 훌륭히 그려내고 있다.

장편소설 《1932년》이 그토록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낸 데 있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만원정에 앞서 좁쌀 한말을 가지고 샤오사하(소사하)집을 찾아 어머님과 마지막상봉을 하신 그 눈물겹고도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으며 어머님께서 서거하신 후 유격대에 입대하겠다고 찾아온 동생과 주막집에서 언두부 한모를 앞에 놓고 술 한잔을 나누고 헤어지신 사실이 감동깊게 반영되어 있다.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허구를 옹계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 잊지 못해하시는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실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풍만한 생

활로 펼쳐보여주고 있는데 총서 《불멸의 력사》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가 있다.

총서작품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고 수령님의 내면세계, 내부적체험세계를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그리고 있다.

총서작품들에 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는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이다. 생활의 각이한 계기와 정황에서 주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에 대한 품위있는 묘사를 통하여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낸 것은 총서작품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총서작품들에서는 또한 각이한 인물들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그들의 시점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다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는 긍정인물도 있고 부정인물도 있으며 적대인물도 있다.

장편소설 《영생》에서 전 미국대통령 카터의 시점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그려낸 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이라는 것을 나는 서슴없이 말하게 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돌아간 카터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소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이야말로 절대적이고 만민이 공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총서작품들에서는 또한 뜻깊고 인상적인 생활세부들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서 인상깊게 나오고 다음권에 해당되는 장편소설 《봄우뢰》에서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내비쳐지는 짙광이세부, 장편소설 《개선》에서 주어진 삶은 감자알세부, 장편소설 《인간의 노래》에 주어진 직통전화세부 등 뜻과 정으로 이어진 아버지수령님과 혁명전사, 인민대중사이의 혈연적관계, 일심단결의 철학을 보여주는 세부들이다. 이러한 뜻깊고도 주옥같은 세부들이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작품들의 갈피마다에서 빛나고 있다.

이처럼 총서 《불멸의 력사》는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본보기로 되는 귀중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 오! 그날의 판문점

김 형 준

오! 그날  
우리 얼마나 놀랐던가  
정전...  
끝나지 않은 전쟁!  
판문점...  
무혈의 전쟁마당!

그곳에선  
해도 달도 별도 총창우에서 솟고 진다  
흐르는 시간의 분초가  
총알처럼  
전쟁과 평화 순간과 영원을 새기며  
총신에서 흐른다

허나 그날  
우리 얼마나 마음 든든해졌던가  
죽음의 전쟁유령  
바람처럼 배회하는 판문점  
세월의 재불속 정전시한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판문점

바로 그런 곳에  
그 정전시한탄도 지르뵙으시고  
천만대적은 눈에도 들지 않는듯  
환히 웃으시며 병사들과 팔을 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날 우리는 보았다  
핵탄도 무색해지는 열의인의 미소  
분렬의 장벽을 녹이는 정의인의 미소  
판문점해돋이에  
강토 3천리에 다투어피여 만발하는  
통일의 꽃바다

정녕 그이의 모습은  
반만년력사의 언덕에 우뚝 솟은  
창창한 조선의 모습  
그이의 미소는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빛발  
그이의 품엔 벌써 강토 3천리가 안겨있었거늘

그날 원수들은 보았다  
가련한 자기들의 잔명은  
백두산악앞에 한알의 모래  
작열하는 태양앞에 한갓 곰팡이  
그이 세계를 굽어보시는 쌍안경속에  
자기들의 운명이 마지막목표임을

밤도 아닌 청청대낮  
정의와 부정의 대결장  
적아의 총창이 맞붙어 마른번개 날리는  
전쟁과 평화의 두 전호사이를 시찰하시는  
그런 대담무쌍한 령장의 모습  
세계는 아직 보지 못하였거니

감히 어떤 원수가  
우리를 넘본다더냐  
우리엔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가 계신다  
분렬장벽 땅금처럼 지워버릴  
핵불기등도 초물처럼 꺼버릴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김정은**동지가 계신다

오! 그날 세계는 보았다  
정전시한탄도 잡초마냥 지르뵙고  
판문점 정전협정조인장을 올리며  
백두산의 무게로 남기신 그이의 자욱이  
리명박역적무리들의 운명에 찍은  
멸망선언의 마지막종지부임을!

×

총서 《불멸의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자욱자  
욱이 담겨져있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  
정의 세계가 비껴여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  
음속에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뜨겁  
게 불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이룩하  
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주체문학창조와 건설의 영

원한 생명선이며 그 무궁한 발전을 담보해주는 만  
년토대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수령형상론을 지침으로 하여 총서 《불멸의 력  
사》와 《불멸의 향도》를 비롯한 수령형상문학작  
품들을 보다 훌륭하게 창작해내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  
이 빛내이며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형상문학  
창조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  
이다.

#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리자!

— 공동구호에서 —

수 필

## 단 숨 에

김 철 이

아버이의 유훈을 받들어 노도처럼 전진하는 내 조국땅의 들끓는 투쟁전구들을 찾을 때마다 나는 곳곳에서 우리 인민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인양 살아 숨쉬는듯 한 구호를 보군 한다.

《단숨에!》

어디서나 볼수 있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에도, 영웅한 우리 인민군대의 훈련장에도, 흥남의 가스화2계열공사장이며 단천항건설장에도 《단숨에!》, 이 글발이 찍여져있다.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인민군대의 공격정신이다. 그리고 우리 천만군민의 기상으로, 숨결로 되었다.

이를 가슴뽐듯이 느낄 때면 내가 직접 체험했던 우리 인민군대의 《단숨에》기상이 나래치던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침전지공사장이 떠오른다.

지난해 10월이었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달려갔다.

그곳에서 뜻밖의 감격적이고 격동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될줄이야. 인민군군인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침전지작업에 진입하였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오랜 세월 난문제로 되어오던 수만립방의 해묵은 침전지감탕을 처리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던것이다.

사실 침전지의 감탕은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에 더는 내버려두면 안될 력사의 퇴적물이었다.

일감이 너무도 아름답고 방대하여 누구도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침전지공사를 통채로 맡겨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인민군장병들은 침전지감탕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침전지공사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작업시작구령을 내리자 침전지쪽우에 정렬했던 인민군군인

들이 일제히 만세의 합성을 목청껏 웨치며 육탄마냥 물밀듯이 침전지안으로 뛰어들었다.

수십년동안 감탕으로 쌓이고쌓인 침전지가 노호하는 군인들의 만세소리와 기상에 놀란듯 부글부글 팔죽끓듯 하였다.

처음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빠지는 감탕속에서 군인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감탕마대를 저날랐다. 마가울 찬바람이 군인들의 흠뻑 젖은 온몸을 휘감았으나 그들의 드높은 열의와 양양된 기상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녀성군인들도 《단숨에》노래까지 부르면서 기세를 올렸다. 전체 군인들이 합창으로 따라불렀다.

훈련장에 나선 병사는 단숨에란 말을 사랑해 걸음마다 그 말 울리며 펄펄나는 용맹 키우네 ...

침전지가 깊어질수록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경사지로 오르던 군인이 미끄러지면 뒤의 군인이 어깨로 떠밀었고 다음은 배밀이로 기여올라 감탕을 쏟았다.

장령과 병사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허리치는 감탕속을 헤치는 침전지전투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었다.

침전지공사장은 수령결사옹위의 성벽,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성세를 이룬 우리 인민군대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 자랑스러운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성스러운 전투장이었다.

전투장에 《단숨에》라는 글발을 기폭마냥 세워놓고 일당백속도,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기상, 지퇴발도 웃으며 헤쳐넘는 과감한 공격분배를 남김없이 과시한 인민군장병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에 의하여 오랜 세월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며 애태우던 침전지가 선군시대에 와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 나날에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이라면 폭풍치며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집행하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의 무서운 위력을 깊이 절감하였다.

# 한 모 습 으 로

김 정 삼

오, 영광넘쳐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궁지로 뿔뿔이는 이 심장속에  
별처럼 새겨지는 모습이 있어라

준엄했던 혁명의 첫 기슭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올리며  
참된 생의 환희속에  
한별의 노래 부르던 청년전위들...

찬란한 주체시대  
장군님을 향도성으로 받들어모시며  
우리 당 기초축성에  
초석이 되고 성돌이 되었던  
잊을수 없는 1970년대의 열혈일군들...

아, 쇠물처럼 끓어넘치는 열망이여  
위대한 선군시대가 받들어모신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내 진정 그이를 받드는 한길에서  
혁명선대들의 고결한 모습  
값높은 그 삶을 따를 한마음이여

맑은 샘처럼 눈가에 고이는  
아,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여  
만경대가문의 애국애민의 높은 뜻  
한몸에 체현하신 **김정은**동지  
그이를 받들어  
그이의 전사로  
나의 청춘을 꽃피감은

그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이나

아름답게 살고싶어  
후회없이 살고싶어  
위인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를 때  
톡톡 고동치는 이 심장속에  
절절히 울리는 한별의 노래  
붉은 피 끓여주는 《동지애의 노래》여

목숨보다 귀중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기에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그 신념  
명예나 대가를 바람이 없이  
광풍과 유혹에도 흐려짐없이  
절개높이 간직했던 선렬들의 일편단심

발파소리 울리는 그 어느 건설장  
수호의 총을 잡고 전호가에 내 선대도  
지니여 아름다울 청춘이 있고  
꽃피워 값높을 위훈의 생이 있을  
혁명선렬들의 그 결백한 녀!

오, 내 삶의 불길이 되여  
영원히 타오르라 충정의 마음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나가는  
주체위업완성의 성스러운 행군길로  
척척척 발구름높이 내 가리라  
영생의 별로 빛을 뿌리는  
1930년대 청년전위들의 모습으로!  
1970년대 열혈일군들의 모습으로!

그 힘이 몇개월이 걸려야 한다면 침전지개건공사를 단 6일만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이 마침내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렸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지난해 12월 또 다시 함남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0만여립방의 맑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주위 웅벽과 도류벽, 양수장, 수문설비, 란간을 비롯한 새롭게 변모된 침전지의 풍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 나날의 《단숨에》의 공격정신과 기상이 오늘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조국땅 곳곳에서 천만군민의 투쟁을 떠밀어주는 숨결로 되었다.

나는 어디 가나 그 기상을, 그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 인민의 그 공격정신으로 살려는 불타는 지향을 가다듬군 한다. 그리고 앞날을 휘황하게 그려본다.

아버이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노도와 같이 전진하며 투쟁하는 우리 천만군민이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함남땅의 침전지공사보다 더 크고 위엄스런 기적들을 창조해가는 앞날이 환하게 안겨온다.

#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미래관에 대한 감동깊은 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미래》에 대하여

김 봉 민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이 땅위에 우리 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이었고 우리 장군님의 원대한 리상이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장엄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우리 인민이 그 모진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는 근본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이의 빛나는 안광에서, 그이의 강철같은 담력과 배짱에서, 그이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와 크나큰 덕망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였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세계에 그 존엄 떨칠 내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보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뜻깊은 설명절날에 백두산3대장군의 뜨거운 자욱이 어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미래를 사랑하시고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보았고 백두산총대가문의 혈통으로 천대만대 줄기차게 꽃꽂이 이어질 우리 혁명의 대, 주체혁명위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 빛나는 인생 행로는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미래》(최영조 작)는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여 오늘의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조국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는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지켜지고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튼튼한 토대도 그 품속에서 마련되여왔다는것을 웅건한 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밝힌 시대의 성과작이다.

##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미래관에 대한 철학적해명과 작품의 철학적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시작했고 지금도 무엇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계속하고있는가. 온갖 불의와 폐습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하고 인간적인것을 옹호하며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부와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모두가 이 저주로운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든것이 아니겠는가. ...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것은 혁명가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두고 완성되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을 담당한 주인으로 되고있지만 래일은 저 애들이 자라서 혁명을 떠메고나가는 주력군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대들을 튼튼히 키워야 한다. 더구나 저 애들은 우리의 전우들이 남기고간 유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 애들을 아끼고 따듯이 돌봐주어야 한다. ...》

이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미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미래관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준 장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시작하시였고 이끌어오시였다.

작품에서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미래관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을 자기의 주체사상적과제로 제기하고있다.

작품은 서두에서 먼저 라남에 갔다오던 길에 수령님의 저택에 들린 안길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사이 오가는 대화를 통하여 유자녀문제때문에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에 대하여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길에서 먼저 떠나간 투사들의 자녀들, 특히는 중국동북땅에 흩어져 이제는 생사조차 알수 없는 유가족들때문에 늘 마음쓰신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유가족들과 유자녀들의 행방을 찾을만 한 시간적여유가 없는 매우 복잡한 상태였다.

아직 인민정권기관도 세우지 못하였고 국방건설의 핵이라고 할수 있는 군건설도 채 완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남조선에 등지를 뜬 미제는 저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북침전쟁을 위해 괴뢰군을 조직하고 현대적으로 무장시킨다고 소동이였고 당안에 끼여든 이색분자, 불순분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날뛰고있는 상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엄혹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찾으셔야 할 곳도 많으셨지만 유자녀들을 맡아키울수 있는 혁명학원건설을 제기하시고 몸소 만경대에 그 러전까지 잡아주신다.

여기서 초점을 이론것이 애국미문제였다.

어떤 사람들은 애국미를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밑천으로 쓰자고 하였고 군건설에 쓰자는 항일투사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복잡한 주장이 엇갈린 속에서 그 어느 부문이나 다 중요하지만 이 애국미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구체적으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건설에 써야 한단데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받드는 길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실천하는것을 자신의 혁명과업으로 여기시고 혁명학원을 세우는 일에 있는 힘과 지혜를 바치신다.

이 과정에 혁명학원재복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심중히 의논한 끝에 제복을 혁명의 대를 계승하라는 의미에서 장령들의 군복처럼 만들기로 하고 이 과업을 몸소 자신께서 맡아안으신다.

작품에서는 유자녀들을 맡아키우는 문제를 단순히 동지적의리심에 관한 문제만으로도 아니라 우리 혁명의 장래문제, 조국의 미래문제로 승화시켜 살피시는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심증을 철학적으로 밝히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학원을 찾으셨을 때 부모 없는 원아들이 부러워할새라 학원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 계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형상은 위인들의 슬하에서 키워온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 천품에 대한 의의있는 형상이다.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있는 혁명은 결코 한두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숭고한 사업이며 영예로운 사업이다.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제시하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가장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0대의 나이에 혁명을 시

작하신 때부터 조국의 미래, 혁명의 장래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숭고한 미래관과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인 김정숙동지의 헌신에 의하여 만경대에 마침내 우리 혁명의 후계자들의 요람인 혁명학원이 자리잡게 된다.

작품에서는 이렇게 혁명학원창립이라는 사건선을 전면에 제기하고 백두산위인들의 미래관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가 확고히 마련될수 있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작품에서 특별히 여운이 남는 인물형상들이 있다.

비록 작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연형목, 심창완, 박송봉의 형상이 인상적이다.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경도를 높은 실력으로 받아들여온 실력가형의 일군의 전형들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바로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하던 그 나날에 중국동북지방에서 생사조차 알수 없었던 유자녀들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며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고 학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혁명의 미래였었다.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그들은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자라났던것이다.

그들의 형상은 백두산위인들의 미래에 대한 사랑의 강렬한 철학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상대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인 안길과 림춘추의 형상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안길로 말하면 혁명학원건설을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을 다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흘러서야 후대들을 키우는 문제가 단순히 의리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혁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깨닫게 된다. 하여 그는 비록 늦었을망정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혁명학원건설장에 나가 동통을 참으면서 한삽의 흙이라도 퍼내는것이다.

림춘추 역시 수령님의 명령관철에서 사소한 의심과 추호의 동요를 모르는 투사의 전형으로 부각되고있다.

그는 빨찌산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를 기록하는 력사기록가, 빨찌산의 문인으로 불리웠다. 그러다가 그는 해방후 한개 도의 당사업을 보면서 문인들과의 사업을 하며 그후에는 수령님의 과업을 받고 중국동북땅에 나가 사업하면서 수많은 유자녀들을 찾아 조국에 보내주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정력적인 힘을 기울이는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가의 참된 한생은 수령의 사상, 수령의 경도를 충직하게 받드는데 있다는 강한 철학성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에서 철학적인 형상으로 안겨오는 인물형상들에는 조각가 문석오와 독립운동지사의 자식들인 춘희와 백산의 형상도 있다.

먼저 문석오의 형상은 재능은 있어도 나라가 없어 짓밟혀야만 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극적으로 전환되게 되었는가를 학원에 모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건립과정을 통하여 해명하는 형상이며 춘희와 백산의 형상은 정견과 신앙은 달라도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백두산위인들의 넓으신 도량과 크나큰 위인적풍모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인물형상들이다.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미래관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기본중심을 두고 항일투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물들의 운명선을 통하여 해방후 새 조선의 주인들로 자라난 조선민민의 형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철학적으로 펼쳐 보이고있다.

감동깊은 사실들과 철학적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으로 위인들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고 철학성을 강조한 여기에 작품이 거둔 주되는 주제사상적 성과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 제치있는 생활세부를 통한 독특한 구성창조와 인물성격의 개성화

일반적으로 문학형태가 다 그러하지만 수령의 역사를 폭넓게 형상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총서작품인 경우 작품의 구성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총서작품에서 작품의 중심주인공인 수령의 혁명력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려내는가 하는것은 구성을 직접 창조하고 설계하는 작가의 사색과 탐구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적과제에 충분한 해명을 줄수 있는 구성조직의 탐구, 그러자면 형상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수령님의 넓고도 다양한 혁명활동범위와 투쟁분야에서 작품의 주제에 들어맞는 집약화되기도 집중적인 생활소재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 묶어놓을수 있는 구성조직,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또 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미래》에서는 이것을 제치있고 감화력있는 생활세부의 선택과 리용으로 잘 해결하고있다.

작품은 시작부터 마감까지 생활세부들의 련속적인 련결로 일관되어있다.

매 계기점들마다에 그에 해당하는 적중한 세부들이 선택, 리용되어 구성조직의 독특한 묘미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라남에 갔던 안길이가 수령님의 저택

에서 낮모를 아이들을 보게 되는 세부가 있다.

이때 안길이는 웬 아이들인지 몰라 의아해하다가 김정숙동지를 통하여 그 애들이 먼저 떠나간 혁명전우들의 유자녀들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이 세부는 사건적으로 볼 때 사건의 발단과정에 속한다.

다음으로 림춘추의 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온 편지세부가 있다.

림춘추의 아들은 편지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자기는 아직 조선이름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수령님께 드린다.

이 편지세부는 수령님의 심중에서 비단 림춘추의 아들 한 아이에게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사조차 모르고 중국동북땅 곳곳에 흩어져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의 전반적실태와 관련된 문제로 부각되면서 작품에서 사건의 발생부분으로 된다.

다음 혁명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시러 가는 길에서 수령님과 김책동지사이에 오가는 통담세부, 어리신 장군님께서 《만경상춘》에 대하여 류창하게 해설하시는 세부, 연형묵, 심창완을 비롯한 유자녀들의 어려운 생활세부 등 다채로운 생활세부들이 적극 탐구리용되어 사건의 발전을 추동하고 촉진하면서 시종일관 작품의 견인력을 담보하고있다.

계속하여 작품에서는 춘희와 백산에게 돌려주시는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세부, 혁명학원에 건립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문제를 둘러싸고 수령님과 주변인물들사이에 벌어지는 생활세부 등에서 사건의 절정을 이루며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신 백두산위인들이야말로 혁명가유자녀들의 친부모이시고 그분들이 있어 유자녀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었다는 사상이 립체적인 구성조직속에서 뜻깊게 천명되고있는 것이다.

세부를 통한 작품의 구성조직은 확실히 독특한 특징이다.

집약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생활세부로 일관된 작품의 구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있는 미래에 바치시는 무한한 사랑을 뜨겁게 강조하고있다. 또한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적과제에 명백한 해답을 줄수 있게 치밀하게 짜여있는것이다.

이것은 작품이 거둔 중요한 미학적성과이다.

작품에서는 생활세부를 통한 인물성격의 개성화도 의의있게 실현하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개성적인 성격미를 가진 시대의 전형들로 형상되고있다.

특히 항일혁명투사 림춘추의 형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과 혁명로선을 관철해나가는데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책임성을 가진 주체형의 인간전형, 개성적인 성격미를 가진 혁명가의 전형으로 형상되



# 봄날의 추억

전 수 철

나는 건설자의 권리로 추억한다  
여기 대동강반에 펼쳐진 전변  
착공의 발파소리  
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진 4월의 봄날

완공된 이 거리를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과 장군님 태양상을 우러르니  
우주공간을 짝 채우며 울려오는 음성이어

-아버이수령님  
수령님 바라시던대로 여기에  
인민들이 살 살림집들을 세웠습니다  
수령님께 올리는 장군님의 말씀

-김정일장군 고맙소  
이것은 장군이 인민위해 바친  
사랑과 헌신의 대기념비요

장군님께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

어려웠던 나날의 추억 무엇에 필요되랴  
어제와 오늘과 래일에 영원할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말씀이어

우리 걸은 길 고난의 천리였다면  
그 길은 신념의 천리길이였고  
우리 걸어온 길 행복의 만리였다면  
그 길은 장군님과 함께 걸은  
행복의 천만리였나니

래일의 행복을 위해 헤쳐가는 고난이  
오늘의 행복과 기쁨의 추억으로 되고  
그 행복 그 기쁨의 추억이  
아버이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된  
4월의 봄날의 추억이어!

고있다.

그의 형상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빨찌산력사가, 빨찌산문인으로서의 그의 문필활동이였다.

그는 아무나 할수 없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쓸 용단을 내리고 빨찌산시절부터 꾸준히 그 사업을 벌려온다. 어려움도 많았고 난관도 많았다. 종이가 떨어져 나무껍질에 력사기록을 새겨야 했고 때로는 나날이 무거워지는 배낭때문에 대오에서 떨어질번도 하였으며 생명과도 같은 배낭을 적《토벌》대의 습격에 잃을번 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배낭만은 잃을수 없다며 아무리 무거워도 그 배낭만은 꼭 자기가 지고 다니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기록된 귀중한 자료들을 해방된 조국땅으로 가져온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에게 빼앗길번 했던 배낭을 다시 찾는 생활세부, 손금세부, 대통령감이 하였다는 유언세부 등 다양한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잘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지성미를 갖춘 림춘추의 개성적인 성격을 해방후 문인들과 세계명화의 하나인 아이바쥬쓰끼의 《아홉번째 파도》에 대한 그림을 감상하는 생활세부에서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이어의 세부들에서 작가는 구태여 림춘추의 전형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 어떤 서술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성격과 지성이 드러나는 생활세부들만을 펼쳐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세부들을 통하여 투사의 전형으로서 또 지성미와 인간개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

인간 림춘추의 성격적미가 뚜렷이 독특하게 드러나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그외에 조각가 문석오와 혁명학원 초대원장인 리종익, 김월송의 운명을 보여줌에 있어서 생활세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해방후 참된 삶을 받아안은 우리 지식인들의 모습을 감명깊게 전형화하고있다.

작품에서는 구성을 조직함에 있어서 생활세부의 리용뿐이 아니고 수령님의 부관인 손종준의 일지 내용을 별도로 삽입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특색있게 장식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독특한 갈등설정과 그 해결, 참신한 언어구사와 여러가지 표현수법 등으로 작품의 예술성을 한껏 돋우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미래》는 숭고하고도 원대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우리 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들로 키워오신 백두산위인들의 형상을 감동깊게 창조함으로써 간고한 시련과 고난을 헤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오늘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해명하였다.

우리 문학은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오신 백두산위인들의 형상을 더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강성부흥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세기의 언덕 넘어 영원히 울려 퍼질 수령흠모의 송가

김정평

4월의 봄이 왔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태양절의 하늘가에 수령흠모의 노래, 수령칭송의 송가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충정과 헌신의 세계를 지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노래가 태어난지는 어느덧 40여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정도자를 높이 모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한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떨치며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노래들은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으로 하여 천만의 심장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한평생을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귀감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정도자를 충정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체시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빛내이는 불멸의 재보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도따라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고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힘있게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 뜨거운 칭송의 감정은 우리 천만군민의 숭고한 혁명적신념과 의지, 고결한 도덕의리로 되고 있다.

혁명적신념과 의지에 기초하고 숭고한 도덕의리로 다져진 자기 수령, 자기 정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 이것은 오늘의 시대정신의 정수를 이루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고귀한 체험, 심오한 사색이 빛나게 체현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우리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고이 간직된 불타는 충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시대정신의 정수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으며 주체문학의 높은 경지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에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이 간고한 적후에서도 자나깨나 잊은적 없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군녀전사의 불타는 그리움으로 가슴뜨겁게 노래되고 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림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장군님  
자나깨나 뵈고싶은 우리의 장군님  
머나먼 적후에서 북녘하늘 우러러  
전사들은 아침인사 드리웁니다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을 전하며  
아침해빛 전사들의 길을 밝히네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그리움의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종자를 형상의 기초로, 바탕으로 하여 사상의 철학성을 보장하고 높은 예술적형상을 담보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형상의 중심에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만을 끝없이 그리워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흠모심에 대한 인간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적해명으로 사색과 감정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사는 이것을 깊은 사색과 질은 서정속에 구현하고 있다.

1절과 2절에서 전형적인 시적계기, 전형적인 시적정황을 설정하고 전형적인 사상감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아버지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사상정신세계에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적후천리 밀림속 깊은 밤에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이 밝은 북녘하늘을 바라보는 나 어린 인민군녀 전사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적후에 떨어진 안타까움보다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끝없이 흠모하는 불타는 그리움인것이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릴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불비속에서도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 그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수 없는 전사, 수령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를 안고사는 주인공의 혁명적수령판에 기초한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가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이렇게 제시된 시적계기와 정황에 의거하여 그리움의 사상감정을 불타는 맹세의 감정으로 더욱 고조시키며 전진시켜나가고있다.

마감절에서는 앞절들에서 제시되고 전개된 감정이 더욱 고조되어 온갖 시련과 난관도 두려움 없이 수령님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기어이 찾아가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주정토로 높이 승화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그 사상정서적바탕에 놓여 있는 수령과 전사의 땀배야 땀수 없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혈연적인 관계, 위대한 수령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자기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녀전사 아니,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모두의 절절한 체험세계와 열렬한 충정의 마음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승화시켜 표현하였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그리움의 세계에 대한 뜻깊은 사상적알맹이로부터 자나깨나 자기 수령을 그리워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 수령을 끝까지 따르려는 한마음을 간직할 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심원한 독창적인 사상을 완벽한 시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심오한 철학성이 있으며 예술적일반화의 깊이가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예술적형상에서도 완벽한 작품이다.

우선 서정구조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서 순차적이면서도 집약적으로 짜여져있어 정서가 넘치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갖추고있다.

가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민군녀전사의 생활적이며 구체적인 사상감정인 그리움의 서정으로 일관되어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전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정면에서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도 수령님을 그리는 주인공의 절절한 흠모심에 굴절시켜 그이의 위인적품모를 정서적여운이 짙게 보여준데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높은 격이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또한 인간의 고유한 사상감정을 자연의 현상과 밀접히 결합시켜 형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예술성을 높이고있다. 그리움의 상징인 북두칠성에 의탁하여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펼쳐보임으로써 주제사상과 종자를 철학적으로 밝혀냈다.

명작은 인민들이 늘 쓰는 알기 쉬운 시어들을 골라쓰고 뜻이 깊은 표현들을 활용함으로써 예술적품위를 높이고있으며 정서적인 운율을 보장하고있다.

가사는 그리움의 정서를 《어데 계실가》, 《그 어데일가》라는 수사학적질문의 수법으로 펼쳐고있다.

운율조성도 우리 나라 민족시가에서 력사적으로 형성공고화된 7.5조의 방법에 의거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진정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가 낳은 시대의 본보기적인 명작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천만 군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은 시대의 송가로 높이 올려퍼졌으며 오늘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갈 불타는 맹세를 담아 울리고있다.

세기를 이어가며 수령흠모의 노래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의 세계를 길이길이 전하며 절세의 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울려갈것이다.

## 집자리에 대한 생각

박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또 하나의 행복이런가.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봄날에 우리 집에도 경사가 났다. 새로 일떠선 고층살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것이였다.

우리 집은 이른아침부터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이사짐을 싣다, 차에 싣는다...

어느덧 새집에 이사짐을 풀어놓고 방안과 부엌 정돈까지 말끔히 끝낸 나는 안해와 나란히 5층창가에 다가서서 화창한 봄별이 무르녹아 흐르는 밖을 내다보았다.

남향반이 집인지라 밝고 따스한 해빛이 창가득 눈부시게 흘러들었다. 멀리 않은 곳엔 맑은 물이 출렁거리는 강이 흐르고 그옆엔 한창 물이 오르는 갯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이 펼쳐져있었다. 눈아래로 가깝게 안겨오는 넓고 시원한 도로와 버스정류소, 그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편의봉사 및 문화후생시설들... 새집은 물론이요 주위환경까지 생활하기가 참 편리하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노상 얼굴에 함박꽃같은 웃음을 담고 아이들처럼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던 안해가 나에게 다정히 몸을 기대며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집자리가 참 좋지요?》

《더 이를 말이요. 정말 명당자리요. 하지만 뭐 본래 살던 집자리도 이만 못하지 않았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 결국 우린 좋은 집자리에서 또 좋은 집자리로 이사를 온 셈이군요.》

안해는 폐사롭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비상이 크고 놀라운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손뼉까지 마주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순간 그 어떤 의미심장한것이 번쩍 뇌리를 치는 듯 한 느낌에 나는 저도 모르게 나의 어린시절이 흘러간 고향집으로 추억의 노를 저어갔다.

나의 고향은 우리 나라 서북지대의 자그마한 산골읍이다.

이 읍 유축의 푸르른 산기슭에 남향을 하고 서있던 빨간 기와집이 바로 내가 태어난 집이였다. 뒤산에서는 혼성림이 울창하게 자라고 동구밖을 흐르는 아름다운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꼬리쳐놀고 마당가에는 사시절 맑은 물이 뚝뚝 솟구치는 박

우물이 있어 사람살기에는 그저 그만이였다. 게다가 집둘레에 빙 둘러섬은 과일나무들엔 해마다 가지가 휘도록 열매가 달리고 여러가지 집짐승과 텃밭남새 또한 얼마나 잘되는지 몰랐다. 하기에 동네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던 길손들까지도 집자리가 참 좋다고 우리 집을 부러워하곤 하였다.

그때 우리 집에는 팔십고개를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동네사람들은 집자리가 좋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들 했다.

하루는 할아버지를 취재하기 위해 도일보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었다. 그 기자역시 첫마디가 집자리가 참 좋다는것이였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 대답이 참 인상적이였다.

《허허, 온 세상에 맑은 아침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고 금수강산으로 자랑높은 이 땅 어디나 좋은 집자리지요. 허나 지정학적위치로써만 설명할 수 없는것이 집자리라고 난 생각하오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런 이야기를 터놓는것이였다.

준엄한 전쟁의 불길이 할아버지의 집에도 들쭉워져 미제공중비적들의 기총사격과 출폭격에 읍 유축의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던 기와집도 산산이 무너지고말았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검은 연기가 치솟는 집터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 얼마나 좋은 집이였던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아래 분여받은 제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나날이 살림은 늘어가고 집안가득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니 이보다 더 좋은 집자리가 어데 있으랴싶어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덩실하게 지었던 네칸짜리 기와집이였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 전후에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그 집자리에 더 크고 훌륭한 기와집을 지어주었다. 바로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 희망과 랑만이 가득차흐르던 집, 산촌의 그 빨간 기와집에 이어 얼마나 좋은 집들에서 내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배우며 일하며 성장하였던가.

그리고 그 모든 집들이 오늘따라 더욱더 소중히 여겨지며 세차게 가슴을 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나에게는 불현듯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짚

# 태양이 빛나는 거리

박 정 애

하늘높이 솟아오른 초고층살림집  
진주보석 다듬어세웠는가  
밝은 창문들 해빛과 마주 웃는  
대동강반에 펼쳐진 황홀한 거리

희한한 절경, 웅장한 거리  
우람한 극장, 추녀높은 옥류관  
두 기슭에 무지개다리 펼친 옥류교...  
그 모습에 정겨운 미소 보내시는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층층마다 집집마다  
보는것 안아보는것 꿈만 같아  
행복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젖은  
행복한 인민의 모습에  
평생소원이 다 풀리시여  
환히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이여

전쟁의 폐허위에  
고층살림집을 일떠세워주시고  
옥류의 흐름위에 다리도 놓아주신 수령님  
그날에 더 좋은 살림집을 일떠세우실  
크나큰 사랑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수령님과 장군님 바치신 로고는 얼마던가

잊을수 있으랴  
수령님 바라시는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우리 장군님  
어제는 만수대거리 해방산거리를 일떠세우시고  
오늘은 대동강반에 행복의 집  
황홀한 거리를 세워주시였거니

우리 장군님 남모르게 마음써오신 그 심려  
천년계단이 되고 만년기초가 되고  
우리 장군님 남모르게 주고주신 그 사랑  
해빛과 별빛과 마주 웃는 창가에 비껴  
사랑의 탑으로 솟아 빛을 뿌리는  
대동강반에 펼쳐진 희한한 거리여

진주보석을 다듬어 깎아놓은듯  
정갈한 걸음길을 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인민위해 견고걸  
으신  
그 자욱자욱이 어려있는 이 거리  
한그루 나무 한포기의 꽃을 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손길이 어려있  
는 이 거리

오, 바라보면  
인민의 태양  
영원한 태양을 높이 모신 이 거리는  
강성부흥의 미래로 곧추 열린  
해빛찬란한 태양의 거리여라

막한 기사의 내용이 그에 대한 대답처럼 다시금  
생각키웠다.

그 기사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살길을 찾아 헤매이  
는 중동지역의 어느 한 나라 피난민들의 비참한  
운명이 씌여져있었다.

불우한 피난민들, 그들에게도 대대손손 살아  
온 정든 고향과 삶의 보금자리인 집이 있었다. 그  
들이 살던 곳도 아름답고 풍요한 고장이었다. 하  
지만 나라를 빼앗긴탓에, 그 나라를 지켜줄 군력  
이 약한탓에 그런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것이였다.  
이것은 필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  
국을 찾아주시고 한평생 로고를 다 바치시여 강위  
력한 자위의 나라로 일떠세워주시지 않았다면 그  
리고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보검을 높이 드

시고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철벽의  
요새로, 세계가 인정하는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전  
변시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도 달리 될수  
가 없는것이다.

오늘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의 조국은 끄떡없고 집집의 창문  
들도 변함없이 밝고밝은것 아니라.

찬란한 미래가 무지개처럼 비껴 행복의 창가에서  
나는 무겁게 불러본다. 아니, 심장으로 웨친다.

이 땅 어디서나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좋은  
집자리!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  
생 다 바치시여 마련해주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가시는 사  
회주의조국의 품, 선군조선의 보금자리다!



강 철  
그림 김 광 석

1

내려앉은 저녁어스름속에 골짜기로 쌀쌀한 산바람이 휘우— 불어내려왔다. 봄을 맞는 숲의 꼭 찢는듯 한 청신하고 싱그런 냄새가 아직은 산비탈에 군데군데 남아있는 찬눈의 선뜩한 랭기와 한데 어우러져 얼굴에 확 덮쳐든다.

앞서걸던 박호는 흠— 숨을 들이그으며 몸을 웅크렸다.

(오늘 밤두 산꼬대하려나?…)

박호는 숨웃깃속에 목을 깊숙이 파묻으며 두루뭇쪽을 훑듯 바라보았다. 락조의 마지막여광이 멀리 들쭉날쭉 툽날처럼 흘러간 산발들너머에서 사물사물 스러져가고있다. 그우 군청색하늘에 별 하나가 어느새 빠끔히 눈을 떴다. 이곳 두메사람들이 흔히 《개밥바라기》라고 부르는 초저녁 첫별이다.

《이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박아바이가 기다리겠는걸.》

왼팔목을 쑥 들어올려 눈에 바투 가져다대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박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반걸음쯤 떨어진 옆에서 다소곳이 따라걸는 옥님의 입에서는 아무런 응대도 없다.

(?!…)

박호는 흘끔 옥님을 돌아보았다.

《어디 아프니?》

《아니요.》

옥님은 생긋 웃으며 살때살때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인차 웃은 뒤가 없게 또다시 눈길을 땅에 박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에헴…》

박호는 괜한 헛기침을 했다.

둘이는 또 한참이나 말없이 걷기만 했다.

투덕투덕, 자박자박… 두사람의 발걸음소리만이 제각기 마음속에 굴리고있는 서로 다른 속생각들

처럼 맞부딪치면서 인적드문 초봄의 해저문 길위로 구울러갔다....

뒤집을 진채 수긋하고 앞서걸는 중키의 몸집 부한 이 사나이는 예순을 눈앞에 둔 작업반장 박호이다. 그뒤를 따르는것은 도소재지에서 농장에 탄원하여 몇달동안 농장원으로 일하다가 얼마전에 청년분조의 분조장이 된 체대군인처녀 옥님이다.

지금 둘사이의 이 어색하고 거북스런 침묵은 방금전 관리위원회에서 있는 협의회의원때문인지도 모른다.

...각 작업반장들과 분조장들이 모두 참가한 회의는 한시간나마 끝났다.

당면한 봄밭갈이와 씨불임을 앞두고 작업반별, 분조별, 필지별로 농치는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손을 쓰기 위한 협의회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아흐레갈이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군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었다.

그 한고리로 매 농장마다 한개 포전씩 선택하여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도록 본보기를 창조하고 매년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로 하였는데 박골에서는 아흐레갈이가 뽑혔던것이다.

회의가 끝날무렵이었다.

관리위원장이 안경을 추스르고 원주필뒤통으로 책상을 푹푹 두드리며 다시한번 그루를 박았다.

《내 재삼 말하지만 아흐레갈이는 올해 우리 농장의 얼굴이나 갈단 말이요. 거 체육경기라고 할 것 같으면 아흐레갈이가 우리 농장 선수로 뽑힌셈이거던. 그러니 3반에선 다른 분조농사두 잘해야겠지만 이 아흐레갈이에 각별한 품을 넣어야겠소. 아흐레갈이, 왔소?》

《네!》

높고낮은 남녀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면서 두사람이 함께 일어섰다.

장내에 가벼운 웃음이 일었다.  
이것은 관리위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이곳 박골에서는 아흐레갈이란 포전이름이 곧  
그 포전을 맡은 청년분조의 이름이었고 그 포전옆  
에 자리잡은 3작업반 마을과 작업반을 통채로 이  
르는 말이기도 했던것이다.

박호는 제먼저 사업수첩을 펼쳐들며 옥님을 의  
미있게 돌아보았다.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나서  
서 말할 때라는 무언의 암시였다.

옥님은 살며시 얼굴을 붉히며 앉았다.

박호는 먼저 《어힘.》 하고 목청을 가다듬었  
다. 그 소리는 마치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소 하는 일종의 위엄있는 권고처럼  
자못 무게있게 퍼져갔다.

그렇만도 한 일이었다. 원래 박호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한 말은 그대로 실행하고야마는 손탁이  
센 일꾼이었다. 매사에 타산이 정확하고 맺고 끊  
는 그의 일솜씨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탄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런것으로 하여 젊어 한때는 리에  
서 무슨 돌격대가 조직될 때마다 의례히 그가 대  
장이였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이름대신 《맹호  
대장》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흐레갈이가 농장의 명예를 걸머졌으니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할바엔 2등이나 3등이 아  
니라 꼭 1등을 해야지요, 거림.》

장내에 가벼운 술렁거림이 일었다.

박호는 어깨를 으쓱 추슬러올렸다. 이제부터  
가 기본인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어이 군적으로 1등을 하려면  
관리위원회에서 한가지 꼭 대책해주어야 할게 있  
습니다. 그게 뭐고하니 이번에 우리가 새로 측량  
하여 올려보낸대로 아흐레갈이면적을 고쳐달라  
는겁니다.》

원주필을 다독이던 관리위원장의 손이 툭 멎  
었다.

《그러니까 거 지난해 큰물피해로 잃어진것만큼  
빼달라는 소리겠소?》

《예.》

《왜? 복구 못하겠소?》

《농사철이 코앞인데 로력과 기일이 어렵이나  
있습니까? 그리구 설사 품들여 복구를 한다쳐도  
그쪽은 워낙 물끓이고 심한 랭습지다보니 수확고  
에 지장만 줄뿐입니다. 그 면적을 그대로 안고서  
는 아흐레갈이가 정당수확고를 절대로 높이지 못  
합니다.》

《으—음...》

관리위원장의 입에서 신음소리 비슷한것이 새여  
나왔다. 그의 눈길에 옥님에게 와닿았다.

《분조장동무생각은 어떻게소?》 하며 묻는 관  
리위원장의 말에 조용히 일어서던 옥님은 박호와  
눈길이 마주쳤다. 박호는 여유있는 미소를 지으며  
옥님에게 어서 말하라는듯 넌지시 턱짓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옥님이가 막 대답하려던 말을  
스스로 꿀꺽 삼켜버리게 하는 신비한 반대의 효과  
를 나타냈다.

《저... 반장동지의견대로...》

《음, 같은 생각이란 말이지?》

알겠소, 이 문제 심중하니만치 관리위원회에  
서 다시 토의해보지요.》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별빛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 빗발속에 희  
옅스름하게 보이는 길옆으로 끝간데없이 거뭇하게  
펼쳐진 아흐레갈이벌을 둘러보며 걷는 박호의 생  
각은 깊었다.

고랑마다 희끗희끗 잔설이 남아있는 아흐레갈이  
가 어찌 보면 척 드러누워 큰숨을 거세게 몰아쉬  
는 장년의 사나이같기도 하고 반백의 중늙은이같  
기도 하다. 여기서 호미질을 손에 익히기 시작한  
지도 벌써 서른해가 썩 넘는다. 아흐레갈이의 이  
랑이랑을 제 손금 들여다보듯 하게 된 그 짧은  
나날 무슨 일인들 못 겪었던가.

무더기비, 태풍, 열풍, 때아닌 우박...

그속에서 농사일을 배웠고 분조장, 작업반장  
으로 성장해왔다. 그 나날 박호는 줄곧 이 아흐레  
갈이를 떠나지 않았다.

골안생김새가 꼭 타개서 늙혀놓은 박모양으로  
길둥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박가성씨가 류달리 많  
다고 해서 박골이라 이름 붙었다는 여기서는 아흐  
레갈이가 그중 큰 포전이었고 노란자위였다. 알곡  
수확고도 리적으로 늘 첫자리였다. 그만큼 밭을  
끼고있는 반장의 코대도 높았다.

이번에 아흐레갈이가 본보기포전으로 내정되었다  
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도 박호는 씩 웃었다.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얼마후 박호의 생각은 슬그머니 뒤집  
혔다. 머리속에서 대충 수판을 굴려보니 처음의  
그 자신만만하던 배심이 점차 물먹은 솜처럼 스르  
르 잦아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일감이 엄청나게 많았고 로력 대 실적타산이 도  
무지 맞아들지 않았다.

이젠 기름기가 빠져 거칠어진 땅, 박두한 농사  
철, 모자라는 로력과 비료, 연유, 농기구...

그중에서도 제일 큰 걱정거리는 지난해 장마  
비에 뭉청 잃어진 용수굴과 바른골쪽 끝머리였다.

자갈판으로 변해버린 그 폐허에 흙을 덮어 다시  
밭으로 만든다는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 면적을 그대로 안고 넘어간다는것도  
말이 안된다. 좋기는 잃어진 그만큼 푹 때버리고  
나머지 땅에서 알심있게 농사를 짓는것인데 밭을  
늘군다면 또 몰라도 줄인다는것이 실무적으로 일  
마나 험치 않은 공정인가를 오랜 농사군인 박호가  
모를리 없었다.

(차라리 본보기포전을 다른 작업반에 양보하  
고말가?)

그러나 그것 또한 박호의 자존심과 체면에 도저

히 어울리지 않는 노릇이었다.

좀처럼 좋은 공냥이 떠오르지 않았다. 짧은 시절의 그 용기와 결패는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젠 늙었어, 발도 나도...)

박호는 이렇게 개탄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술이 퍼그나 성글어진 이마우를 문질렀다.

올해농사나 짓고는 아무래도 반장일을 옥님에게 넘겨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대신 어찌면 반장으로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올농사를 기어이 보란듯이 잘 지어야겠다는 욕심만은 굴뚝같이 일어섰다. 바로 그것이 오늘회의에서 면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제기를 하게 했던것이다.

다른 한가지가 또 있었다. 그것은 옥님을 위한 마음이었다.

옥님의 아버지 백성필이로 말하면 이 아흐레갈 이마울에서 함께 자란 박호의 송아지동무였다.

일찌기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 일하던 성필은 몇해전 뜻하지 않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림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골땅을 부탁할 아들이 없게 한스럽구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둘째딸 옥님이가 제대배낭을 멘채로 여기 태를 묻은 고향땅에 탄원해왔던것이다.

옥님은 처음 리합속에 거처를 정하려 했었다.

그것을 안 박호는 필쩍 뛰며 야단을 했다.

제 할아버지, 아버지의 피땀이 깃든 아흐레갈이를 바로 곁에다 두고 오리가 넘는 리합속에 가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며 제잡담 옥님의 배낭과 트렁크를 빼앗아들고 바로 이 길로 씨엥씨엥 앞서걸어 제집으로 데려내왔다. 때마침 아들 정복이가 군대에서 제대되어 농업대학에 가서 공부하다보니령감로친만 단출하게 있던차라 박호는 옥님을 아예 양딸처럼 제집식구로 만들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그런 옥님을 쟁쟁하게 이름 떨치도록 떠밀어 주고싶은것은 박호의 숨김없는 진정이었다. 또 그것은 옥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앞에 진 자기의 의무이고 도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것저것 마음을 많이 쓰다가 오늘회의에서 마침내 그 문제를 제기한것인데 어쩐지 옥님은 그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는것 같지 않다. 아까부터 줄곧 입을 꼭 다물고있는것이 마음에 걸렸다.

침묵은 무언의 긍정이든가 혹은 그 반대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의 진정을 몰라주는 옥님이가 한견으로 야속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옥님에게 굳이 구구한 설명을 하고싶지는 않았다.

이래저래 박호는 지금 어수선했던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마침내 박호는 애써 생각에서 깨어나 손에 들고 있던 담배대를 홀 집어던졌다.

(에라, 모르겠다.

아흐레갈이의 일이 뭐 내 혼자의 일인가? 청년분조의 일이자 작업반의 일이고 또 관리위원회적인 사업이니 땅은 후에 두고볼셈치고 우선 올농사부터 잘해놓고보자. 한치전너 두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애, 빨리 가자, 령감님 기다리겠다.》

《...》

때마침 오늘은 박달신아바이의 생신날이었다. 가서 마주앉아 한대포 나누면서 어쩔수 없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해와 동정을 구하고싶기도 했다....

발머리에 선 아름드리 돌배나무우듬지사이로 달신아바이네 집 불빛이 반기는듯 반짝였다.

## 2

옥님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박호를 따라 박달신할아버지네 집으로 걷는 옥님의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미안함, 면구스러움이 자꾸만 새록새록 솟아오르고있었다.

(이제 할아버지앞에 가서 뭐라 말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집이 가까와질수록 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한다.

옥님의 이 걱정은 괜한것이 아니었다.

박달신으로 말하면 《아흐레갈이 그리고 100년 묵은 큰 돌배나무와 함께 박골의 3대명물》(박호의 표현이었다.)에 속하는 존재였다.

박달신은 올해년세가 아흔하나이다.

장수자로서 박골사람들의 자랑일뿐아니라 아직도 기력이 정정하여 찍하면 손에 흙을 묻히는 실농꾼이고 또 두루봉쪽에 걸리는 구름새를 봐가며 날씨를 어김없이 알아맞춰 농사일에 조언을 주는 고문이기도 하다.

그뿐이 아니다. 젊어서는 분조장, 작업반장으로 도일보사에 원고도 곧잘 써보내는 열성로농통신원이였고 또 명창으로서 농장에술소조의 핵심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술이나 한잔 들어가고 거나해지면 《밭에 곡식이 잘되려면 닭개비풀 뽑아내고...》 하는 타령도 곧잘 불러넘기는 아주 락천적이고 유쾌한분이다. 작업반농사일을 두고 박달신이 제일 관심하는것은 아흐레갈이었다.

전 세기초에 개간되기 시작한 아흐레갈이의 력사가 박달신의 나이와 어금지금하다던지.

그래서인지 박달신은 아흐레갈이를 제집 터밭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살아오고있었다.

지난해 큰물피해때도 해저물도록 발머리에 쭈그리고앉아 눈물까지 글썽해하던 박달신이였다.

그런 박달신네 집으로 찾아들어가는 옥님은 지금 꼭 무슨 죄라도 지은 심정이었다....

《어이구, 우리 갑돌형님네 손녀가 왔구나.》

문소리에 온돌방에서 한쪽엣지를 들썩하던 박달신은 솟제 앞서들어오며 부산을 떠는 박호는 제쳐놓고 뒤따라선 옥님이부터 반겼다.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새 건강하셨나요?》

옥님은 갑신 인사를 올리고 사뭇 정차게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았다.

《오냐. 내사 먹구 노는게 앓을 일이 있냐?》

박달신은 수북한 장미아래 두눈이 없어지게 웃으며 옥님의 잔등을 툭툭 두드려준다. 찾아온것이 무던히도 기쁜 모양이었다.

농마국수를 누르느라 정지간에는 뜬김이 잔뜩 서렸다.

《허, 이거 종자닭 삶는 냄새가 난다?》

박호가 코를 벌름거리며 부엌쪽을 건너다보았다.

《종자닭뿐이겠나? 귀한 우리 옥님이까지 왔는데 있는거 없는거 다 차려야지.》

정지목에 앉아서 한무릎을 세워안고 아들, 며느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훈시질하던 심씨로친 역시 성수가 나서 맞받아넘긴다.

《아이참...》

옥님은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고향사람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옥님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모르곤 했다. 아직은 고향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자기를 두고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치 큰공이나 세운것처럼 떠받들고있는것이다.

아까 회의장에서 가슴에 서려들던 그 아릿하고 서늘한것이 또다시 스며든다.

옥님은 저도 모르게 살며시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그 순간 옥님은 할아버지의 안경에 또렷이 비낀 자기의 눈길과 마주쳤다.

(어마나...)

옥님은 속이 철렁하여 얼른 눈길을 돌려버렸다. 가슴이 쿵쿵 절구질을 한다.

(오늘회의소식을 아시면... 할아버지가 뭐라실가?)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옥님은 금시 온몸이 줄어드는듯싶었다. 반장아저씨와 다른 자기의 의견을 아까 그 자리에서 대담하게 제기하지 못한것이 백번도 나마 후회되었다.

(난 정말 땡퐁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제대군인이라는게 자기 량심을 속이다니...)

군사복무시절에는 있을수도 또 있어본적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옥님은 저도 모르게 도톰한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자기를 꼬집기라도 하듯 손톱을 제 손바닥에 아프게 꼬옥 찔러박았다.

그런 옥님의 속내를 알리 없는 박호는 제깬에 기분이 흥그러워져서 박달신에게 청을 들이댔다.

《자 아바이, 오늘 좋은 날인데 거 〈밭에 곡식이 잘되려면〉 하는거나 한곡조 뽑아야지요?

애 옥님아, 너두 한곡 준비해라.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아이참, 반장아저씨 정말, 난 속상해그러는데...)

옥님은 더더구나 민망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그 소리를 못 들었는지 박달신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언가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보라구 반장, 내 듣자니까 자네 요새 뭐 아흐레같이 저쪽끝머리를 때버릴 궁털 한다면서? 그게 잘하는 일갈지 않아.》

《아니, 아바이가 그걸 어느새?...》

박호가 화들짝 놀라며 툭 굳어졌다.

《그게 어떤 땅이라는거야 임자도 잘 알지 않나? 그걸 되살릴 생각을 해야지 때버리려고 하다니? 그러단 자네 죄가 돌아.》

박달신의 목소리는 엄했다. 잠시 눈을 꼭 감고 있던 박달신은 움쭉 몸을 일으켰다.

《가만, 내 오늘 옥님이한테 뭘 보여줄게 있느냐라.》

박달신은 옷방 시렁에 엎어두었던 학습장들을 한아름 안고 내려왔다. 하나같이 손때가 묻고 귀퉁이들이 닳아서 보풀이 인 색깔은 책들이었다.

《자, 이게 내가 젊어서부터 써오던 농산일지책이랄가, 일기라 할가. 우리 아흐레같이의 래력이 여게 다 적혀있다. 네 할아버지도 이속에 있지. 한번 읽어봐라.》

그렇지 않아도 무료하고 웅색하여 몸이 솔갑던 옥님은 공손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수십년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묵직한 책들이었다.

박달신과 박호는 또다시 마주앉아 옮겨니 그르거니 하면서 방금전의 땅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

한열에 돌아앉아 농산일지를 소중히 쓰다듬는 옥님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이런 책도 있었구나!)

옥님은 맨우에 놓인 첫 책을 펼쳤다.

퇴색한 종이, 색깔은 보라색잉크의 투덕투덕한 글씨들... 저 멀리 세월의 언덕너머로 아득히 멀어졌던 나날들이 옥님의 눈앞으로 어줄어줄 마주 달려오고있었다.

...

1954년 ×월 ×일

오늘 윈한개의 땀기발들을 하나로 합치는 공사가 끝났다. 해방전 자기 밭에서 추어낸 돌들로 저저마다 지경을 쌓아 두루봉에서 내려다보면 꼭 돌그물을 씌워놓은것 같던 땅이 마침내 하나의 큰 포전으로 변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영예군인세 포위원장 백갑돌형님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절룩거리리는 다리로 힘겹게 오가며 먼저 제집 지경돌무지부터 허물어 밭기슭에 내가느라 땀도 많이 흘렸다.

달빛이 흰한 돌배나무아래에서 세포위원장은 격정에 넘쳐 웨쳤다.

《이건 당정책을 받들고 우리 박골땅에 태어난 협동화의 첫 싹이요!》

우리는 모두 그에 호응하여 손이 아프도록 힘껏

박수를 쳐냈다.

두루봉마루에 걸린 달도 병실병실 웃는 밤이었다.

1954년 ×월 ×일

새로 생긴 포전의 봄밭갈이를 오늘까지 전부 끝냈다. 세틀의 가대기로 사흘이 걸렸다.

《야, 크긴 크구나. 그러니 아흐레갈이인셈이구나.》

누군가 감탄했다.

그래, 반나절갈이도 못되는 꽤기밭들이 모아지고 합쳐져 옛날 지주들도 부러워 입 못 다물 아흐레갈이로 된것이다.

우리는 밭이름을 《아흐레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하루갈이라도 가져보는것이 평생소원이던 두메산골사람들이 아흐레갈이의 주인들로 되었다!

1954년 ××월 ××일

협동조합의 첫해 결산분배를 했다.

모두들 힘을 합쳐 농사지으니 일은 흥겨우면서도 알곡과 현금수입은 곱절이나 많아졌다고 손가락을 꼽아보며 좋아한다.

그 모습들을 둘러보는 내 마음도 흐뭇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런데 갑돌형님의 안색만은 그리 밝지 못하다. 아흐레갈이에서 더 거둘수 있는 수확을 내지 못했다는것이다.

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원 형님두, 올해야 관개공사두 해서 땅이 생겨 처음 보는 풍작인데 뭘 그러시우?》

《아니요. 여름에 보니 아흐레갈이가 뽕병을 심하게 앓고있습데. 땅밑에 찬물이 흐른단 말이요.

래년초엔 어떻게 하나 뽕습지개량공사를 해서 찬물을 쭉 뽑아버려야겠소.》

정말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뛰는 불덩어리같은 사람이다.

1955년 ×월 ×일

온 박골이 부글부글 들끓고있다. 남녀로소가 다 떨쳐나섰다. 뽕습지개량공사가 마감고비에서 다 그쳐지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세포위원장은 제 손으로 그린 도면을 돌배나무아래에 척 내다걸어놓고 주먹을 높이 들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날의 개인농들이 아닙니다. 하나로 뭉쳐진 우리 힘은 백배, 천배로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도면에 그려진대로 아흐레갈이에 일곱개의 큰 물도랑을 뚫다. 거기에 막돌들을 가득채워 넣고 그우를 참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덮적운다음 흙을 덮었다.

세포위원장은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양심적으로 든든히 다져넣어야 한다고 몇번이나 곱씹었다.

그런데 나는 며칠전 승벽심에 눈이 어두워 남 못 보는 어슬넛에 돌을 대충 쌓고 덮었다가 갑돌형님한테 된경을 찼다. 막돌달구지를 끌고 지나가던 소가 발이 푹덩 빠지며 발목을 접질렀던것이다.

그날 밤 나를 데리고 밭으로 나온 갑돌형님은 덮적은 흙을 내 손으로 다 파제끼게 했다. 그리고 그 술한 돌까지 다 꺼냈다가 하나하나 다시 쌓기 시작했다. 뼈속까지 젖어드는 얼음같은 찬물 속에 들어서서 성하지 못한 몸으로 큰 돌을 안고 모지름을 쓰는 세포위원장을 보느니 차라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형님,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구려. 내 손으루 다시 잘 쌓으리다. 이거야 어디 사람이 견디겠소?》

세포위원장은 아무 대꾸도 없이 수직수직 돌만 쌓아나갔다.

우리가 돌을 다시 쌓고 흙을 다 덮었을 때는 먼동이 떠오르고있었다. 그날 밤의 일이 어혈이 되어 갑돌형님은 종시 자리에 드러눕고말았다.

1956년 ×월 ×일

우리 아흐레갈이가 신문에 났다.

풍년든 발머리에서 세포위원장이랑 함께 찍은 우리의 사진도 실렸는데 갑돌형님은 기뻐서 웃고있었다.

그런데... 그후 형님은 애석하게도 저세상사람이 되고말았으니... 세상에 이런 억한 일도 있단 말인가.

기자가 온 그날 병석에 누워있는 형님을 업고 나와 찍은 이 사진이 그가 우리와 함께 남긴 마지막모습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앓는 사람갈지 앓게 저 멀리 어덴가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있는 그 모습, 눈썹리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진 강냉이바다를 등지고 희열에 넘쳐 서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보며 우리는 목놓아울었다.

잊지 않으리라. 고향의 정든 땅 아흐레갈이와 더불어 그가 이 땅에 남기고간 그 고귀한 웃음을 우리는 영원히 가슴에 안고살리라!

...

옥님은 울고있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이 옛사람들의 후더운 숨결우에 꽃송이를 덧엮고있었다.

(아... 고마운 나의 할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도 소중한 넋을 부락으로 묻고가신 할아버지...

순간이나마 그 숨결을 잊을번 했던 이 손녀를 용서해주세요.)

그 순간 옥님은 지금껏 자기를 괴롭혀온 그 까닭모를 야릇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비로소 똑똑히 깨달았다.

그랬다. 땅은 결코 버릴수 없는것이였다. 한치도, 단 한치도 소홀히 할수 없는 무겁고도 뜨거운것이 이 나라의, 내 조국의 땅이였다. 복무의

나날 초소에서 가슴에 깊이 새겼던 그것을 내가 어찌하여 벌써 잊을번 했을가?

군복을 벗었다고? 아니, 아니야, 마음의 탕개가 풀어진탓이야, 어느새 바빠면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려는 그런 못난 타산이 머리속에 싹트기 시작했을까?

오늘의 꽃은 어제날의 자양분에 뿌리를 박을 때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그 진리를 그리고 삶의 뿌리가 내리는 그 땅을 넓이로만이 아니라 깊이로 볼줄 알아야 한다는 군사복무시절의 생활의 수업 을 어찌하여 벌써 잊으려 했을가?

옥님은 죄스러웠다.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더더욱 눈물이 났다.

눈굽을 훔치는 옥님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박달신이 말했다.

《그래 옥님아, 할아버지를 잊지 말어라. 내 오늘 이걸 다 네게 넘겨주겠으니 이제부터 네가 건사하거라.》

《고마워요,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흐레갈이의 어제날이야기를 마저 읽은 옥님은 설레이는 가슴을 견잡기 어려워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오늘 밤은 잠자리에 들어도 잠들것 같지 못했다.

《애, 너무 늦지 말어라.》

등뒤에서 잠에 취한 박호의 걱정소리가 들렸다.

발길 가는대로 걷는것이 저도 모르는 새에 돌배 나무밑에까지 왔다.

할아버지의 체취가 어린 사연깊은 돌배나무, 이젠 아름이 벌게 자란 돌배나무로서는 보기 드문 거목이다. 아지가 무성하여 여름이면 땀별을 가려주고 겨울이면 눈을 가려주는 이 나무밑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은 얼마이고 깃든 사연은 또 그 얼마일까?

옥님은 나무를 올라다보았다.

하늘엔 별이 찬란하다. 별들은 겨끔내기로 나무 아지들을 헤치며 옥님을 내려다본다. 옥님에게는 그것이 꼭 사람들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저기 크고 밝은건 할아버지눈빛 그리고 저건 아버지, 저기 아물아물 정답게 웃음짓는건 초소에 두고온 나의 전우들...)

이렇게 맘속으로 뇌이느라니 그 별들이 다투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왜 그러고 셧나요? 분대장동지.》

《우리가 도울건 없습니까? 분대장동지.》

(그래, 있어요. 있어도 많아요.

내가 병사시절의 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조국의 한치 땅을 위해 자기를 바치던 군인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자주자주 찾아와서 일깨워주어요, 동무들...)

초소에서 목소리를 합쳐 읊던 시구절들이 가슴에 메아리친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그 시절, 그 전우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그래 동무들, 내 배낭엔 용사들의 피에 젖은 그 전호가의 한줌 흙이 지금도 소중히 간직되어있어. 나의 군사복무는 끝나지 않았어. 수호자의 삶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어...)

옥님은 종주먹을 꼭 그러쥐었다.

(어떻게 하나 반장아저씨 설복해서 아흐레갈이를 복구할테야, 그걸 그대로 놔두고 올농사를 암만 잘 지어야 내 맘이 편할가?! 설사 계획을 넘쳐하고 꽃다발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걸 들고 이 아흐레갈이앞에, 돌배나무앞에, 저 눈부신 별빛들앞에 어떻게 얼굴들고 나서...)

옥님은 맘속으로 여문 결심을 단단히 박아넣었다.

이 순간 옥님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번개치듯 스쳐지났다.

가만, 아흐레갈이를 복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도랑건너 그 웃쪽에 있는 벼락소들포전까지 합친다면?... 하는 착상이 문득 떠올랐던것이다.

큰물이 젖던 골개물자리에 아름드리콩크리트 판을 묻고 흙을 두툼하게 덮쳐우면 두 발을 하나로 이어놓을수 있을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장마철마다 두 산골짜기의 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큰물이 나군 했다. 그중 웃쪽 용수골에서 나오는 물을 새로 도랑을 짜서 벼락소로 뿜아둘리면 물량이 썩 줄어들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른골 한 골짜기의 물은 콩크리트잠판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을것이다.

옥님의 가슴은 세차게 달아올랐다.

옥님은 아예 새 물도랑 팔 자리와 콩크리트잠판 뿜을 자리를 밝아보고와 전지를 켜들고 벼락소들 쪽으로 향했다.

자락자락, 발밑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다. 전지불빛에 장독만 한 돌들이 어둑서니처럼 불쑥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옥님은 무서움도 몰랐다.

하자, 어제날 할아버지들은 맨손으로도 그 거창한 뿜습지개량공사를 했는데 지금이야 자동차, 트랙도르도 있고 청년들도 많은데 조건이 좀 좋은가.

(아이참, 내가 이 좋은 생각을 왜 이제야 했을까?)

자기의 착상에 흥분된 옥님은 험한 길을 헤치는 중에도 기쁨이 넘쳐나 방그레 웃음을 지었다.

하늘에선 별들이 웃고있었다.

### 3

이튿날 새벽 박호는 창밖에서 분주스런 까치소리에 눈을 떴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려나?)

생각을 더듬어보았으나 별다른 새 소식이 찾아들 일은 없다. 오히려 선잠으로 떠오르는것이 어제 밤 박아바이한테서 된 꾸지람을 듣던 일이였다.

《…자네 죄가 돌아.》 하던 박아바이의 말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저미는 것이었다.

오래간만에 술까지 몇잔 한탕인지 머리속도 그닥 개운치 않다.

옷방을 넘겨다보니 옥님은 어느새 나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종종 저렇게 날이 밝자바람으로 달려나가곤 하는 옥님이었다.

박호는 뚱한 기분으로 아침을 몇술 뜨는 등마는 등 하고는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소? 이른 새벽에…》

돼지물을 주고 들어오던 마누라가 멈춰서며 의아스레 물었으나 대답도 않고 문을 나섰다.

아흐레갈이를 향해 스틱스틱 걸음을 옮기는 박호의 마음은 번거로웠다.

사실 박호도 아흐레갈이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잊혀져 사회가 섞인 변명을 안고 박달신부터 찾아갔던 것인데 오히려 통탄 맞고말았다.

지금 박호의 마음속에서는 두가지 생각이 서로 싸우고있었다. 공사를 벌여놓자니 농사차비가 걱정이었고 발면적을 줄이자니 사람들의 욕이 두려웠다.

(혹시 군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난해 큰물때 피해입은 밭이 이곳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동산마루에 해가 빠주름히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병풍처럼 골을 둘러싼 산발들에서 서리꽃들이 눈부시게 반짝거린다. 개울을 건느면서 보니 녹아떨어진 얼음장 몇덩어리가 등등 떠내려온다. 씨불임철이 달음쳐오고있었다.

돌배나무가 서있는 아흐레갈이밭머리를 돌아서던 박호는 벼락소들쪽에서 마주 달려오는 옥님이네와 마주쳤다.

어찌된 일인지 청년분조원들 거의모두가 함께 온다. 새벽공기를 함뿍 머금은 그들의 온몸에서는 젊음의 활기와 열정이 넘쳐나고있었다.

앞에 선 옥님의 양볼은 능금알처럼 빨갳다. 두눈에는 웃음이 잔뜩웃고있었다.

《아니, 너희들 웬일이냐?》

《반장아저씨,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모두 함께 가서 돌아보구 오는 길이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옥님은 손에 들었던 종이를 펼쳐들었다.

선자리에서 옥님의 말을 다 듣고난 박호는 놀랐다가보다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끝머리북구공사도 하느나마느냐 아직 결판을 못짓고있는데 이 애들은 또 더 엄청난 공리를 해낸 것이다. 박호는 손사래를 쳤다.

《야, 큰물터자리만 되살리재도 고양이 소대가리 말은 격인데 거기다 한술 더 떠?

어벌뚝지가 커두 정도가 있어야지 원.

아, 이불기장 보구 밭을 퍼두 퍼얄게 아니냐.》

《야, 아저씨…》

《반장동지, 해봅시다.》

젊은이들은 박호를 둘러싸고 떼 절반, 응석 절반으로 팔을 잡고 흔들어댔다.

《반장동지, 우린 이자 옥님분조장한테서 이 아흐레갈이에 깃든 사연을 죄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흐레갈이를 너무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뭔가 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분조의 막내인 용팔이가 다가서며 제법 어른스레 말했다.

박호는 땡한 눈으로 멀거니 용팔이를 쳐다보았다. 그 말에는 뭐라 대답할 소리가 없다. 이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박호는 입만 찻찻 다셨다.

잠시후 그들은 어미닭을 따르는 병아리무리처럼 반장을 둘러싼채 우르르 탈곡장으로 향했다.

잊혀져 관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한 간단한 작업반모임이 있는 것이다.

웃고 떠들며 활기에 넘친 젊은이들속에 끼여 건느라니 박호의 마음도 어지간히 풀리고 밝아졌다. 그대 푸념처럼 제속을 털어놓았다.

《이녀석들아, 그제 좋은 일이라는거야 난들 왜 모르겠니? 하지만 너희들두 생산을 책임져봐라. 타산하구 걱정할 일이 한두가지진줄 아니?

그래서 분조장생각은 분조포전만 하구 반장생각은 작업반뺏이만 하다는게야.》

청년들이 웃음을 터쳤다.

용팔이가 시까스른다.

《그럼 우리 생각은요? 밭이랑너비만큼밖에 안되는가?》

《예끼, 이녀석…》

박호는 용팔이의 엉치를 툭 쳤다.

옆에서 팔을 잡고 걸던 옥님이가 생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반장아저씨,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랍니까?》

《뭘데?》

《음… 내가 여기 살다가 도소재지로 옮겨가서 중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 우리 학교에 〈아바이선생님〉 이라고 불리우는 력사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참 특이한분이었어요. 언제 봐야 머리칼 한오리 흩어진것 없고 옷차림도 단추 하나 벗겨진것 없이 단정하셨는데 지어 걸음걸이조차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운동장을 비자루로 쓸어놓으면 우린 그우에 똑같은 간격으로 곧게 찍힌 그 밭자국만 보고도 력사선생님이 출근하셨구나 하는걸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지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간은 매 밭자국마다에 자기의 한생을 새긴다는 것이었어요.》

《허허, 거 재미있구나. 그래서?》

박호는 저도 모르게 옥님의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하루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달후에 학습장검열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장정리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았답니다.

그때 그날부터 난 학습장정리에 각별한 원심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날 난 실수하여 역사학습장에 그만 커다란 잉크얼룩을 만들어놓고말았어요.

이걸 어쩌나?... 난 울상이 되었답니다.

생각던 끝에 난 못쓰게 된 그 한장을 깨끗이 뜯어버리고말았어요.

마침내 학습장을 검열하는 날이 왔어요.

선생님은 내 학습장을 보시더니 옥님학생이 글씨도 곱게 쓰고 학습장정리도 깨끗이 했다면서 그것을 높이 들어 펼쳐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글씨... 내가 뜯어낸 종이와 맞붙어 있던 뒤장이 펄펄펄 떨어져내리는게 아니겠어요? 교실안에서는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답니다.

학습장을 훑어보고 사연을 아신 선생님의 얼굴은 엄해지셨어요. 선생님은 말씀했어요.

〈동무들, 학습장의 종이 한장한장에는 조국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학생동무들의 성장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잘 썼든 못 썼든 그것은 엄연히 자신의 배움의 과정, 성장의 기록으로 시간속에 남습니다.

잘못 쓴 한장을 뜯어 내버린다고 하여, 후에 다시 써넣는다고 하여 흘러간 그 시간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결코 미화할수도 보상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글 한자를 쓰고 발자국을 하나 찍어도 그것이 곧 가면 다시 못 오는 시간속에서 자기 삶의 기록으로 새겨지는 과정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시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교실이 떠나갈듯 한 우렁찬 대답이 울렸습니다.

난 그만 책상에 얼굴을 묻고말았어요.》

약속이나 한듯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 침묵에 박호는 은근히 거북스러워졌다.

《옥님아, 재민 있는데... 너 그 소린 왜 갑자기 꺼내냐?》

옥님은 보조개를 움푹 파며 썰썰 웃었다.

《음, 오늘 아침에 어쩐지 그때 생각이 나서... 아이참, 그저 그렇다는거지요 뭐.》

옥님은 웃으며 시치미를 뻗으나 박호는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한것이 슬며시 얹혀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애들이 묘한 방법으로 날 교양하려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뇌리를 스쳤다.

《인간은 매 발자국마다에 자기의 한생을 새긴다.》

력사선생이 했다는 그 말이 바로 자기에게 한

소리이거나 한듯 귀전에 다시 울린다. 아마 그래서 요 당돌하고 감쪽한것이 굳이 그 소리를 꺼냈을것이다. 박호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무의식중에 눈길을 떨구고 자기의 걸음새를 보았다. 저벅저벅 옮겨지는 마른 흙이 잔뜩 달라붙은 자기의 몽툰한 숨신코숭이, 그옆에서 옥님의 곤청색편리화가 춤추듯 경쾌하게 엮바뀌고있다.

함께 걸긴 해도 오늘의 새벽걸음이 서로의 생활에 판판 다른 자욱을 남기고있는것 같다.

학습장 한장에도 것처럼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한 그 력사교원이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가? 아무래도 땅문젠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 박호의 마음은 뒤숭숭하기만 했다....

그날 저녁 박호는 옥님을 불러 마주앉았다.

오늘 박호의 머리속에서는 내내 아흐레같이애 대한 생각뿐이었다.

박호는 옥님이가 내놓는 학습장을 끄당겼다.

옥님이가 낮동안 공사와 관련한 수자들을 계산한것이 거기에 한가득 적혀있었다. 옥님은 벌써 군에 있는 군사복무시절의 옛 상관에게 콩크리트판과 세멘트를 부탁하는 전화까지 해놓았다고 한다.

박호는 버릇처럼 입술을 우물우물하면서 학습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한손을 내밀어 원주필을 찾아쥐고 《허, 이건 안돼. 하루 열탕이라니? 거리가 얼마데...》 하고 뽁뽁 지우고 고쳐쓰기도 한다.

그렇게 한참이나 따져보고난 박호는 고개를 들었다.

《게두 구럭두 다 놓칠게 아니냐?》

《게도 잡고 구럭도 건져야지요 뭐.》

《그렇으면 작히나 좋겠냐만... 그래 자신은 있냐?》

《반장아저씨가 잘 도와주세요.》

박호는 대답대신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만 빼금빼금 빨아댔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좋다,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야, 고마워요. 반장동지, 난 꼭 그러실줄 알았어요.》

옥님은 너무나 반가와서 박호의 거쿨진 손을 꼭 맞잡았다.

《고맙긴. 애, 난 뭐 아흐레같이사람이 아니라더냐?》

박호는 싱긋이 웃으며 전화기를 끄당겼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찾았다.

결심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박호의 생각이 옥님의 마음과 꼭 하나로 합쳐진것은 아니었다.

지지고 떠밀어주었다. 농장의 청년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어 아흐레같이 달려왔다.

그들뿐이 아니었다.

늙은이들까지 나와 공사장은 전투장마냥 들끓었다.

돌배나무에 매단 고성기가 기세찬 음악을 뿜어내고 줄지어선 기발들이 손짓하듯 퍼덕이었다.

저녁이면 각 작업반에 나갔던 트랙터들이 흙을 한가득 싣고 넘치는 힘을 뿜내며 달려오곤 했다.

곤색솜옷에 하늘색사출장화를 가쁜하게 받쳐 신은 옥님은 그 트랙터에 못지 않은 정력으로 통통통 뛰어다니며 여기저기를 주관했다. 어쨌든 자기네 분조의 발인 것이다. 옥님은 돌 하나라도 잘못 놓여질세라, 흙살층의 두께가 조금이라도 얇아질세라 잠시도 마음을 늦추지 못하고 살피고 독촉하고 요구했다. 작업장 어디서나 그의 빨간 머리수건이 불꽃처럼 나뭇졌다.

박달신의 모습이 더 장관이었다.

풍신쵸는 흰 수염에 요새로선 보기 드문 노루가 죽둥거리를 걸쳐입고 돌배나무 밑에 척 틀고앉아 지팡이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훈시가 그칠새 없다.

그렇만도 했다. 파헤쳐진 땅속 어느 어방에 샘물샘이 있고 원래 있던 찬물샘기도랑자리는 어디 바루었다는것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달신은 더더욱 성수가 났다. 박달신은 수염을 내리쉴며 법석 뚫어버리는 작업장에 뛰어 들지 못하는 늙음을 한스러워했고 몸을 궁싹거리며 《발에 곡식이 잘되려면...》하고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와 반대로 작업장을 오가는 박호의 얼굴색은 그리 밝지 못했다.

처음 박호는 콩크리트관만 해결되면 온 농장이 달라붙는 조건에서 공사가 기껏 댕새쫂 절릴거라고 타산했었다. 손해본 그 댕새는 거름을 얻어내기 위한 열두바닥파기와 후민산카리생산 그리고 그 찌끼로 강냉이영양단지를 빚는 작업과정에 봉창하리라 속구구까지 해두었었다. 그렇게만 되면 마음속의 시름도 씨원히 털어버리고 체면도 몇뼉이 설 것이었다.

땅을 복구해도 어차피 그쪽은 또 랭해를 받을게 뻔하고 크게 기대를 가질진 못되니 다른쪽에 거름을 듬뿍 더 내서 소출을 결정적으로 높이면 그만이라고 박호는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그의 급한 마음에 비하면 너무나도 더디게 진척되는것만 같았다.

벌써 한주일째다. 박호에게는 흘러가는 한초 한초가 그대로 창자에서 새나가는 난알처럼 여겨졌다.

이젠 발정리가 기본적으로 된것 같은데 옥님은 흙을 조금이라도 더 두텁게 갈자고 자꾸만 욕심을 부린다. 어쩌나 이악쟁이인지 흙을 덮어야

할 높이를 표시한 표말뚝들을 여기저기에 수십개나 박아놓았는데 흙이 그 눈금에 미치지 못했거나 다짐도가 약하면 어김없이 옥님의 눈에 걸려든다.

오늘은 보슬비가 내린다. 이해의 첫 봄비여서 어느때 같으면 반가우련만 박호에게는 봄비조차 그닥 달갑지 않았다. 비옷도 없이 일하느라니 솜옷입은 잔등이 척척히 젖어들어 으시시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신발에 흙덩이가 철떡철떡 묻어돌아가고 발목까지 푹푹 빠져들기도 한다.

《에에, 오새없는 봄비로군. 며칠 더 있다가 오던가 할게지.》

박호는 두루봉쪽하늘에 대고 눈을 흘겼다. 이왕지사 늦은바에 래일 하루 더 할셈치고 오늘은 일찍 작업을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옥님이 보이지 않는다. 줍전까지 물을 먹어 잤아든 흙살깊이를 재어보기도 하고 새로 판 물도랑과 땅속에 묻은 콩크리트관입구로 졸졸 흘러들기 시작하는 물줄기를 눈여겨 살피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오가는걸 봤는데 없어졌다.

《애들아, 옥님분조장 못 봤니?》

《저기 새로 늘군 벼락소들쪽으로 갔어요.》  
(거기야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땅인데 왜 또 갔노?)

박호는 의아함을 품고 저벅저벅 그리로 갔다.

가보니 옥님은 청년분조원들과 함께 한창 발가운데 여기저기 무슨 구멍이들을 파고있다.

《아니, 이진 또 무슨 도깨비장난이냐?》

박호는 놀라서 소리쳤다.

옥님이 허리를 폈다. 발갥게 상기된 옥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반장아저씨, 여길 파헤쳐보니 걸충만 짐스레하지 밀은 온통 사질토예요.》

《그래서?...》

《그래 손을 댄바치고 여기다 부식토를 한 이삼십차 날라다 덧깔았으면 해요.》

박호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야, 이게 정말 세월이 없는노릇이구나. 내 올해 네 풍에 놀다가 끝내 계획 못한 반장이란 소리 듣는가부다. 그렇지 않아두 옛날 맹호가 늙으면서 점점 호박이 돼간다구 뒤에서 수군덕거린다던데...》

박호는 한숨을 풀 내쉬며 개탄했다. 옥님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호호, 참 반장아저씨도 웃기시네. 포전도 되살리고 계획도 넘쳐해서 옛날 맹호대장동지의 본때를 보여야지요 뭐.》

《다 네 말대로 됐으면 좋거나 하겠다.》

박호는 허구프게 웃으며 또 담배 한대를 꺼내물었다. 연기가 풀풀 맥없이 피어오른다.

어쨌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 같으면 이러루한 공사판은 늘 자기가 키잡은대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옥님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며

사정하다싶이 하고있다. 꼭 큰물에 흥떡이며 떠실려가는 통나무신세다.

어느새 이렇게 됐을까? 늙은탓인가?...

어찌된셈인지 요즘은 종종 옥님이가 어려운감이 들군 한다. 박호는 옥님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에 놀랐다.

때마침 휴식을 알리는 짹파리소리가 울렸다.

모두들 허리들을 펴고 우물켜서 발머리에 나가 앉았다.

대다수는 여전히 활기에 넘쳤지만 더러는 옷들이 축축히 젖은데다 덧일감이 자꾸 생기니 얼굴이 찌뿌둥한측들도 있다.

《에, 칩다.》

짹파리를 치던 용팔이조차 흐드득 몸을 뒸다.

《3작업반장동지,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2작업반에서 온 청년 하나가 박호에게 불쑥 물었다.

《허, 이거 3작업반장이 공짜로력이 생겼다고 너무 제 욕심만 채우려는게 아니요?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2작업반장도 끼여들어 맞장구를 치며 걸치고든다.

박호는 억울했다. 급하기론 자기도 그들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데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운다고 옥님이 대신 편잔은 자기가 듣는셈이다. 그렇다고 제 집안일을 내놓고 말할수도 없어 박호는 이마살만 찌프렸다.

애꿎은 벼락소들포전에 대고 눈을 흘겼다.

발을 늘구는게 좋긴 하지만 그닥 탐탁치도 않은 저 땅땸기에 부식토를 덧깔고 거름을 내느라 하루이틀 더 잡아먹을 생각을 하니 또 조바심이 머리를 쳐들고 기가 막혔다.

꼭 꼬리에 불달린것 같다.

(울봄엔 옥님이가 나를 되젠 달구는군.)

그의 속생각을 알기라도 한듯 옥님이가 손뽕금을 메고 나섰다.

《자 동무들, 춥고 힘들 땐 노래가 불보다 낫대요. 우리 노래를 부르자요.》

손뽕금에서 힘찬 선율이 울려나왔다. 청년들이 언제 추워 떨어던가싶게 일제히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팔까지 내흔드는 청년도 있다.

역시 젊음은 젊음이다.

박호는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노래가 끝나자 옥님이가 손뽕금을 벗어놓고 다시 앞에 나섰다.

《동무들, 제가 요전에 학교때 있던 얘기를 하나 했지요? 그 이야기의 계속이랄까 설참에 제가 군사복무때 겪은 일을 한가지 말하겠습니다.》

옥님은 두손을 맞잡고 잠시 저 멀리 산발너머에 눈길을 주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까마득히 잊고있었던 학생때의 별치 않은 그

이야기가 내 기억속에 선명히 되살아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내가 군복을 입은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해 여름이었어요. 그해따라 전연초소일대에는 폐년에 보기 드문 큰비가 내렸어요.》

옥님은 추억에 잠겨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런일 계속되는 폭우, 삼시에 불어나 아름드리 바위돌들도 와르르 툭탁 굴러내리는 시뻘건 흙탕물...

군사분계선을 꺾지르며 흘러내리는 산골물은 무섭게 범람했다.

이런 때 적들이 악랄한 도발을 걸어왔다. 교활한 놈들이 물굽이에 무슨 장난을 했는지 갑자기 세찬 물살이 제 굽을 버리고 우리측 진지쪽으로 사정없이 덮쳐들었던것이다.

땅이 몽청몽청 파헤쳐져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고사총진지에서 쌍안경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옥님네 중대 녀병사들은 놈들의 책동에 치를 떨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바로 이때 최전연초소를 지키던 군인들이 그 세찬 물굽이에 총알처럼 뛰어들었다.

그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겹고 세찬 물살을 가슴으로 막아나서며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런 이들을 교대로 육탄성벽이 되어 싸웠다.

물이 켜 후 옥님네들은 온몸에 부상을 입고 군의소로 후송된 그들을 찾아갔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중대장동지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게 어떤 땅이라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잃는다면 지금껏 그 땅을 지켜 싸워온 수많은 선배 세대들앞에 우리가 뭐가 되겠소?〉

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서인지 그때 나의 눈앞에는 문득 중학시절의 그 학습장이 떠오르고 력사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조국수호의 력사, 내 조국의 력사는 이렇게 이어지고있구나.

가슴속 감동은 컸습니다.

우리는 그길로 그들이 지켜낸 땅으로 달려가 크지 않은 그 땅에 돌도 더 든든히 쌓고 꽃나무도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에겐 초소의 한치 땅, 흘러가는 복무의 하루하루가 무심히 생각되지 않았어요.

앞서간 할아버지, 아버지들 세대의 피가 스미고 땀방울이 고여있는 그 땅이 꼭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삶의 교과서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군사복무의 하루하루는 오늘 우리가 새 종이우에 새겨가고있는 글발과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지워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고쳐쓸수도 없는 그 교과서에 어떻게 어지러운 자욱을 남길수 있겠나요. 그래 나와 우리 분대동무들은 늘 새하얀 학습

장의 새 페이지를 펼쳐놓고 또박또박 글씨를 곱게 써나가는 심정으로 살기 위해 애썼답니다.》…  
속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누군가 뒤켠에서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속살거리는 입속말소리…

옥님이 그윽한 눈길로 아흐레갈이를 둘러본다.

비는 멎었다. 밭고랑에 남아있던 눈이 다 녹아 한결 거뭇해진 무연한 대지는 마치 가슴이라도 들먹이는것처럼 흰 김을 문문 피워올리고있었다.

《반장아저씨 그리고 동무들,

우리 이 땅의 흙 한줌한줌을 무심히 보지 말자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그 어디에나 선열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다루는 여기 아흐레갈이만 봐도 이 땅에 사회주의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바친 우리 전 세대들의 땀이 스며있어요. 그리고 제가 복무하던 저기 최전연초소에는 조국을 지켜, 우리의 한치 땅을 지켜 바친 인민군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어요. 우린 언제나 이 땅에 스며있는 그 피와 땀을 가슴에 안고살아야 해요.

우리 이 아흐레갈이를 더 넓게, 더 기름지게 가꾸자요. 그래서 사회주의협동화의 만세소리를 울렸던 여기서 사회주의강성부흥의 만세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자요.

우리 손으로 이 아흐레갈이를 더 잘 가꿔서 난 알이 첩첩 넘쳐나는 보물창고로 만들자요. 그래서 밝아오는 강성국가의 봄노을을 여기서 남면저 맞이하자요!》

박호의 가슴에서는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호는 황홀한 눈길로 두손을 가슴에 포개안고 희망에 넘쳐 서있는 옥님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가슴에 어쩌면 저리도 크고 뜨거운것이 가득차있을가?!

피는 피구나.

성필이, 자넨 딸을 참 잘 뒀어. 마음놓으라구. 자네나 자네 아버지 세포위원장이랑 우리가 가꿔온 이 땅을 저 옥님과 같은 새 세대들이 더욱 기름지게 가꿔가고있네. 바로 이 아흐레갈이를 말일세.…)

박호는 부끄러웠다.

아흐레갈이의 면적을 줄이려 했던것이, 공사를 부담으로만 여겼던것이 못 견딜 정도로 수치스럽고 죄스러웠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결코 시간이 바빠서거나 일감이 많아서만이 아니였다. 옥님이처럼 이 땅을 진정으로 사랑할줄 몰랐고 전연초소의 군인들처럼 조국의 한치 땅도 피로써 지켜가려는 각오가 무른탓이였었다. 옥님이처럼 땅을 불줄 아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탓이였다.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으로 뉘번 했는가. 박호는 주먹으로 이마를 고였다.

《어험.》 뒤켠에서 박아바이의 목멘 기침소

리가 들린다. 보슬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줄곧 밭머리를 거닐던 령감이다.

《애들아, 너희들 저 옥님이 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이 늙은이의 부탁이다.》

용팔이가 벌떡 일어섰다.

《할아버지, 반장동지, 걱정놓으세요.

우리 꼭 이 아흐레갈이를 기름이 첩첩 흘러넘치는 땅으로 만들겠어요.》

《오냐, 고맙다!》

박달신의 목소리는 갈렸다.

(그래, 고맙다.)

박호도 맘속으로 따라외었다.

이 땅, 아흐레갈이는 오늘 얼마나 미덥고 대견한 새 주인들을 만났는가.

아흐레갈이야, 너는 영원히 늙지 않겠구나, 나날이 젊어만 지겠구나.

박호는 눈굽에 눈물이 펴 도는것을 느꼈다. 뜨거운것이 목을 꺾 치받친다.

박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우쭐 일으켰다. 이 땅 위에 앉아있는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다. 이 순간에는 차라리 흙 한삽이라도 밭에 얹어야만 견디어낼것 같았다.

그것이 구렁이라도 된듯 청년들모두가 와 소리치며 일어섰다.

저녁, 화불이 타올랐다.

부식토를 실어들이는 트랙토르들의 발동소리는 날섹녁까지 멎을줄 몰랐다.

《어, 여기로, 이쪽으로!…》

여느때없이 높아진 박호의 목소리도 발동소리와 어울려 기세좋게 울려갔다.

그 밤중으로 공사는 끝났다.

×

초여름의 한낮 박달신과 박호, 옥님이 밭머리에 나와섰다.

아시김매기까지 끝낸 아흐레갈이는 촘촘히 늘어 서서 사랑살랑 잎새를 흔드는 강냉이포기들로 하여 공간데없이 갈매빛으로 물들었다.

아흐레갈이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상징하는 듯싶은 세사람은 깊은 감회에 젖어 별을 둘러본다.

오늘따라 밭은 무연히 넓기도 하다.

되살아난 땅, 넓어진 땅…

용팔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젠 밭이 이렇게 더 넓어지구 또 지금은 트랙톨로 썩썩 갈아엎는 세월인데 아흐레갈이의 이름을 좀 새맛이 나게 고쳐야 하지 않아요?》

박달신은 단호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이름은 그대로 뒀야 한다.

우리 수령님대에 세포위원장이랑 그때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아니냐.》



# 경축의 열병광장이여

황 명 성

뜨거운 걱정애 젖어  
끝없는 환희애 넘쳐  
총대숲이 설레는  
경축의 열병광장이여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군기총대의 기폭의 펄럭임이  
지축을 흔들며 우뚝치는  
철갑사단들의 철의 동음이  
80성상 다지고다쳐온  
타격장비들의 위용을 펼치는가

아득한 백두광야 천리수해너머  
이갈푸른 밀림의 등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열을 받으며  
첫걸음을 댄 그날의 우리의 무장대오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길  
영광과 승리의 선군길을 걸어왔던가

빼앗긴 나라를 총대로 찾으려고  
수난당한 민족을 총대로 구원하려고  
강철의 령장 수령님따라  
눈보라만리 혈전만리  
간악한 일제의 백만대군을 쳐갈기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였나니

우리 수령님  
백두산에서 안고오신 주체전법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아  
평범한 병사들을 최후승리의 영웅으로 세워주셨고

싸우면 이기는 백승의 신심  
지키면 빛나는 민족의 존엄

천만군민의 심장에 뿌리내려  
백두산위인들의 사열을 받으며  
성스런 년대들마다에  
위훈의 자욱을 수놓은 열병의 광장이여

잊을수 없어라  
백두의 령장 우리 장군님  
**김일성**광장을 누비며 굽이치는 열병대오에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태양의 축복을 담아 보내주시던  
해빛같은 그 미소 뒤흔같은 그 음성

아아—  
오늘은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반미대결전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천하무적의 선군의 총대대오  
그리움을 안고 맹세를 안고  
봄빛 넘치는 4월의 열병광장에서  
불세출의 또 한분의 백두령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열을 만나니

너 세계여 보라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우리 식 성전의 일당백용사로 자라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뭉친 힘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리 깨뜨리지 못하리

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의 혁명무력  
철천지원수 침략자들이 덤벼든다면  
우리 식 성전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줄 배짱과 신심을 안고  
통일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열병대오여!

아, 그 자랑높은 시대의 사람들이 마련해준 귀중한 이 땅, 그네들의 땀과 념원과 부락이 이랑마다 뜨겁게 습배인 삶의 터전—아흐레같이여! 박호는 또다시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박호는 눈길을 들었다. 정든 고향 박골을 품어안고 저 멀리 우줄우줄 흥겹게 파도쳐간 산발을 배경으로 돌배꽃이 하얗게 퍼서 얼크러졌다. 어제날 세포위원장이 해마다 거름을 주곤 했다는 돌배나무다. (올해엔 잊지 말고 내가 거름을 주어야겠어.)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먼저 이해에는 옥님이가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땅으로 달려온 아들 정복이와 함께 거름을 신고와 나무에 물어주리라는

것을 아직은 알수 없었다. 해별이 쏟아져내린다. 쟁글쟁글 내려쳐는 초여름의 해빛은 끝없이 펼쳐진 강냉이바다와 한데 어우러져 들뛰고 춤추며 황홀한 신비경을 수놓는다. 환영이 어려온다. 박호는 지금 보고있었다. 아흐레같이눈 발이 아니라 고향의 력사가 새겨진 두툼한 책이다. 그우에 옥님이네가 고운 글씨로 오늘의 보람찬 새생활을 새겨나가고있다. 어제날의 젊음으로 되돌아간 박호 자기도 그들속에 나란히 이랑을 타고나간다. 잊지 못할 세포위원장... 그네들의 시선을 느끼며...

#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의 생애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 하)에 대하여—

김해월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내놓은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 하, 백보흠)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소설은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푸쑹(무송)에서 활동을 벌리시던 1926년 여름부터 1932년 여름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안투(안도)지구에서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려 민족해방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역사적사실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화사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 하)는 그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참된 인생관과 혁명관을 새겨주고있으며 발전하는 우리 소설문학의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이으시여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가시는 강반석녀사의 끝없이 고결한 애국정신과 위대한 품모를 진실하고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혁명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의 영원불멸할 공헌과 거대한 업적을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이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화디엔(화전)으로 떠나보내신다.

늙은이들은 조상전례의 상제례법과 몽상도의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머리를 흔들며 못 마땅해하였고 맡아드님이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기별을 받고 만경대를 떠나 멀고 험한 길을 달

려오신 리보익녀사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신다. 하지만 아드님이 한 가정의 도의보다 조선독립의 역사적사명감과 현실적촉박감을 더 먼저 새겨안으시고 하루빨리 화성의숙으로 가서 군사와 정치 그밖의 여러 학문을 열심히 배우는것이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효도하는 길이라는것을 생각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신다.

병약한 몸이지만 자제분들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키우기 위해 늘 일감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며느리의 건강이 무척 넘려되시여 리보익할머니께서는 어리신 손자분들을 데리고 만경대로 함께 돌아가자고 하신다. 어려운 생활조건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형수님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김형권동지와 강반석어머니건강에 늘 마음쓰는 리판린도 녀사께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를것을 간절히 말씀드린다. 7년세월 어느 하루 한시도 잊은적 없는 만경대와 칠골고향집 일가분들이 무척 그리웠지만 가슴속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두자루의 권총이 무겁게 안겨져있었기때문에 녀사께서는 떠날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리판린의 간곡한 권유를 끝내 마다하시는 강반석어머니의 심중의 세계를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제분들을 아버님의 지원의 뜻을 이어나갈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열렬한 지향으로 불타는 굳세고 강직하신 녀사의 고결한 자각과 굽힐수 없는 의지에 대하여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아드님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혁명의 령도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령님의 뜻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참다운 동지가 되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어머니께서 지니신 견결한 품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념과 의지에 열렬히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녀사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감동깊이 확인하고있다.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파벌싸움이나 하는 민족주의독립운동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오직 인민에게 의거하고 그들의 힘을 발동해 나갈 때만이 그 어떤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진정한 인민의 새세상을 건설할수 있다는 아드님의 원대한 사회주의경륜을 받아안으시고 어머님께서서는 커다란 충격과 환희속에 잠기신다.

민족주의독립운동의 증견자이시고 체험자이신 녀사께서는 전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아드님세대가 기어이 해낼것이라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이 민족주의독립운동을 분석총화한 토대우에서 결성된 《ㄷ.ㄷ》와 아드님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믿음과 확신속에 자신의 운명에도 전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절감하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신다.

《성주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부터는 오직 너희네 〈ㄷ.ㄷ〉의 사상을 따라가겠다.》

어머님께서 《ㄷ.ㄷ》의 혁명사상을 광범한 군중속에 심어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신 뜻을 받들고 반일부녀회조직을 무어 애국주의계몽교양을 비롯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을 뿐만아니라 푸송지구를 혁명적활기와 열정으로 들끓게 하시려는 아드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합동연예공연의 준비와 그 실행사업에 커다란 정력을 쏟아부어가신다. 또한 혁명의 씨앗을 광활한 대지우에 뿌려가는 《새날》신문의 첫 보급자로서 반일애국선전사업을 과감히 벌리시였으며 장췌린(장작림)폭사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만저우(만주)침략기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조중인민을 단결시켜 반일투쟁으로 궤기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신다.

또한 조직의 리익과 그 력량의 보존강화를 위하여 백산학교를 해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김형직선생님의 분신과도 같은 백산학교에 바쳐진 어머님의 로고와 심혈은 너무나도 큰것이였지만 적들의 탄압의 언질로 될수 있는 백산학교를 주동적으로 해산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신다.

소설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고 그이의 사상과 뜻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참다운 동지가 되신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과 위대한 수령님사이에 흐르는 고결한 사랑과 효도의 세계를 통하여 녀사께서 지니신 가정과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무한하고 위대한것인가에 대하여 감동깊이 펼쳐보고있다.

오래간만에 집에 오신 아드님께서는 병약하신 몸으로 혁명사업에 전심전력하시는 어머님께 제발 몸을 돌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이때 어머님께서서는 내가 혁명을 잘하면 그게 내겐 락이 되구 휴식이 되는것이고 내가 또한 어머니 구실을 잘하면 너에게 기쁨이 되구 휴식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하시며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께 뜨거운 격정과 고무의 말씀을 하신다. 바로 이런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강반석녀사께서는 병이 심하신 자신때문에 선뜻 지린(길림)으로 떠나기 주저하시는 아드님을 등떠밀어보내셨고 샅빨래와 샅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보내는 어려운 속에서도 수시로 찾아오는 아드님의 혁명동지들을 친아들처럼 정성껏 돌봐주시였다.

녀사의 아드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은 적들에게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연예공연장을 떠나지 않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을 적극 찬동하시고 경찰놈들이 옥실거리는 판람석으로 태연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장면과 푸송에서 반동경찰에게 체포되신 위대한 수령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머님께서 대소환의 강추위속에서 긴긴밤을 경찰서앞에서 새우시며 대중적항의와 통성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형상들에서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있다.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만(남만)원정을 앞두고 어머님과 작별하시는 샤오사하(소사하)집 장면은 어머님께서 지니신 사랑이야말로 수백수천만 인민을 위하여서는 가정도 행복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희생정신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일관되어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것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동생을 사랑하신 장군님이시였다. 부대를 찾아온 철주동생으로부터 어머님의 병이 심해진다는 말을 듣고 좁쌀 한말을 지고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몸져누우신 어머님께서 단 며칠이라도 따뜻한 구들에서 지내게 하시려고 그 바쁜 길에 나무를 해오신다. 한 가정, 한 개인이 당할수 있는 고통으로 말하면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그 모진것을 한몸으로 다 겪으신 레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자신께서 당하시는 모든것을 한 나라, 한 민족의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시고 민족이 겪는 재앙을 가시기 위하여 가슴속에 눈물을 묻어두신채 난만원정의 길에 오르신다. 어머님께 작별인사를 올리고 막상 떠나시려니 집걱정때문에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집둘레를 돌

고도신다.

이 기미를 알아차리신 어머님께서는 준절히 타 이르신다.

《네가 좁쌀 한말을 가져다놓고 나무단 백집을 해와도 내겐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다. 너는 오직 아버님의 유언을 지켜야 하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 나라 백성들과 동지들의 소원을 풀어주어야 할 몸이다.》

진정 감동의 눈물없이 볼수 없는 이 극적인 장면은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인정세계를 보여준 불멸의 화폭이다. 지극한 사랑과 효성이 한데 엉키어 가슴뜨거운 인정세계를 펼쳐면서 그것이 혁명의 룰리도덕으로 승화되어 빛나는 데 어머님의 숭고한 인간세계의 아름다움이 있다.

소설은 이처럼 애국의 넓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줄기차게 관통된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인생관, 참다운 혁명관을 다면적으로 감동깊이 밝혀내고있다. 이와 함께 부모자식간의 사랑도 맹목적인것이라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으로 될수 없으며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것으로 된다는 심오한 인생철학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뜨거운 인간애, 열렬한 동포애로 수난속에 헤매이던 각계각층 군중모두를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강반석녀사의 활동과 업적을 풍부한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어머님께서 백산학교 김일준교장이 서울공산당과 연결된 적색분자로 주목되어 일제경찰에게 체포되고 가택수색까지 당하였다는것을 아시고 그의 가족을 안정시키고 김일준의 생사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신다.

왕지주의 모략으로 외동딸에게 첩살이의 치욕을 들씩워놓게 된 자책감과 좌절감으로 외팔이 조서방이 목매달아 자살하였을 때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를 위해 초상제도 성의껏 지내도록 하시며 입심드센 정씨와 그의 남편이 조서방살인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그들부부의 석방을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신다. 어머님의 숭고한 인간애는 한 처녀의 꽃같은 청춘을 지켜주기 위해 왕지주와 사생결단으로 싸우시는 숭고한 모습과 가난한 중국인가정의 갓난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 한밤중에 수십리 초행길을 걸어 소생시켜주시고 그를 투쟁의 길에 이끌어주시는 데서 가슴뜨겁게 형상되고있다. 강반석녀사의 인간애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은 반일부녀회결성모임에서 천대와 멸시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

아온 녀성들에게 이름을 뜻이 깊고 아름답게 새로 지어주시고 그들이 빛나는 생을 지니고 《ㄷ. ㄷ》의 혁명사상으로 굳게 뭉친 강의한 혁명가로 성장하도록 해주시는데서도 뜨겁게 형상되고있다.

소설은 미신에 물젖은 민태감과 일체의 마수에 룡락당하였던 윤해송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다운 재생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해주시는 강반석어머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포용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충강(송강)시내 음식점 안식판 외벽에 그려진 대형만화락사사건으로 애매하게 박치근과 윤현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공산폭동음모가담자로 사형당하게 되었을 때 부녀회원들과 마을사람들속에서 서명운동을 벌리는 한편 무한장과 왕방초와 같은 안투의 포악한 권력자들과 대결하시여 구출하시는 어머님의 투쟁을 감동깊이 펼쳐나가고있다.

소설에서는 쓰다오바이하(4도백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물북에서는 경의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 조희제가, 물남에서는 참의부계통의 류호가 서당훈장질을 하면서 저마끔 자치단체를 조직하고 서로 경원시하던 그들모두를 반일애국의 한길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강반석녀사께서 벌리시는 투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녀사의 웅심깊은 인간애와 넓은 도량에 의하여 완고한 조직제도 원쑤놈들에게 아부굴종한 잘못을 뉘우치고 얼굴을 들고다닐수 없어 딸에게 강반석녀사를 따라 항일구국의 길을 걸어가며 집 재산모두를 애국운동에 바치라는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나가버린다. 류호도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강반석녀사가 독립운동자들의 단합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부인이였다는 큰 충격을 받아안고 선생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어머님께 용서를 빌며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설것을 맹세한다.

소설에서는 착취와 억압속에서 굴종과 수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녀사의 사랑과 웅심깊은 포용력에 의하여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나라를 찾기 위한 애국의 길에서 혁명가로 자라나는 형상을 통해서도 강반석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치욕스러운 앞날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가냘픈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강물에 몸을 던졌던 개똥녀가 어머님에 의하여 새 인간으로 탄생한 조선녀, 무거운 몸이었지만 무기운반의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적들의 총에 맞아 희

# 샤오사하의 작은 집이어

최 준 경

잊지 못할 샤오사하의 초가집사진을  
그 누가 찍어 소중한지 전했는가  
바라보면 바람부는 갈대밭우에  
너무도 수수하게 서있구나  
강반석어머님 혁명위해 사시던  
샤오사하의 작은 집이어

황량한 이국땅의 칼바람 비바람에  
나지막한 초가집 이영은 흩어지고  
연기에 깃들린 나무굴뚝은  
토벽끝에 한적히 서있어도  
얼마나 크나큰 혁명의 넓이  
해방의 봄을 안고 태동했던가

마을의 부녀회원들  
저 집 문턱을 정답게 넘나들며  
강반석어머님의 슬하에서  
혁명의 진리로 눈을 뜬 집  
수령님의 뜻깊은 군복도  
저 집 등잔불아래서 누벼지지 않았던가

들려와라  
한별을 받들어 싸우던 열혈투사들  
반가이 맞으시던 어머니의 웃음소리  
수령님 먼길 앞두고 잠시 들리신 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주위를 돌고 또 도실 때  
싸움길 재촉하시던 간곡한 목소리

아, 항일의 그날  
지성어린 좁쌀 한말 뜨거운 사연도  
달비에 깃든 어머니의 다심한 지성도  
가장 아름다운 샤오사하의 전설로  
처마아래 소중한 간직된 집이어

하여 집은 수수한 농가집이어도  
가슴젖어 눈길 못 떼는 이 마음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과 더불어  
깊이깊이 머리 숙어지는 집이나니

저 갈꽃 날리는 앞뒤뜰엔  
억만송이 꽃을 피워놓고  
저 새초롬인 지붕우엔  
진주보석별무리 엮어놓고싶어라

아, 지붕은 낮고 뜰은 작아도  
저 멀리 백두산을 우러러 서있기에  
고결한 혁명의 뜻으로 높이 돋보이고  
한없이 숭고한 모습으로 안겨오는 집  
유서깊은 만경대초가집과 함께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솟아 빛나리  
샤오사하의 작은 집 혁명의 큰집이어!

생된 조선녀의 형상은 강반석녀사의 뜨거운 사랑 속에 자라난 강의하고 아름다운 녀성혁명가의 참다운 모습으로 된다.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안투현관내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한 신흥촌(홍룡촌)촌장 김춘봉을 단죄하는 군중회합의 승리는 강반석녀사에 의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반일애국의 기동에 굳게 뭉친 각계각층 인민들의 힘에 대한 격동적인 시위로 된다.

장편소설은 반일인민유격대창설을 위해 기울인 신 강반석녀사의 헌신적로고와 심혈을 감명깊게 부각하고있다. 소설은 강반석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적대를 바로 세우고 어머니의 위대한 인간적품도를 생활적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어머니를 고결한 인

품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으로 형상하였을뿐만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을 산 개성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특히 등장인물들을 극적인 정황에 놓고 성격의 주도적측면들을 예리화함으로써 강반석녀사의 이끄심에 의하여 자라나는 인간들의 성격을 훌륭히 전형화하고있다.

소설은 강반석어머님의 형상과 함께 김형권동지와 리보익할머님을 비롯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고있다.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도록 고무추동하고 있다.

## 총대는 이어진다

서현일

나의 길지 않은 경력에서 내가 제일 궁지롭게 생각하는것은 군사복무기간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렇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군대, 조선인민군에서 총잡고 복무한것을 그 어느 시절보다 더 없는 자랑으로, 영예로 자부한다.

그래서 일생의 길동무도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처녀를 선택하였다.

물론 군사복무시절이후 세월은 흘러 혁명의 군복을 벗고 일하는 초소와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는 약속한바가 있었다. 한생 마음의 군복은 벗지 말자고, 총대를 언제나 마음속에 굳게 잡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자고...

그래서 나는 결혼후 아들이 태어나면 끝까지 키워 아버지, 어머니가 땀던 혁명의 총을 또 메워주리라는 희망을 가슴속 가득히 심고 가꾸었다. 그러나 생활은 알곳게도 나의 희망과 기대에 엇드레질이라도 하는지 안해는 딸을 낳았다.

친척이며 동무들이 첫딸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나는 은연중에 펴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이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생활의 어느 평범한 순간에 찾아들었다.

그날은 딸애의 첫돌생일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딸애의 재롱을 즐기고있는 데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안해의 반가운 탄성에 이어 초면의 처녀가 방안에 들어섰다. 활달하게 인사를 하는 처녀의 행동거지에서는 군인의 체취가 확 풍겨왔다.

나의 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듯 안해는 집식구들에게 모두거리로 소개를 했다.

《부대에서 함께 복무한 동무예요. 제대되어 학교시험을 치러 왔구만요.》

반갑게 우리와 인사를 나눈 처녀는 딸애의 옷가지와 기념품을 꺼내놓았다.

기념품에 눈길이 미치자 약속이나 한듯 모두가 《아니?!》하고 외마디소리를 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처녀가 내놓은 기념품은 놀이감총이었던것이다.

《애두 참, 우리 앤 딸이야.》 웃으며 안해가 그 처녀를 가볍게 건드리자 새물거리며 앉아있던 처녀는 제격 대답했다.

《압니다, 분대장동지. 딸이라는걸.》

《그럼 왜 하두 많은 놀이감총에서 처녀애한테 총을 가져왔어?》

밋지 않게 눈을 흘기는 안해에게 처녀는 정색한 어조로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분대장동지나 나나 처녀시절에 총을 메고 군사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날의 그 정신을 심어주고싶은것은 저나 분대장동지네도 다를바 없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딸인줄 알면서도 이 총을 골라잡았습니다.》

순간 나는 가슴에 뜨겁게 마쳐오는 충격을 느꼈다.

총!

이 나라 공민이라면 누구라없이 총과 인연을 맺고 산다.

지난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경력을 가지고있든, 아들딸을 인민군대에 내보냈든, 오늘날에 인민군대에서 복무하든 총과 인연이 없는 가정은 아마 하나도 없을것이다.

온 나라 가정이 총대가정이고 군인가정이며 후방가족이다.

그 어느 집에 문득 들려도 우리는 가족사진과 나란히 가보처럼 걸려있는 조선인민군입대증과 군사복무시절 입었던 땀배인 군복들을 하나의 풍경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인민에게 간직되어있는 당과 수령,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어느덧 마음은 승엄해져 우리 조국을 이렇듯 세계에서 제일 강위력한 자위의 나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우렁치 않게온다.

위대한 백두산총대가정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신군령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워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총을 언제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로 귀중히 간직하셨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대국상을 당한 조선이 이제 과연 어느 길로 갈것인가.

온 세계가 우리를 지켜볼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할 주체강국을 일떠세우시려 혁명의 총대를 백승의 보검으로 더 높이 추켜드시었다.

신군령도의 나날에 찾으시는 인민군군부대 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안겨주시며 떠나서는 못살 그리움의 정을 남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깊고깊으신 숭고한 뜻과 믿음을 우리는 잘 안다.

# 나의 조준경 속에

조 광 철

언제나 나의 조준경속에  
철천지원쭈놈들의 물결이 들어있다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토를 향해  
침략전쟁의 순간을 노리는 네놈들에게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역적패당에게  
우리 식 전쟁맛을 보여주기 위해

변함없는 그 조준경 한복판에 침략자 미제와  
만고역적 리명박역적패당이 잡혀있다  
우리 식 성전 우리 식 전쟁방식을 모르고  
제법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떠드는  
대결광신자들의 가증스러운 물결이

매일 매 시각 저지르는 범죄는  
특대형의 반역범죄이기에  
병사의 조준경이 놓칠수 있으랴  
한계없는 우리 무자비한 타격의 제원속에  
최악의 소굴이 송두리채 잡혀있다

날날이 다 들어있다  
《비핵, 개방, 3000》의 어리석은 개꿈  
《기다리는 전략》 《인권》 타발도  
이미 벗겨진지 오랜  
《신평》과 《진정성》의 악취나는 허울도

일단 조준경에 든 원썬들

선군의 불벼락이 용서할소나  
또다시 원썬들 덤벼든다면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우리의 불마당질에  
대양전너 원썬무리들도  
한갓 부나비신세 면치 못하리니

보았느냐 원썬들아  
지구상의 제국주의떼무리들이 덤벼든대도 끄  
떡 없는  
백승의 총구가 번뜩이는 최전연  
판문점초소의 병사들과 함께 계시는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의 담력과 배짱을

만일 네놈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 네놈들의 운명이 끝장임을  
1950년대 수치스러운 정전협정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만이 있으리라것을

그날을 기다려  
나의 조준경 백두산강군의 모든 제원속에  
네놈들을 모조리 잡아놓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린다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사격준비 끝!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  
이기에 장군님따라 선군의 길을 곳곳이 걸어왔고  
오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움없는 정  
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거연히 일떠섰다.

그래서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의 업적을 천추만대를 두고 길이 잊지 못  
해하거니...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총과 함께 시작  
된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었으며 총대로 모진 시  
련과 난관을 헤쳐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군인, 백두령장의 빛나는  
한생이다.

오늘 우리는 저 멀리 금수산태양궁전의 하늘가  
에 못 잇을 그리움의 노래 떠설어보내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른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총천 천만군민은 천백배로  
몽쳤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의 수뇌부 결  
사용위할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뚫인다.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인민  
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  
전시키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와 더불어 후손만대 길이  
빛나며 총대로 승리해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

그 앞날을 위해 우리 천만군민은 총을 더 으스  
러지게 들어친다.

어느덧 나의 안해도 같은 생각에서인지 발짓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나와 안해는 하나의 생각  
으로 심장을 뚫이고있는것이다.

후날 나의 딸애도 우리가 그러했듯이 혁명의 총  
을 메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리라. 그리고 혁명군대  
의 군복을 입고 총을 땀던 처녀시절을 가장 큰 영  
예로, 공지로 추억하며 살리라.



# 우리 삶의 극로

김 경 일

1

봄꽃을 품은 제비꽃이 길옆에서 파릇파릇 고개를 솟구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여름이다. 유보도의 푸른 잔디밭에선 하얗고 노란 꽃들이 아침해빛을 향해 싱긋벙긋 웃음을 짓고있다. 기초식품공장 식료기계기사인 신해는 활기찬 걸음으로 출근길을 다그치고있었다.

문득 신해는 사람들의 흐름속에서 진석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무슨 책임가에 정신이 팔려 고르지 못한 걸음을 옮기고있다. 늘쌍 저랬다. 올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무엇이 그리도 성차지 않은지 오고갈 때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나 꾸준히 책과 씨름을 하고있다. 신해의 경우엔 대학졸업후 얼마동안은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듯한 명쾌하고 양양된 기분에 들떠 책에 선뜻 손이가지 않았었는데... 다그쳐가 썩 지나쳐볼까? 필경 아무런 효과도 없을것이다. 끝내 머리를 쳐들지 않을테니까. 진석이 대학에 가기 전의 일들이 떠올라 신해는 부지중 한숨을 내그었다.

진석은 제대되어 한동안 이곳 기초식품공장에서 일했었다. 이미 신해가 공장에 혼치 않은 처녀기사로 쟁쟁히 이름을 떨치던 때였다. 처음엔 그의 모습을 무심히 스쳐보곤 했는데 뜻밖에도 진석이 기술혁신조에 망라되게 되었다. 전차병출신인 그가 기계속에 밝아 장생산공정의 기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진석은 결사사람들이 의미있게 마주보며 눈섭을 찡긋거릴만치 신해의 곁을 맴돌았다. 짬만 있으면 성가실만큼 많은것을 물었고 늘 그의 곁에 다가와 콤퓨터작업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누군가가 룡을 섞어 혼계했다고 한다.

《우리 신해기산 가시를 숨긴 꽃이랄지, 언저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이랄지, 얼마쯤 거리를 두고 지내는게 좋아. 지내 다가섰다가는...》

그때 진석은 신중히 조언을 받아들일 대신 《불발탄? 그렇다고 다들 움츠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

구든지 목숨걸고 나서서 해제해야지.》하며 제법 한손을 허리에 짚었다던지?

그 말을 전해듣고 신해는 픽 웃어버렸었다... 누군가가 찾는 소리에 놀라서 돌아보니 기술혁신조에서 함께 일하는 동생벌의 철민이였다.

《찾는 소리도 못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신해는 대답대신 설편 미소를 보였다.

자연 걸음이 빨라져 공장구내에서 진석을 따라잡게 되었다. 철민이 아침인사겸 신해의 어깨너머로 진석에게 말을 건넸다.

《진석동진 대학때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지요? 늘 보충하는걸 보면, 하하.》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이던 진석이 신해와 눈길이 마주치자 싱긋 미소를 보이며 뒤에 처진다.

《진석동지, 인차 우리한테 올겁니다. 요즘 부쩍 물망에 오르던데...》

철민의 말이 그럴사했다. 지금은 간장작업반 현장기사인데 대학때부터 해온 《ㅎ》단백풀에 의한 간장생산연구를 실험실적단계에서 거의 성공시켰다고 한다. 끊어졌던 회상의 고리가 다시 이어진다.

...그때 진석이 감탄과 동경의 눈빛으로 줄곧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룡조로 시까슬러도 신해는 한모양으로 침착했다.

총각들이 처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것은 대개 처녀 역시 자기를 눈여겨보아달라는 뜻에 가깝다. 몇해전 신해가 대학을 졸업하고 온 초기엔 공장안팎에서 제노라 흰목을 쓰는 총각들중에 그처럼 려치없이 신해를 뵈히 쳐다보거나 지어는 선심이나 쓰듯 교제를 청해오는축들이 없지 않았다. 그럴 때면 신해는 속눈썹이 붓끝같은 눈을 살뜰이 내리뜨며 상긋이 미소를 짓곤 했는데 총각들은 인차 그 산산한 미소에서 《저와 대상이 되게요?》하는 너무도 선명한 의미를 포박포박 읽어낼수 있었다. 읽고나서는 맹렬한 코웃음으로 손상당한 자존심을 벌충했다.

《쳇, 숨털도 나지 않은 풋내기가 제법...》



그러나 신해는 오래지 않아 그 미소의 참다운 가치를 실천으로 증명해보였다.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숨죽였던 기름작업반의 전처리공정인 편속식 배아건조기와 자석분리기를 원상복구해냈으며 먼적외선복사체식건조기를 새롭게 창안도입하였다. 그리고는 손로동이 많아 정밀도와 무균화가 보장되지 못하는 된장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접어들었다. 코웃음을 치던 총각들은 깜짝 놀라 먼산을 바라보며 사뭇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오랜 기능공들이나 관리일꾼들은 흐뭇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들은 몇해전만 해도 이 공장의 가장 유능한 기계기사였던 신해의 말오빠를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공장에서는 곧 기술혁신조를 조직하고 식료공학과 기계공학전문가들을 망라시켰는데 여기에서 신해가 주동적인 역할을 맡아하게 되었다. 진석이 기술혁신조에 온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성격이 대바르면서도 어딘가 산산해해보이는 신해의 마음속깊이에는 따스한 인정미와 함께 아직은 체험해보지 못한 참된 애정세계에 대한 연연한 호기심이 남몰래 숨겨져있었다. 그는 영민한 얼굴에 무엇이든 배우려는 의욕이 남다른 진석에게 차츰은근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날 신해가 잠간 자리를 비운 때였다. 그의 컴퓨터로 다가온 진석이 마우스도 움직여보고 건들도 눌러보다가 그만 컴퓨터체계를 헝클어놓았다.

인츰 돌아온 신해는 아연실색했다. 체계의 파괴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작업중에 있던 프로그램이 기억기에 복사되지 못한채 가뭇없이 류실된것이다. 신해는 다급다급 쌓여지던 신뢰와 호감을 찰나에 잊고 모멸과 련민이 뚜렷이 엇갈리는 선명한 눈빛으로 찬찬히 진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가를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과 있으나마나한 사람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주는 사람... 진석동지는 자기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진석이 모욕당한 자존심의 반발로 항변을 하기라도 했다면 신해는 이후에 그를 아예 무시해버렸을지 모른다. 그런데 진석은 숨을 죽인 컴퓨터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머리를 숙인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후에 마주서도 그저 서글픈 눈빛이였다. 남들이 보기와는 달리 마음이 여린 신해는 진석에게 미안해졌다. 언제든지 기회를 보아 필경 구겨졌을 그의 마음을 풀어주리라 버르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진석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고 인차 대학으로 떠나게 되었다. 끝내 신해는 기회를 놓치고말았다.

공장의 젊은축들이 펼쳐나 역에서 진석을 바래왔다. 얼핏 신해를 띠여본 진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잠시 신해를 지켜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난 잘 압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올 땐, 그땐 동무가 지금보다 더 까마득히 올라서있으리라느걸. 그래도 힘껏 달음쳐보렵니다.》

신해는 그를 좀더 따듯이 대해주지 못한 자기의 처사가 몹시도 민망스러웠다. 열차가 출발을 재촉하듯 길게 기적을 울렸다....

《참, 인차 새 지배인이 온다는 말 들었습니까?》

다시 신해의 상념을 깨치는 철민의 목소리였다.

《아무래도 올 사람이니 언제든 오겠지요.》

《그래도 우리 공장 역사에 없었던 녀성지배인이라는데 녀성들에겐 꽤 경사가 아녜니까? 하하.》

신해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그 무엇에서도 흥미거리를 발견하고 웃음소재를 찾아내는 그의 성미를 맹랑히 여기다가도 어떤 때는 내심 부럽기도 했다. 그래도 기술혁신조를 책임진 신해에게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방조자였다. 프로그램 기술이 미약한데 비해 장치엔 밝았고 보다는 다매체기술에 능했다.

그런데 가끔 작업시간에까지 기술혁신과 관련없는 3차원오락들을 주무르곤 했다. 간혹 신해가 주의를 주기도 했으나 하도 성격이 너글너글하고 사람됨이 호방해 못 본척 눈감아주기가 일쑤였다.

아침모임이 끝나자 신해는 된장작업반의 곡자실로 올라갔다. 그는 몇달째 곡자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초식품에서 기본은 장이다. 장생산에서는 일명 누룩, 메주로 불리우는 곡자의 생산공정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장맛은 대체로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 혹은 감칠맛인데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콩깨묵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다름아닌 곡자생산공정이기때문이다. 장은 이외에도 소금의 짠맛, 유기산의 신맛, 농마가 분해되어 생겨나는 포도당의 단맛 그리고 향이 서로 평형과 조화를 이루고 또 복발효되면서 그 특이한 맛을 내는것이나 역시 구수한 감칠맛이 기본이여서 무엇보다 곡자의 효소력을 높여야 한다.

이 곡자가 식료공업에서 오래동안 토법으로 생산되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세기 60년대에 통풍식 곡자생산기계가 도입되면서 장생산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곡자기의 성능을 개선하여 다량생산과 무균화를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컴퓨터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현대화는 매 생산요소들의 완전한 기계화를 전제로 한다.

신해의 공장에서도 이 기계화실현을 위해 많은 애로와 난관을 이겨냈다. 얼마전까지도 새로 개작한 뒤집기기계가 몹시 말썽을 부렸었다. 시운

전때마다 고정원판곡자기안에서 활동환을 축으로 뒤집기기계가 돌기 시작하면 고루 펴있던 찢바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실패를 거듭했다.

신해와 철민을 비롯한 기술혁신조원들이 밤낮없는 전투를 벌려 끝내 시험기대의 원활한 동작을 성공시키고 이 성과를 모든 곡자기들에 도입했다. 이제 남은 생산공정의 수값조종 역시 신해가 책임진 기술혁신조의 몫이었다.

매 곡자실에 따르는 원료투입, 수평퍼기, 뒤집기작업, 출곡작업 등은 이미 자동화되어있었다.

그런데 수자조종을 위한 수감부와 컴퓨터사이의 정보교환에서 이상현상들이 발생하는것이 문제였다.

신해는 여러 시간 기대들의 작업행정을 관찰하며 불규칙적인 현상들과 의문점들을 일지에 기록했다. 어디에서든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얼마후 작업실로 돌아온 신해가 컴퓨터앞에 앉아 전원을 넣기 바쁘게 출입문이 벌컥 열렸다.

역시 철민이었다.

《글쎄 내 안테나야 갈데 없지. 새 지배인이 방금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고맙게두 새파랗게 젊은데다 아주 멋쟁이라더군요.》

이날 저녁 종업원모임뒤끝에 새 지배인이 정식 소개되었다. 철민이 감탄할만 했다. 준수하고 세련미가 짙은 30대 중엽의 여인이 가쁜한 곤색 양복차림으로 나서서 머리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맑고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저의 이름은 홍선희라고 합니다.》

## 2

새 지배인과 기술혁신조사이의 첫 대화는 저으기 이채로왔다. 그가 온 시간은 공교롭게도 휴식 참이어서 여러 성원들이 철민의 들레에 모여 그가 새 지능오락프로그램을 능숙히 다루는 모양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있었다.

문가에 선 지배인을 누군가가 먼저 발견했다.

《수고들 합니다.》

평범한 인사말이었으나 사람들은 기왕이면 수고하는 저들의 진짜모습을 새 지배인에게 보여주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워 씩씩히 입들을 다셨다.

호기심과 기대가 어린 미소를 찰랑이며 찬찬히 방안을 둘러보던 지배인이 문득 가까이에 있는 철민에게 물었다.

《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속도가 얼마예요?》

뜻밖의 질문에 철민이 당황하여 머뭇거리자 다시 침착하게 물었다.

《람기억기용량은?...》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걸음을 옮겨 신해에게 다가섰다. 신해가 마우스와 기능건들을 엿

바꾸어가며 체계경로로 들어가 컴퓨터의 기술적 특성값들을 보여주자 지배인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넋났군요...》

그는 같이 온 책임기사를 돌아보았다.

《기술혁신조성원은 일곱인데 컴퓨터가 두대 뿐이라니 말도 안돼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선 제 방에 있는 컴퓨터를 여기에 옮겨 옵시다. 약속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모두에게 컴퓨터가 차례지게 하겠어요.》

가벼운 탄성이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터져올랐다.

《동무들도 우리 장군님께서 시안의 여러 경공업부문 공장들을 찾아주셨던 일들을 잊지 않았겠지요? 유리병공장, 구두공장... 지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이 고조를 이루고있어요. 우리도 이 벅찬 시대의 격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언제 헛눈을 팔고 한가하게 앉은방아나 쥔고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금 기술자들을 둘러보던 지배인이 신해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오늘 제가 무엇보다 기쁜건 조장동무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싱싱하고 활력에 넘친 청년들이라는거예요. 그 젊음과 활기가 바로 우리 공장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생각해요. 동무들의 지혜와 열정에, 피타는 창조정신에 우리 공장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걸 명심해주세요.》

홍선희의 어조는 담담했어도 모두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다. 신해의 가슴도 달아올랐다.

정찬 미소를 머금고 매 사람을 둘러보던 지배인이 나직이 말했다.

《내가 여담삼아 이야기 하나 할가요? 오래전 대학시절 제가 몹시 감탄하고 부러워했을만큼 수재형인데다가 정열가인 동무가 한명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각기 다른 초소로 헤어진 후에도 전 그 동무의 혁혁한 성과들을 전해들으며 한생을 노력해서라도 꼭 그를 따라잡으리라 마음다지군 했어요. 그런데 몇해가 지나간 오늘 그의 모습은 여럿이 함께 달리던 주로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속도를 내어 그를 앞섰기때문만이 아니라 그스스로가 주저앉았거나 행로를 바꾸었기때문일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보람을 찾고있는지... 과학자로서의 뜻을 버린 그가 과연 보람있는 생을 살고나 있는지...》

웬일인지 그의 말은 신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조용히 미소하며 지배인은 말을 이었다.

《첫날부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우리들중엔 그처럼 도중에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동무들이 없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니 리해해주세요.》

방을 나서려던 홍선희가 다시 멈추어섰다.

《참, 한가지 알려줄게 있어요. 진석동무가 간장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결의해나섰어요. 여기선

된장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있는데 어때요? 한번 경쟁해볼만 하지 않아요?»

신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명백히 이것은 자기에게 걸어오는 도전이었다. 수자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현대화는 결코 배짱과 담력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때 발효학을 전공한데다가 아직 실무능력도 부족하고 현장경험도 미약한 진석이 어떻게 감히... 게다가 《ㅎ》단백질을 가지고 씨름하고있는 형편에 어느썩에 현대화공정에까지 손을 뻗친단 말인가. 그의 진중하고도 사리밝은 성격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신해는 도무지 믿을수가 없었다.

이때 철민이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배인동지, 경쟁은 능력이 엇비슷한 대상사이에 벌리는것이 공정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진석동지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주관적인 욕망이 아닌지... 여기 신해동지를 비롯해서 한다하는 기계공학기술자들이 몇달째 모지름을 쓰고있는 형편인데 우리모두에게 비전문가인 그를 단신으로 맞세운다는건 아무래도...》

뜻밖에도 신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철민은 신통히 그의 속생각을 그대로 읊조리고있는것이다.

《일리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 알겠어요? 뜻밖의 결과가 나질수도 있지요. 진석동무의 알고리즘을 보니 그리 만만할것 같지는 않던데...》

선회의 말에 신해는 더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해보겠습니다. 꼭 경쟁을 조직해주십시오.》

홍선회는 그럴줄 믿었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자요. 인차 경쟁요강을 짜보자요.》

그는 책임기사를 다시 돌아보았다.

《래일부터 진석기사를 정식 기술혁신조에 망라시킵시다. 기술자들 호상간의 협동정신도 경쟁력 못지 않게 중요해요. 가까이 모여앉아 자주 의견도 나누고 서로의 성과에서 충동과 자극도 받고...》

그가 떠나간 다음 신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첫날 보았을 때 얼핏 느낀것이였지만 어쩐지 지배인의 얼굴이 낮익었다. 희미하긴 해도 분명히 기억속에 새겨진 얼굴이였다. 어디서 보았을가....

퇴근시간이 펍 지나서야 방을 나선 신해는 구내길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간장작업반앞이였다. 저도 모르게 이끌려온 걸음이었다. 이곳 현장에서 진석이 요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일판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신해는 자기가 언제부터 진석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는지 딱히 알수 없었다. 진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온 그날부터가 아니였을가?

그때 진석은 신해의 두손을 뜨겁게 부여잡으며 《신해동무! 보고싶었습니다.》하고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째서 신해의 가슴속에 것처럼 애뜻이 스며들었던지... 아니면 더 오래전 신해의 해박한 설명에 귀기울이며 열정에 넘

친 깨끗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그 시절에 오늘이 이미 잠재해있을지도 모른다.

작업실에 들어서니 컴퓨터앞에 앉아있던 진석이 말없는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가 당겨주는 의자에 앉아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상우에 널린 여러권의 기술서적들과 자료철우에 펼쳐진 로문판원서가 눈에 띄었다. 책을 집어든 신해는 한참만에야 겨우 《새 세기의 기적—스피롤리나》라는 제목글을 뜯어보았다. 그는 스피롤리나가 바다표면에 서식하는 마름류의 부유생물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있었다.

《로문원서도 보냈군요. 진석동지도 저처럼 영어가 전공이 아닙니까?》

《로어는 중학교때 배웠는데 사전의 도움없이 읽기가 힘들군요. 로어공부를 심도있게 다시 해야 할가봅니다.》

신해는 그의 고충이 이해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스피롤리나는 왜 파고드세요?》

《〈ㅎ〉단백질은 단백질함량이 20프로인데 일명 타래말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단백질함량은 70프로이상입니다. 흥미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21세기의 가장 리상적인 식량원천이라고 크게 떠들고있습니다.》

신해는 펼쳐보던 책을 덮고나서 하얀 이를 반짝이며 호호 웃었다.

《대체 지금 기본연구주제가 뭐예요? 〈ㅎ〉단백질도 아직은 미완성이지요? 듣자니 간장생산현대화에 뛰어들었던군요, 밤엔 밤대로 현장에서 공정별기계장치들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그런데 이제는 또 스피롤리나예요?》

진석이 그의 말에 수긍하듯 소탈하게 웃었다.

《〈ㅎ〉단백질은 아미노태질소함량을 한계단만 더 끌어올리면 생산공정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스피롤리나는 아직 자료확보중입니다. 만일 한 연구과제를 결속한 후 새 주제를 령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아까운 통시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확보와 기초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직방 연구실천에 돌입할수 있을겁니다. 생산현대화는...》

그는 작업중에 있던 컴퓨터화면쪽을 피끗 바라보았다.

《내가 최신프로그램언어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가에 따르지요. 기계장치에 대해선 신해동무에게서 많은 방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도와주겠습니까?》

신해는 놀랍게 진석을 바라보았다.

《그야말로 립체전이군요.》

《립체전이야말로 일찌기 우리 장군님께서 창조해주신 공격방식이 아닙니까...》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진석은 씩스럽게 웃었다.

《미안합니다. 주제넘게 제 자랑에 흥바람이 났군요, 신해동무가 누구라는걸 깜박 잊고. 내가 대

학에 가있는 사이 많은 일을 했더군요.…」

신해는 그의 칭찬이 쑥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그램작성중에 있는 컴퓨터쪽으로 다가섰다.

사용중인 언어가 신해에게도 생소한것은 아니었다. 언뜻 신해는 진석이 일부 조건명령문제시에서 미세한 착오를 범하고있는것을 발견했다. 하나의 단어를 잘못 표기하거나 수자 혹은 특수기호의 선택과 배열이 조금만 달라져도 실행에서 오류나 왕창같은 결과로 떨어지는것이 프로그램작업이었다.

신해는 제때에 이것을 일깨워주었다.

그런데 그를 돌아보는 진석의 얼굴에 한순간 그늘이 스쳐지나고 뒤미처 입가엔 서글퍼보이는 미소가 피듯 어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말없이 건반에 눈길을 떨구며 타건을 시작했다.

그만에야 신해는 그 미소와 침묵의 기분나쁜 의미를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자기가 지적한것이 결코 진석의 착오가 아닌것이 분명했다. 신해가 쓰고있는것보다 더 높은 계열의 한소편컴퓨터를 조종하는 또 다른 언어방식이 진석의 프로그램작업에 리용되고있었던것이다. 즉시에 잔등에서 뒤머리까지 짹 소름이 끼쳐오르고 타오르는 화염앞에 선듯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신해는 경솔히 허를 놓린 그 순간을 저주하며 진석의 방을 나섰다.

진석의 미소는 그 어떤 불가사의한 우주의 광선인양 꿈속에서까지 날카롭게 평긋거리며 신해를 괴롭혔다. 후에도 진석은 만날 때마다 가끔 선량한 웃음을 지어보였는데 전혀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해는 남몰래 몸을 떨곤 했다.

### 3

공장창립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와 체육경기가 생산건물들사이의 넓은 공지에서 벌어졌다.

공장현대화와 기술개건을 위해 밤낮없는 전투를 벌리던 종업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했다. 신해도 은근히 이날을 기다려왔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오빠의 영향으로 운동에 남다른 취미를 붙인 신해는 체육경기때마다 뭇선수들을 한몸에 모으곤 했다. 가쁜한 하늘색체육복차림에 하얀 체육모를 꼭 눌러쓰고 그가 운동장에 나서면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신해의 성격미를 엿보며 미소를 떠올리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이번 경기종목들에도 신해는 빠짐없이 참가하여 기술부서팀이 련속 승전고를 울리는데 적극 기여했다.

응원자들의 유쾌한 웃음과 갈채속에 사람찾아달리기경기가 벌어지고있었다. 차레가 되어 표가 놓인 책상까지 바람같이 날아간 신해는 숨가빠 쪽지를 펼쳐들었다.

《제일 미운 사람을 찾아 함께 달리시오.》

신해는 곱씹어 읽었다. 기막혀! 이런 엉터리사람찾기가 어디 있담?

퉁당지쫓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누군가의 소행이 분명했으나 언제 시비를 가릴 계제가 아니여서 쟁싸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공교롭게도 싱글벙글 미소를 짓는 진석의 모습이 선참 눈에 띄었다. 그 미소는 또다시 신해의 부아를 돋구었다. 더 생각할새도 없이 진석을 향해 웨쳤다.

《진석동지! 빨리 오세요!》

진석이 뛰어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달렸다. 만만치 않은 상대편선수들보다 한참 앞서 그들은 결승선에 들어섰다.

손바닥이 으깨질듯 처대는 박수소리, 경탄의 환호소리… 함께 나란히 시상대쪽으로 가며 진석이 물었다.

《대체 어떤 글이었게 나를 골랐습니까?》

신해는 입가에 피어오르는 깨고소한 웃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 경기 시상식때에는 반드시 쪽지의 내용을 만장앞에서 공개하는것이 공장의 전통이다. 마침내 마이크앞에 나선 직맹위원장이 신해의 쪽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제일 고운 사람을 찾아 함께 달리시오.》

와— 넓은 운동장에 차넘치는 웃음소리…

두눈을 홑뜨고 굳어졌던 신해의 얼굴이 삽시에 홍당무빛으로 물들었다. 누가 떠밀치거나 한듯 썩달음쳐간 신해는 관중들과 똑같이 웃고있는 직맹위원장의 손에서 쪽지를 나꾸했다.

《제일 고운 사람을 찾아 함께 달리시오.》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보아도 밋다는 단어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어느결에 쪽지가 바뀐것이다. 감쪽같이 속은것이 분명했으나 어디에 억울함을 하소할수도 없었다. 문득 유쾌히 환호하는 응원자들쪽으로 돌아선 신해는 손에 든 쪽지를 기발처럼 흔들어보이고나서 순진한 웃음을 활짝 지으며 머리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나 너무도 분하고 부끄러워 눈가엔 핑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높아지는 박수소리며 환성을 뒤에 달고 운동장을 나서는데 뒤미처 달려온 진석이 신해의 젖은 두볼을 놀랍게 쳐다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그런 내용이였다면 왜 나를 골랐습니까, 금시 후회할 일을…》

신해는 어떤 충동에 못이겨 쪽지가 통간을 피운 사연을 이야기했다.

별안간 진석이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랬군요.… 그런 기막힌 사연도 모르면서 찾아준 기대에 보답하려고 있는 힘껏 땀 내가 더 우습지 않습니까?》

그만에야 신해도 웃어버리고말았다.

《참, 뛰면서 놀랐습니다. 달리기숨씨가 여간이 아니더군요. 사실 좀전에 겨우 따라섰습니다.》

신해는 뜻밖의 칭찬에 마음이 부풀었으나 짐짓

아닌보살했다.

《100미터도 못되는 단거리인데 그쯤이야 뭐...》

진석은 감탄에 젖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가 생기면 어느때든 장거리주로서 한번 겨루어보아야겠군요, 이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신해는 허심하게 웃으며 터놓았다.

《전 결승선이 명백히 보이는 단거리일 때에만 이긴답니다. 저의 체질엔 장거리경주가 어쩐지...》

신해는 자기가 오래전의 색날은 오빠의 견해를 그대로 옮긴다는것을 상기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래도 장거리주로서 인내력이 검증되고 의지가 단련되는게 아닐까요?...》

신해는 알릴가말가 한숨을 내그었다. 만약 몇년 전에 오빠가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코웃음을 내뿜며 반박했을지 모른다, 폭발적인 힘으로 내닫는 단거리경주에서 달리기 최고속도가 평가된다고...

신해와 터울이 심한 오빠 김철해는 체육단 룽구 감독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체격이나 성미까지도 체육가형이었는데 그의 특기는 육상종목이었다. 더우기 100미터달리기에서는 전문선수들도 혀를 내둘렀다.

언제인가 오빠는 신해에게 말했다.

《내가 뛰는 100미터주로는 비록 단거리이지만 결승선이 명백히 보이는 출발선에 서면 난 단숨에 도달할수 있는 내 인생의 목표를 환히 내다보고있는듯이 착각하곤 해. 참 멋진 환상이지.》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오빠는 문득 방향전환을 하여 경공업대학을 지망했다. 대학기간에도 오빠는 100미터달리기를 하듯이 불타는 정열을 쏟아 모든 과목의 성적을 가장 앞선 순위에 넣음 끌어올렸고 졸업반때에는 학급에서 제일먼저 학위를 쟁취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런데 지금 오빠는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 오래전에 공장을 나가 대양을 넘나드는 대형운반선에 올랐다가 그나마 집어치운 오빠, 체육에서나 생활에서의 폭발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젊은 나이에 때이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열정도 식어버린 오빠는 진석의 말에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다음날 신해가 자료확보때문에 외출했다가 오니 동무들은 모두 현장에 나가고 뜻밖에도 진석이 빈방에 혼자 앉아있었다. 한쪽에 휴대용컴퓨터며 책 꾸레미들이 쌓였는데 방금 이사를 끝내고 땀을 들이든 듯 했다. 진석을 보는 순간 그가 더는 무시하지 못할 자기의 경쟁자라는것,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그 경쟁을 감당하기가 조련치 않으리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와 늘 함께 있게 된다는 안도감이 신해의 가슴속에 기쁨과 행복의 아지랑이를 가물가물 피워올렸다. 신해는 모순된 감정의 파문을 가가스로 숨기며 채광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었다.

정돈을 끝내자 진석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습기에 얼룩진 벽체며 한줄기 거미줄이 드리운 천정을 휘둘러보았다.

《여기가 공장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격전터란 말이지요? 현대 그동안 별로 달라진게 없군요, 젊은 친구들인데 어쩐지 곱팡내가 나고...》

신해의 마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화창한 봄날의 훈향이 상국이 떠돌던 마음의 푸른 동산에 의혹의 매운 연기가 꾸역꾸역 서리기 시작했다.

진석이 과연 짐작하지 못한단 말인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혁신인들이 탐구되어 현장에 도입되었는가를...

그런데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며칠후 퇴근시간이 지나서였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일감이 없을 때에는 철민을 비롯한 몇몇 성원들이 남아 컴퓨터와 장기를 겨루거나 혹은 오락을 즐기곤 했다. 그럴 때면 긴장한 하루일을 끝낸 화기에애한 기쁨과 웃음이 음악소리에 실려 방안을 가득채운다. 집단의 화목과 평온이 뚜렷이 파시되는 이런 시간을 신해도 마음속으로 기꺼이 즐기곤 했다. 그런데 진석의 출현은 이처럼 평화로운 잔물결위에 난데없이 던져진 하나의 큰 돌멩이라고 할지... 이날도 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실험수치들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방에 들어서던 진석이 문가에 우뚝 멈추어섰다. 한동안 부산스러운 방안정경을 둘러보던 그는 그늘진 표정으로 자기 자리에 앉으며 결의 철민에게 나직이 말했다.

《철민동무, 그런 일은 집에서 할수 있지 않아? 지금 온 공장이 기대와 믿음을 안고 우리를 지켜본다는걸 동무도 잘 알지 않나. 아까운 시간을 망탕 소비해서야...》

그제야 철민이 일손을 멈추고 피곤했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뭘 그러니까. 하루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는 꼭 그날로 풀어야 한다는게 내 생활준칙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요.》

진석이 혼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8시간로동행정규률을 엄격히 지킨다... 하지만 기술자들의 사색과 탐구에 휴식시간, 퇴근시간 따로 있을까? 지금같이 최첨단돌파전의 시대에...》

한자리건너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귀동냥해 듣던 신해는 그들의 대화가 언쟁으로 번져지기 전에 얼른 안전변을 열었다.

《그만들 하세요. 자 동무들, 이제 퇴근하자요.》

매사에 깔끔하고 속깊은 신해의 말은 언제나 영향력이 있었는데 철민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철민은 아무 일 없었던듯 기지개를 켜고나서 컴퓨터를 켜다.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방안엔 신해와 진석만이 남았다. 한동안 서먹한 침묵이 서려돌

았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진석에게 신해는 조심히 말을 건넸다.

《진석동지, 철민동무한테 너무 예리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직 좀 정돈이 되지 않아 그렇지 좋은 동무예요, 정열도 있고 불임성도 좋고...》

뜻밖에도 진석이 쓸쓸히 웃었다.

《정돈...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아직까지 정돈이 못됐으면 앞으로도 그 식이 장식이 아닐가요? 더구나 신해동무가 그의 탈선을 눈감아주는 한... 어떤 경우에도 원칙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혁명적원칙이 줄고있는 곳엔 반드시 안일과 라태가 서식하게 되지요.》

늘썌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던 신해의 두눈에도 노여운 빛이 떠올랐다.

《잠잠이 다른 일을 좀 한다 해서 문제될건 없다고봐요. 누구에게나 노동과 휴식의 권리가 있거든요. 사람이 무쇠로 빚어지지 않은 이상... 전 진석동지가 우리 집단의 화목한 분위기에 하루빨리 몸을 잠그었으면 해요.》

진석이 일어나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저 역시 휴식의 권리나 웃음과 랑만을 도리질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술자들은 휴식시간엔 물론 잠을 자면서도 탐구, 사색, 열정으로 심장을 끓여야 한다는걸 말하고싶었을뿐입니다.》

그는 몸을 돌리며 손을 뻗쳐 옆벽을 가리켰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저 구호가 한갓 장식물은 아니지요. 심장을 찌르는 저 불같은 호소가 여기서만은 행정시간에 한함인가요? 누구나 폭포처럼 광광 대지를 구르고 격류처럼 사품쳐야 할 이 벅찬 시기에...》

신해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옥물었다. 더는 무엇이랴 할말을 찾을수 없었다. 진석이 터치는 마디마디에서 은연중 부인할수도 뿌리칠수도 없는 그 어떤 몸부림을 느꼈던것이다.

신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진석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얼핏 보면 정열과 신심에 넘친 옛모습 그대로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제날의 진석을 찾아볼수 없을만큼 달라졌다. 신해는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졌다. 바로 이 차이점이 그와 자기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근본원인이 아닌지....

사실 신해는 요즘 늘 마음이 개운치 않고 안개라도 낀듯 몽롱하고 텅텅했다. 그는 때없이 자신에게 반문하곤 했다.

왜 이렇가? 어째서 점점 심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걸가. 현대화공정이 침체상태에 빠진것이 꼭 나때문이란 말인가. 프로그램은 그렇다쳐도 아직 미해결 문제들이 적지 않다. 기술적성능이 서로 다른 곡자기들의 통일성문제, 미진된 주변요소확보문제... 사람의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점이 있기마련이다. 나로

서는 얼마나 아글타글 모지름을 써왔던가.

스스로 기분을 추슬러도 마음속의 그들은 가세지지 않았다. 마음이 울적한 원인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를 대하는 진석의 태도가 점점 달라져가고있는것이다. 우연히 만나도 진석은 인차 눈길을 피하며 지나쳐가기가 일쑤였다.

아직은 애정이라 이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이었으나 신해는 서름한 그의 미소를 대할 때마다 짜릿한 배신감에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침묵이 흘렀다. 한결 마음을 가라앉힌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그 구호를 정히 내리웠다. 깜짝 놀라 굳어진 신해에겐 아랑곳없이 진석은 미리 준비한듯 한 붉은 색감과 새 붓을 꺼내놓았다. 그제야 신해는 영문을 알아차렸다.

한해전 신해가 직접 써서 걸었던 구호는 어느덧 현저히 그 색깔이 바래진것이다. 자기는 왜 구호를 보색할 때가 지난것을 감감 잊고있었던지....

신해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일손을 거들었다. 준비를 끝낸 진석이 눈처럼 하얀 붓에 붉은 색감을 듬뿍 찍어 한자한자 써나가기 시작했다.

《최첨단을 돌파하라!》

붉디붉은 글자들이 금시 새생명을 지니고 꿈을 거리는것만 같았다. 불현듯 신해는 지금 진석이 열정으로 맥박치는 자기의 심장에 붓을 찍어 그 붉은 피로 한자한자 써나가고있는듯 한 환각에 가슴이 몽클해졌다.

일을 끝낸 진석은 본래의 자리가 아닌 창문벽가운데에 높이 구호를 걸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방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눈앞에 확 안겨오는 이 붉은 글발을 보게 될것이다.

《최첨단을 돌파하라!》

#### 4

진석이 기술혁신조에 옮겨온 후에야 신해는 놀라울만큼 다양한 그의 하루일과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할수 있었다. 먼저 하루동안 쓸 《ㅎ》단백질의 일정량을 채취하여 청초상태로 증류수에 세척한 다음 잘게 절단한다. 이것을 보드랍게 갈아서 압착하면 즙과 섬유소찌꺼기로 갈라진다. 다음공정으로 이 즙에서 수분을 제거하면 단백질과 미소량의 무기염류가 남게 된다. 이 건물질을 본래는 효소처리하여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데 이때 분해물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35프로계선을 넘겨야 경제적효과성을 론할수 있었다.

진석은 줄기찬 사색과 탐구를 거듭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도 진석은 수많은 기술서적들과 원서들을 탐독하고 분석실험을 거듭했다.

실험실에서의 작업중에는 공정별로 한두시간의 여유가 생기곤 했는데 그때는 즉시 방에 돌아와 프로그램에 달라붙곤 했다. 그리고는 주변요소

들의 특성값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비교분석을 했다. 그리고는 또 실험실로, 도서실로, 공무작업 반으로...

마침내 진석은 효소법과 산법을 배합한 단백 질분해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거둬물을 쟁충 끌어 올렸다. 연구의 돌파구가 열린셈이었다.

온 공장이 들끓었다. 《ㅎ》단백질의 정보당 수확고는 최소한 수백톤에 이르는데 이것은 수십 톤의 간장을 생산할수 있는 량이었다. 한정보의 《ㅎ》단백질에서 근 10정보의 말에서 수확한 콩 으로 생산하던 간장량이 나오는것이다. 이제 오래 지 않아 대량생산공정이 꾸러지면 공장은 년간 많은 량의 콩을 절약하게 된다.

신해는 진석의 첫 승리가 기뻐으나 한편 지긋게 갈마드는 촉박감에 가슴이 답답해났다. 그들의 현대화공정은 온습도조종프로그램이라는 마지막계 선에서 전진을 멈추었던것이다.

이제 진석이 《ㅎ》단백질연구를 하면서도 적지 않게 심화시킨 자기식의 현대화공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것이다. 만일 반년이나 앞서 시작한 자기들보다 진석이 먼저 수자조종흐름식공정을 성공한다면 오래동안 첫자리를 차지해온 신해의 명예와 존엄이 다시는 추서지 못할만큼 추락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얼마전 신해는 진석에게서 새로운 한소편컴퓨터 조작체계를 서술한 원서를 받았었다.

몇페이지를 넘기다가 신해는 결연히 책을 덮어버렸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한소편컴퓨터의 계열과 프로그램언어를 바꾸고 모든것을 다시 시작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자멸행위로 여겨졌던것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홍선회가 자기 방에서 기술 일군협의회를 조직했다. 이제 여기에서 부문별 사업정형들이 날날이 분석되고 총화될것이다.

신해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홍선회가 먼저 서두를 때였다.

《우리 공장은 이번에 큰결음을 내짚었어요. 이제 는 풀로 간장을 만들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우리가 남먼저 관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장내에 환희의 파도가 물결쳤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진석을 향해 축하와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홍선회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린 성과에 만족하여 만세를 부르며 허리띠를 늦출수 없습니다. 일부 기술혁신지표들이 당총회에서 결정한 날자를 드릴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모두들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누어봅시다.》

책임기사가 공장의 전반적인 기술발전실태를 자세히 펴거했다. 몇몇 기술혁신담당자들과 현장 기사들이 엄한 추궁을 받았다.

문득 지배인의 부름소리가 들렸다.

《신해기사동무!》

신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수감부로 빨아들인 온습도측정값들이 이상 변화하는 원인을 찾았어요?》

신해는 확신이 없는 어조로 나직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원인으로 보고 추적중에 있습니다.》

잠시 앞에 놓인 문건에 눈길을 주었던 선희가 진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동일한 정황에 맞다들텐데 진석동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석이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도 우선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추적하는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프로그램상의 결함만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주변요소들의 회로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때요, 신해동무. 장치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겠어요?》

《우린 결합회로와 주변장치들간의 호환성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일가, 반드시 원인이 있을텐데...》

생각을 뚫으며 이마를 문지르던 진석이 문득 고개를 쳐들었다.

《현장에서 가동하는 각종 전동기들과 동력선들에 걸린 전류의 자기마당변화가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그 공업잡음들이 수감부에 이상현상을 나타낼수도 있습니다.》

신해는 지배인의 얼굴에 떠오르는 호기심의 빛깔을 감촉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어떻게 전기마당속의 그 무수한 공업잡음들이 전자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감감 잊고있었던 말인가....)

《그것이 측정값오류의 원인이라면 신해동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신해의 얼굴이 급격히 달아올랐다. 혼란된 그의 머리속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잡힐듯말듯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이번에도 선희는 의혹이 비낀 눈빛을 애꿎은 진석에게로 돌렸다.

신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뇌였다.

《장치적으로... 미분회로를 추가할수 있습니다.》

선희의 얼굴에 연한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미분회로... 그렇지요, 필요한 주파수만을 골라 통과시킨다 그 말이지요. 어때요, 진석동무?》

잠시 망설이던 진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RC미분회로로 무질서한 일부 주파수들을 제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부들과 신호변환부들의 안전성을 백프로 담보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좋기는 러파프로그램을 따로 짜서 주프로그램에 넣어주는것입니다.》

신해에겐 그의 말이 채찍처럼 자기의 몸을 휘감

아때리는것만 같았다.

현재 고충을 겪고있는 다른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들이 있었다. 어느덧 창밖엔 어둠이 서렸다.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열린 창가로 다 가섰다. 한여름의 훈훈한 저녁바람에 그의 머리카락들이 가볍게 훑날렸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는 왜, 방도는 어디에 하는 객관적물음에 앞서 각자가 자신을 팽철히 투시해봐야 한다고 말예요. 우리 심각히 돌이켜보지요. 진정 자기에게 기술자로서, 공장의 기술발전을 당앞에 책임진 한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저 역시 더는 넘기 힘든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것으로 판단되는 즉시 새 사람과 자리를 바꾸어줄것을 당조직에 제기하겠어요. 동무들도 그런 각오를 가져주세요.》

사람들은 방안을 감도는 후끈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오싹 잔등에 돋치는 식은땀을 느꼈다.

모임이 끝나고 헤쳐갈무렵 문득 홍선회가 신해를 불러세웠다.

《신해기사동문 좀 남아요.》

그를 앉히고도 무엇인가를 바재이듯 침묵을 지키던 선회가 입을 열었다.

《요즘 동무가 책임진 기술혁신조를 가만 살펴보면 어쩐지 불안해요. 왜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지. 진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걸렸는지... 신해동문 어떻게 생각해요?》

신해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켰다. 대체 무엇을 말하자는것일까. 기술혁신조장인 나의 무능력을 념두에 둔것일까? 설마 새 지배인이 나를?...

집작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신해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가 급기야 검붉어졌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꿈결인양 아슴프레 들려왔다.

《확실히 기술혁신조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전엔 성과도 많았는데... 벌써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있어요. 반대로 진석기사에 대해선... 그는 간장뿐아니라 된장생산공정의 현대화도 최단시일내에 꼭 해낼수 있다고 장담했다더군요. 어떤 일이든 시작만 하면 반드시 끝을 보고야만한다는 자신심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이예요. 정말 사랑스럽구 정이 가요.》

별안간 분노와 수치가 불길마냥 뒤엉키며 신해의 온몸을 휩쌌다.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는 지배인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해는 뼈를 바수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진석동무가 어찌먼!... 제스스로가 내 일을 장담해나섰단 말인가!...

어두운 구내길을 달음치듯 걸었다.

발걸음은 저절로 실험용 《ㅎ》단백질이 무성히 자라는 뒤마당의 못가로 향해지고있었다. 마음 괴롭고 애가 탈적마다 때없이 찾던 곳이었다.

나무의 굵은 줄기에 부딪치듯 힘껏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휘날어진 버들가지들이 바람결에 소시락거리고 단백풀들이 물속에 뿌리를 드리우고 설레설레 고개를 짓는 소리...

《거기 누굽니까?》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신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삼켰다. 진석이 어느새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실험용풀의 생장상태를 돌아보는듯 했다.

신해의 가슴에 뚫어번지던 진석에 대한 의혹과 원망이 물목을 터친듯 왈각 솟음쳐올랐다. 뻥 몸을 돌려 피해간다는노릇이 그만 돌부리를 차며 비칠거렸다. 얼결에 부축할듯 손을 뻗치는 진석을 뿌리치며 신해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비켜요!... 야심가!...》

와플 놀란 진석이 그 자리에 굳어졌다.

《대체 웬일입니까, 밀도 끝도 없이.》

《모르세요? 제가 한짓을... 다 말아나섰지요? 저의 현대화연구도 기술혁신조장자리까지도 탐나면 다 가져요. 제가 물러나지요, 이젠 진석동지가 나보단 훨씬 뛰어나니까.》

신해는 아연해진 진석의 표정에서 그가 무슨 영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있음을 알아차렸다.

제발 펄펄 뛰며 애꿎은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소리쳐주었으면, 그래서 오해했던 내 마음을 뽐벌처럼 따듯이 녹여주었으면!...

그러나 진석은 말없이 신해를 바라보기만 했다. 집요한 침묵에 신해가 숨이 막힐무렵에야 진석이 나직이 말했다.

《그래서 지금 수치와 분노로 치를 떨고있군요?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무능은 오늘 더는 참을수 없는 우리모두의 적이지요. 무능한 건달군들의 일생 꾸준한 점은 단 한가지 총명과 재능을 흉내내는겁니다. 물론 신해동문 지난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뭐랄까... 육체적준비뿐이 아니고 기술자로서의 신념과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선수라고 할지... 손쉽게 성공할수 있는 결과물이 뵈히 보일 때에나 출발선에 자신있게 나서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당에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백걸음을 걷고 남들이 뛰면 우리는 날아서라도 기어이 세계를 앞서나가자고 호소하고있습니다. 첨단에서 최첨단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우리들중 누구에게도 티끌만 한 성과에 도취하거나 다리섬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자기만족이나 답보도 허용될수 없는 총공격전의 시대입니다. 신해동무가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어둠속에서 진석이 계속했다.

《동문 오늘 당한 수치를 피해선 안됩니다. 피할수도 없구요. 어떤 일군이 동무의 해임을 결심했다면 내 보기에든 옳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신해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도 뜻하지 않았던 타격이었다.

《물러나겠단 말이지요? 그런데 좀더 빨리 결심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동무가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누구보다 내가 먼저 제기했을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프로그램도 내가 하고 기술혁신조도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왜냐구요? 내가 동무의 수치를 가엾게 여긴다면 오늘은 기술혁신조가, 래일은 공장이 수치를 겪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동무와 같은 기술자에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맡기면 언제인가는 반드시 나라가 치욕을 당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신해동무,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습니까. 이제라도 번쩍 정신을 차리십시오!》

누구도 몰래 마음속깊이 쌓아가던 희망과 사랑의 하얀 탑이 줄지에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평을 신해는 너무도 뚜렷이 가려들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나고 마른 오열이 흑흑 끼쳐나왔다.

《동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 이게 진짜 모습이었군요. ... 모든게 다 거짓이었어요. 저에게 지어보이던 웃음도, 보고싶었다는 그 다정한 말도... 무서워요, 무서워 못 견디겠어요!...》

진석은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쑥스러워도 고백해야겠군요. 난 참말 신해동무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그 처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처녀가 나를 반겼지만 아득히 울려다보이던 그 처녀가 아니었던 말입니다.》

신해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신해일뿐이에요. 변한 사람은 바로...》

《변하지 않은것이 자랑일가요?... 동무가 지금 쓰고있는 프로그램언어도 한때는 최신판이었지만 그것이 뒤자리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보다 우수한 기능들을 다량 내장한 프로그램언어가 런이어나오고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번개속도로 뻗쳐가는데 코노래를 부르며 팔자걸음으로 따라잡거나 앞서나갈수 있겠습니까?》

진석의 어조는 높지 않았다. 별로 날카롭거나 준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마디마디가 날선 비수마냥 신해의 가슴을 찔렀다.

신해는 더는 할말을 잇고 망연히 서서 희미한 달빛에 더욱 검푸르게 보이는 단백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래선 안되지, 안돼.》 하듯 절레절레 고개를 가로저고있었다...

## 5

며칠째나 신해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잊지 못할 그 하루를 곰곰히 되새겨보았다.

기술협의회에서의 불안과 초조감, 자기 대신 진

석이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음으로 해서 얼굴뜨겁게 당한 모욕, 그뒤를 이은 지배인의 의혹 그리고 못가에서 진석에게 당한 쓰라린 배신과 좌절...

대체 이 모든 수치가 언제부터 시작된것일까.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 결말이 아닐것이다. 얼마나 칠색무지개색갈로 아롱다롱 빛나던 시절이었던가. 거의나 한번도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대학생활, 런이어 공장에서의 눈부신 성공, 공장의 기술 일인자가 되겠다는 자신만만한 야심을 품고 달음쳐온 나날들... 마침내 누구도 견줄수 없는 확고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바로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더는 공장에 경쟁자가 없다고 환희에 넘쳐 확신한 그 순간부터 나의 내리막길이 시작된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나의 명예와 존엄이 영원할것이라고 굳게 믿었었지. 그래서 마음의 탕개를 풀고 여유있게 속도를 늦추었던거야. 그런데 결과는?...)

신해의 뇌리엔 잊저녁의 일이 떠올랐다.

퇴근시간이 지난지도 이속해서 홍선회지배인이 기술혁신조의 작업실에 들어섰다. 홀로 있던 신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차리고는 다시 주저앉아버렸다.

그를 지켜보던 선회가 실망에 잠겨 말했다.

《동무가 이럴줄은 몰랐어요. 맥없이 한숨만 쉬고있을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은 넘어져봐야 안다더니... 그래도 난 신해가 철해동무의 동생이란것을 알았을 때 기뻐했어요. 오빠가 버린 길을 그 동생이 가고있는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신해는 놀라게 선회를 바라보았다.

《지배인동지가 저의 오빠를 어떻게 아세요?》

《언젠가 말한적이 있었지요, 대학때 내 삶의 목표로 되었던 동무가 있었다구요. 바로 철해동무였어요. 얼마전해야 그가 동무의 오빠라는걸 알고 놀랐어요. ...》

그제야 신해는 홍선회가 낮익었던 까닭을 알아차렸다. 오빠의 대학시절사진첩에 처녀시절 홍선회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던것이다.

선회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해동무 너무도 쉽게 청춘시절의 목표를 정했던것 같아요. 한생의 분분초초를 즐기치게 달려야 도달할수 있는 큰 목표가 애당초 그에게겐 없었던거예요. 난 신해동무가 오빠의 전철을 밟게 될가봐 걱정스러워요. ...》

신해는 이윽히 선회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젊음이 넘치는 모습이다. 지금껏 벅찬 사회생활에 몸담고 달음쳐온 나날의 향기론 열매인듯 온몸에 싱싱한 활력이 넘쳐흐른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까닭없이 배에서 내린 후에도 한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직업을 옮겼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그 나날들에 그처럼 호기넘치고 자유분방하던 기질도 맥없이 숙어졌다. 얼마전엔 책임기사

가 다시 공장에 나와달라고 꼭진히 부탁했으나 지금껏 묵묵부답이다. 것처럼 파묵해진것이다.

신해는 타는듯 한 수치감에 고개를 숙여버렸었다....

밤이 깊어간다. 잠을 청해도 잠들수 없어 신해는 가로등이 호젓하게 빛을 뿌리는 밤거리를 지나 공장으로 나갔다. 기술혁신조작업실에 불빛이 환했다. 신해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컴퓨터앞에 앉아 자료입력을 하던 진석이 뒤를 돌아본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의혹이 떠오른다.

신해는 말없이 제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든 손과 발이 저리도록 땀흘려 하고싶었다.

자료입력을 끝낸 진석이 인쇄기를 가동시켰다. 스프르스프르 분사기가 움직이고 인쇄지가 밀려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진석이 다가왔다.

《전압과 전류의 파동에 따르는 자기마당변화값들을 뽑았습니다. 러파프로그램작성에 도움될겁니다.》

신해는 서서히 도리머리를 저으며 속삭였다.

《이젠 진석동지의 뚝이예요.》

잠시 신해를 내려다보던 진석이 조용히 말했다.

《공장에서 으뜸이던 옛모습을 정말 되찾을수 없겠습니까? 그 당당하고 자부심에 넘치던 모습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때처럼 우리의 차이가 아득해져서 내 존재가 동무의 눈에 비껴들지 못한다 해도 좋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있는 힘껏 따라잡으려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할만큼 높이 나래치는 처녀가 나의 벗이라구요.》

신해는 더욱더 고개를 수그렸다. 어쩐지 숨결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할일이 많습니까. 난 스피롤리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남먼저 패권을 쥘수 있다고 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그는 하나하나 꼽아내렸다. 세계적으로 21세기인간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식품원천으로 공인되고있는 스피롤리나의 식물구조에 숨겨진 온갖 속성과 비밀들— 70프로에 달하는 단백질속의 각종 아미노산들과 비타민, 다당, 불포화지방산과 광물질을 비롯한 영양물질들의 비밀을 송두리채 틀어쥐게 될 멀지 않은 앞날에 대하여, 수많은 영양원소들을 깡그리 추출하여 다양한 식료품을 짹짹 생산해낼수 있는 흐름식통합조종체계에 대하여...

《난 대학시절 수도의 어느 식료공장에 톤문실습을 나갔던적이 있었습니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잣 일떠선 그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선 쏘아져나오는 사탕과자와 갖가지 식료품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인민들에게 당과류와 식료품을 마음껏 먹이는데 자신의 소원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늘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보

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벅찬 일입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식료공업을 최첨단과 학의 정수인 인공지구위성에 비교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난 한생의 리상과 목표를 다시금 새롭게 세웠습니다. 삶의 전부를 깡그리 태워서라도 세계를 굽어보는 최첨단식료기술을 탐구하고 돌아하리라.》

신해는 어느새 고개를 쳐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얼마전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떠돌던 수치와 절망이 점차 가뭇없이 사라져가고있음을 놀랍게 깨달았다. 저 열광에 번쩍이는 눈빛, 찬란한 앞날을 그려보이는 신심과 락관에 넘친 저 목소리, 열정의 모습!... 훌훌 불이 끼쳐나오는듯 한 진석의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울렸다.

《신해동무! 우리 시대 매개 인간의 삶의 목표는 최첨단주로에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신해의 귀가에는 진석의 목소리가 우아하고 매혹적인 음악의 풍만한 선율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과 한생을 함께 할수만 있다면, 함께 손잡고 과학의 먼길을 나란히 달음쳐갈수만 있다면!

신해의 꿈속에 잠긴듯 한 표정을 본 진석이 문득 말을 그쳤다. 주위를 잊고 무아경에 빠져든 그의 모습이 뜻밖에도 진석에게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된듯 했다.

《난 그래도 스피롤리나를 동무와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말하고싶었는데 동무는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군요.》

안타까움과 실망에 겨운 그 목소리가 아프게 신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진석은 고개를 돌리더니 문가로 향했다.

저 걸음으로 현장에 나가 이밤을 새울것이다. 한순간에 신해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낡고 진부한것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자기의 참된 리상과 목표를 향해 시대의 격류속에 사뭇쳐 내달리는 사람들,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하며 최첨단돌파의 강행군주로를 쉬임없이 달리는 사람들, 사랑도 개인의 행복도 오직 그 길에서만 찾는 그들이기에 어제는 홍선희가 오빠를 앞서 까마득히 달음쳐갔고 오늘은 진석이 신해를 뒤에 남기고 썩썩 멀어져가고있는것이다. 이제 가면 진석의 마음은 다시는 신해를 향해 돌아서지 않을것이다.

저 걸음을 끝내 멈추어세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진석이 끝내 나의 곁에서 떠나가버린다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것만 같은 세찬 충격에 신해는 솟구치듯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금시 문턱을 넘어서는 진석을 향해 두손을 내뻗치며 신해는 자신도 놀랄만큼 걱정해 넘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저도 같이 가요!...》

# 사랑의 궤적

리명근

해빛넘친 창가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무한한 행복에 미소짓는  
젊은 너인의 그 밝은 얼굴

유보도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청년대학생의 열정넘친 저 눈빛  
공장을 나선 청춘들의  
활기에 넘친 힘찬 발걸음  
얼마나 환희로운 모습들인가

마음껏 솟구쳐오르는 새집들  
첫 동음을 터친 새 공장  
꽃들이 웃는 거리와 마을...  
보통날 새들의 지저귐소리에서도  
평화로운 이 나라의 숨결을  
뜨겁게 안아보게 되는 이 땅

비둘기 흰 날개는 자유로이 퍼덕이고  
학교길에 야영길에 올리는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소리—  
어스름 깃든 강기슭에  
매없이 올리는 티없는 웃음소리  
나란히 찍어가는 행복의 발자욱...

끝없이 사랑할수 있도록  
그 사랑을 지켜준  
크나큰 사랑이 이 땅에 있구나  
한없이 행복할수 있도록  
그 행복을 꽃피운  
고마운 사랑이 이 땅에 있구나

하기에 그 누구를 만나도  
가슴마다에 그득차있는 긍지  
원췌들 범접 못하는 땅에서 사는  
강대한 민족의 자부심  
오직 위대한 사랑만이 줄수 있는 그 모든것

간고한 나날에도  
우주에 자기의 자리길을 찾아  
우리의 위성을 떠올린 그 힘  
고난을 이겨내면서 다져온 국방력으로  
민족의 의지를 선언한 그 자존심

무엇이던가  
이 모든것을 품어주고 안아온  
그 크나큰 사랑  
세상에 다시 없는 위대한 그 사랑은  
우리의 선군이다

오, 그것으로 지켜낸 인민의 운명  
그것으로 받들어올린 민족의 존엄  
저 푸른 하늘처럼  
세계를 향해 창창히 열린  
내 조국의 밝은 미래여

진정 선군은 사랑이었다  
조국과 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다  
사랑중에도 제일 높은 절정에  
아, 선군이 있다!

## 세대군인 탄부에게 외 1편

변홍영

틀어진 총창너머  
별들이 반짝이던 고지의 밤  
이슬내린 전호가에 가슴을 대이고  
그대는 생각했다  
락원의 조국이 우리뒤에 있다고

깊이 더 깊이 탄밭을 찾아  
천길 땅속으로 내리며  
오늘도 그대는 생각한다  
번영하는 조국이  
우리 어깨우에 받들려있다고

조국은 아들을 믿어  
어제는 최전연초소를 맡겼고  
오늘은 그대를 탄전에 세웠나니  
믿음은 뜨겁다 어머니조국앞에  
의리를 다해가는 아들로 살라고  
그대 어깨우엔 평장이 빛나고있지 않느냐

성스런 군기앞에 다진  
병사의 선서는  
그대 한생에 지니고 살  
삶의 서약

그대 한생에 변함이 없을  
투쟁의 좌표

천리방선전호가에서  
총을 쥐고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별들은  
그대 마음에 꺼질줄 모른다  
조국위해 한목숨바칠 병사시절의 그 맹세는

그대 가슴에 붉은 피로 끓는다

초소는 바뀌어도  
심장으로 받드는 조국은 하나이거니  
그때문에 오, 그때문에  
체대군인탄부여 어제와 오늘도  
그대는 영원한 병사로 살고있구나

## 억센 뿌리

청청한 나무숲이 우거진  
높이 치솟은 저 산밑에  
탄광의 갱들이 있다  
탄부들의 막장이 있다

비내린 뒤  
창창 개인 하늘가  
더욱 신록이 짙은 산의 숲을  
내 머리를 젖히고 쳐다보노라니  
불시에 가슴치는 뜨거운 생각

조국이 거목이라면  
우리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시던  
아버이장군님의 그 말씀 그 호소  
그 숭고한 애국의 의미를  
내 다시 이 탄전에서 새겨보나니

천길땅속 무수히 뻗어간  
갈래많은 갱도길 그 한끝 채탄장들에서  
지금 이 순간도  
땀에 젖어 탄을 캐는 탄부들

그 누구 보느니 없어도  
조국에 향한 그들의 량심엔  
한점의 티도 없다  
천연암벽속에 굳어진  
순수한 석탄처럼 순결하다

아, 정녕 그들이 아니냐  
근면한 로동과  
심장속에 피끓는 애국충정으로  
조국만대의 번영을 떠받든  
그 억센 뿌리가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4호 (루계 제774호)

###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1(2012)	년	4월	1일	
발	행	주	체	101(2012)	년	4월	5일	

7-2617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